

2005학년도

박사(Ph.D) 학위 청구논문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천국상급에 대한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류재룡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천국상급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김길성

이 논문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류재룡

柳在龍의 博士學位(Ph.D)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김길성 印

審査委員 문석호 印

審査委員 나용화 印

審査委員 이승구 印

審査委員 장성민 印

2005년 12월 일

總神大學校 大學院

감사의 글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은혜 베풀어주신 성 삼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로 이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고 개혁주의의 정통 진리의 노선을 이탈한 시대에 천국을 소망하는 본고를 쓰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질된 기독교인 기복주의와 자유주의, 종교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상급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김길성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신대학에서 칼빈주의,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강의하시며 총신대학의 개혁주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려고 힘쓰시는 김박사님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총신대학의 문석호 박사님, 장성민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이신 개혁신학 대학원대학교의 나용화 박사님, 국제신학대학의 이승구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분들의 수고로 본 논문이 많이 정리되고 다듬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용화 박사님은 논문의 많은 내용을 보충하는데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박사과정 공부를 지도해주신 서철원 박사님, 김광열 박사님, 문희석 박사님, 박용규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본인의 공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부모님이신 류차연목사님, 김석순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2남 4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이 목회자가 되어 서로 도와주며 특히 본인이 개척교회를 하고 힘든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에서 목회하는 김경수 전도사님, 유애경 사모님,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이강목 목사, 유혜경 사모, 부산에서 목회하는 류재덕 목사, 미국에서 교수사역을 하는 박경신박사, 유미경 집사, 부산 만덕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김진집사, 유은경 집사와 기도와 후원해주신 숙부 류정수 집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인되신 정병학 집사님 장모님이신 권정숙 권사님의 배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또 기도와 후원을 해준 처가 형제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기도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기도와 협조로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인 선호, 선도, 선영, 선민이 건강하게 자라주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배후에서 기도해주신 청주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청주신학교 신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인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난곡동 교회 김영웅 목사님과 교단의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논문을 더욱 발전시켜 책으로 발간하여 이 시대에 상급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 차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8
- 제 2 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14

제 1 장 상급에 관한 성경적 고찰

- 제 1 절 구약에 나타난 상급. 19
- 제 2 절 신약에 나타난 상급. 29

제 2 장 종교개혁 시대까지의 상급 사상

- 제 1 절 유대교의 공로사상. 46
- 제 2 절 헬라 로마 세계에 있어서의 상급개념. 49
- 제 3 절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 52
- 제 4 절 종교개혁자들의 상급관. 58

제 3 장 최근 개혁주의자들의 상급관

- 제 1 절 상급무시 견해. 72
- 제 2 절 상급중시 견해. 94

제 4 장 천국상급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견해

- 제 1 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 129
- 제 2 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 130
- 제 3 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상급사상. 131

제 5 장 천국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1)

- 제 1 절 천국상급에 대한 기독교론적 고찰. 143

제 2 절 천국상급에 대한 구원론적 고찰. 154

제 6 장 천국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2)

제 1 절 천국상급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191

제 2 절 천국상급에 대한 종말론적 고찰. 199

제 7 장 천국상급에 대한 윤리적 고찰

제 1 절 기독교 윤리의 기초. 220

제 2 절 기독교 윤리의 목적. 226

제 3 절 기독교 윤리와 선행. 227

제 4 절 기독교 윤리의 내용과 상급. 228

제 8 장 천국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제 1 절 상급의 수여자와 수혜자. 266

제 2 절 상급의 원리. 271

제 3 절 상급의 동기와 목적. 284

제 9 장 천국상급의 등급과 그 내용

제 1 절 천국상급의 등급. 296

제 2 절 천국상급의 내용. 300

결 론

제 1 절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344

제 2 절 상급을 위한 준비. 346

제 3 절 논문의 의의와 과제. 354

Bibliography. 358

Abstract. 366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및 그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탄생되었다. 이 교회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행 1:8)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독교의 근본진리에 도전하는 반기독교 세력들이 교회 안 밖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인본주의와 유물주의, 세속화의 세력들이며 포스터 모드니즘(post-modernism) 시대의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세력들이다. 이들은 기독교의 절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거부하는 자들이다. 종교 개혁에서 부르짖은 성경의 절대 권위는 과학과 이성의 심판 아래 빛을 잃게 되고 고등 비평가들은 성경을 갈래갈래 해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비교 종교학의 연구가 성경 연구에 도입되고 역사 비판학이 성경의 진위성을 가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기독교는 합리주의의 여파를 거쳐 하나의 문화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

1880년대에서 1900년 초엽에까지 미국 강단에서 묘사된 그리스도는 하나의 훌륭한 문화적 이상에 불과했다. 남북전쟁 이후에 일어난 미국 경제의 부흥과 과학문명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며 구원과 내세를 외치는 정통주의 신학을 외면하고 점차 낙관주의적인 현대주의 신학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이미 유럽 교회를 좌경화시킨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교회를 강타한 것이다.¹⁾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학을 연구

1) 이런 신학적 좌경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에서 신학적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근본주의 운동의 선구적 운동은 Moody의 전도 운동과 Niagara의 Bible Conference 운동이다. Dwight R. Moody는 수모받은 성경을 거리와 군중 속으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 대중 전도에 나섰다. 복음주의적 목사들은 교인들을 모아 사경회를 열었다. 사경회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Niagara 휴양지에서 모인 연례적인 성경 연구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 사경회 운동은 합리주의 운동의 여파로 추락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확립하여 수호하자는 초교파적인 보수주의 교회 지도자들의 운동이었다. 1895년 Niagara에 모인 사경회에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성

하고 교수하는 학자들이 기독교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서구를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세속화는 최근에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라는 기독교 단체는 타종교들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²⁾ 이러한 종교적 포용주의는 성경의 진리를 저버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인 것이다.

오늘날 배도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다.³⁾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대로(눅 18:8)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믿는 참 기독교가 드문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가고 있지만 진실한 기독교가 많지 못하는 서글픈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독교의 절대성을 포기한 현대 기독교는 내세의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현세에만 관심을 가진다. 현세의 인간의 가치를 강조하는 인본주의 도덕주의 기독교와 이 땅의 축복만 강조하는

경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추출하여 다섯 가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선정하였다. 첫째로 성경의 무오성, 둘째로 예수의 처녀 탄생, 셋째로 예수의 대속적 죽음, 넷째로 예수의 육체 부활, 다섯째로 예수의 육체적 재림이었다.

2) *The Ecumenical Review*, 38 (1986), 215. 1983년 WCC 뱅쿠버 총회는 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 다섯 개 세계종교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공식적으로 연결케 했다. WCC 지도자들 중에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종교 간 대화 위원회 의장인 더크 멀더는 “당신은 불교인이거나 힌두교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물론이죠”라고 대답하였다. M. H. Reynolds,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 Cup of the Lord or the Cup of Devils?*, p. 8. WCC의 지도자 웨슬리 아리아라자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명백히 부정하며 “절대적 의미에서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파악할 수 없고, 우리는 예수에 관한 기독교의 주장들이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이교도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형제자매요 순례자이지 이방인이 아니며 기독교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도에 가장 큰 방해거리라고까지 말하였다. S. Wesley Ariaraja, *The Bible and People of Other Faiths*, WCC, 1985, 6-56.

3) 총신의 서철원 교수는 서구 교회가 성경의 비평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게 되어 배도가 완료되었고 한국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고 탄식하였다. 서철원,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인 배도에 등승할 것인가?” 「신학지남」 통권 제273호 (2002년 겨울):4-10.

기복주의 등과 같은 거짓 기독교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위엿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한다(골 3:1-3). 만약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이미 기독교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세의 천국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믿음생활에 더욱 힘을 쓰게 되는 것이다. 내세에 대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 뿐 아니라 천국의 상급도 소망하게 된다. 성경은 신자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며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마 5:12)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인한 것과 달리 개혁주의 안에도 내세의 천국을 믿지만 천국의 상급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유대교와 로마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 얻음에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자가 천국에서 받을 차등 상급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은 어떤 것인가 잠깐 살펴보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행위가 개입된다.”는 소위 공로사상을 주장한다.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본능 곧 원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로사상에 물들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공로사상은 예수님의 완전 대속을 거부하는 비 성경적 이단 사상이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이 종교(異 宗教)의 행위 종교(行

4)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공덕(superogation)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보다 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 보충할만한 선행을 쌓을 수 있다고 한다. L. Berkhof, 「별롭 조직신학」,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9), 266.

爲 宗教)를 결합한 혼합종교인 것이다.

이러한 카톨릭의 공로 사상에 반대하여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은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은혜로'(sola gratia)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공로주의를 배격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난 '다른 복음' 또는 '거짓 복음'임을 밝힌 대로(갈 1장)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이 거짓 복음임을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공로사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선행과 그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는 우를 범하였다. 특히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을 비판하면서 행위가 강조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까지 하였다. 그는 나중에 이를 수정하였지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선행에 대해 소홀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에 비해 칼빈은 이신칭의 외에도 성화와 선행 및 상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칼빈도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주심 자체는 강조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홀히 다루었다. 이는 그가 상급을 너무 강조하면 공로 사상에 빠질까봐 이를 경계하다보니 상급이 공로가 아니라는 데 대한 변호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에 대한 반발로 상급을 위한 신자의 선행을 공로 사상에 치우칠까봐 너무 경계하다보니 상급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고 말았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상급관에 편승하여 최근의 개혁자 가운데에 상급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들이 상급경시 경향의 배경에는 상급에 대한 공로 사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급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도 크다고 생각된다. 즉 이는 상급을 구원과 혼동하는데서 오는 무지의 결과인 것이다.

만약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상급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성경의 작은 하나를 부인하다 보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천국의 상급을 부인하면 천국 자체까지 부인하는 자유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되지만 상급은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즉 구원받은 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성화의 열매로서 선행이 나타나며 이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상급에 인간의 행위가 수반된다고 해서 인간은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선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상급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와의 문제이다. 지나치게 은혜만 강조해도 반 율법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행위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급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 및 인간의 책임 문제는 성경과 신학 전반을 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양자의 관계는 신약 시대 이래로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논쟁 되어 온 해묵은 문제이기도 하다.⁵⁾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을 획일적인 신학 원리로 일방적으로 내세워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본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인간의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을 곡해하며 공로주의로 흘러가는 잘못을 범하기 쉬운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책임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선택권을 부여하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매우 제한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역할 분담하여 50:50 또는 90:10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려 한다.⁶⁾

5) M. Muller, "Uber Autonomie und Gnade von Alexandria," ZNW 25 (1926): 177—207.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저술들이 있다. I. H. Marshall, *Kept by the Power of God. A Study of Perseverance and Human Responsibility, Biblical Perspectives in Tension* (1981); J.M.G.Volf, *Perseverance and Falling Away in Paul's Thought*, Ph.D Dissertation, Tübingen University(1987).

6) 이러한 설명은 '시소게임'논리라고 하는데 이는 신적 주권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인간의 책임 영역을 줄이던가, 아니면 인간의 책임 영역을 넓히기 위해 신적 주권의 영역을 줄이는 식의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스콜라적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 주의자들에 의해서 흔히 채택되어 왔다. 스콜라적 칼빈주의는 신의 주권 영역을 넓히고 인간의 책임 영역을 줄이는 반면 알미니안 신학자들은 인간의 책임 영역을 넓히

그러나 이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주권이 일부분만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권하시며 주재하시며 공중의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하였다(마 10:29-30).

인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이 부분적으로만 책임진다고 하면 이는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고 하셨던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 100%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이나 상대방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인간도 전적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결코 역할 분담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이러한 이율 배반성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행위와의 관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도 일하시며 인간도 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즉 100% 하나님의 주권이요, 100% 인간의 책임이라고 해야 정확한 이해라 할 수 있다.⁷⁾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는 상급 문제(賞給問題)에 있어서도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 준다.⁸⁾ 인간이 수고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분명히 신앙고백 하였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고 신의 주권 영역을 줄이려 한다.

7)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14.

8)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현세적 천국에 대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미래적 종말론적 천국 상급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다.

아니 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 42).

성경은 일관되게 신자의 상급문제를 강조하며 신자의 선행을 장려하고 있다(마 16: 27; 고전 3:8; 고후 5:10 등).

이렇게 상급의 은혜성과 인간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상호 모순되는 듯한 성경의 상급 교리를 바로 이해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 상급교리에 대한 양 극단의 사상인 공로 사상과 상급 무시 사상을 배격하고 상급 교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영위해 갈 수 있다.

나아가 본고는 천국상급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 천국상급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및 연구의 방법

천국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본고는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및 논문의 구성 및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제 1 장에서 상급에 대해서 성경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상급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보고 상급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상급 교훈은 유대주의나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제 2 장에서는 천국 상급에 관한 역사적 고찰로 먼저 종교개혁주의자들까지를 다룬다.

1절에서는 성경의 상급 교훈을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그들의 공로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상급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헬라의 윤리적 철학적 상급개념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들의 공로사상으로 인해 성경의 상급개념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살펴본다.

4절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에 반발하여 일어난 종교 개혁자들의 상급관을 살펴본다. 특히 칼빈의 상급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제 3 장에서는 상급에 대한 최근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를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상급을 무시하는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저들의 견해를 비판한다.

2절에서는 상급을 중시하는 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한다.

제 4 장에서는 상급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이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분석한다.

3절에서는 상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천국상급 사상이 개혁주의의

전통임을 강조할 것이다.

제 5장과 6장에서는 천국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즉 상급과 관련된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을 살펴봄으로 상급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될 것이다.

5장의 1절에서는 천국 상급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을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천국상급의 관련성을 다룬다. 이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상급을 다룬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직분이며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2절에서는 천국상급에 대한 구원론적 고찰을 한다. 먼저 구원과 상급의 차이를 분명히 할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역사이지만 상급은 구원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다음에 믿음과 상급을 다룬다.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상급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런데 상급에서 '오직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칭의와 상급을 다룬다. 천국상급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그의 의를 힘입은 결과에 대한 차등 상급이 주어짐을 다룬다.

다음으로 성화와 상급을 다룬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증생되고 믿음으로 칭의받은 신자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 성화의 열매로 선행이 이루어지며 여기에 상급이 주어진다. 따라서 성화와 상급도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선행과 상급을 다룬다. 인간의 선행은 도덕적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화시켜주시는 결과에 대한 열매인 것이다. 이 선행에 대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6장의 1절에서는 천국상급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을 한다. 상급은 그의 신부된 교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각자의 은사에 따라 상급을 나누어 주시지만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충성의 결과에 따라

상급을 나누어주실 것이다.

2절에서는 천국 상급에 대한 종말론적 고찰을 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때 불신자들은 형벌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은 상급심판을 받게 된다.

제 7 장에서는 천국상급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다룬다. 천국상급은 신자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데 이 신자의 선행의 기준이 기독교 윤리인 것이다.

1절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다룬다.

2절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목적을 다룬다.

3절에서는 기독교 윤리와 선행을 다룬다.

4절에서는 기독교 윤리의 내용과 상급을 다룬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부모공경, 부부윤리, 사회윤리, 생명윤리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제 8 장에서는 천국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룬다.

1절에서는 상급의 수여자와 수혜자를 분명히 함으로 상급의 이해를 바로 할 수 있게 한다.

2절에서는 상급의 원리를 다룬다. 상급은 충성한 결과에 따라 주신다는 면에서 대응성의 원리가 있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은혜성 원리가 있음을 밝힌다. 상급이 인간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해서 인간이 이를 주장할만한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상급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의 행위만이 상급을 받는다는 면에서 경건의 원리를 다룬다.

3절에서는 상급의 동기와 목적을 다룬다.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을 비판하고 상급을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분주의 신앙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또 상급의 목적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제 9 장에서는 상급의 등급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1절에서는 상급의 구체적 차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2절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차등 상급의 내용을 다룰 것이다.

결론에 가서 천국 상급에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신, 구약 성경을 최고의 참고서로 채택하여 개혁 주의적 성경 해석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이다. 나아가 성경 계시의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통일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다. 계시 이해에 있어서 종합적 구성주의 방식에 의해 성경계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다.⁹⁾ 개혁신학은 성경계시에 바탕을 두고 믿음으로 신학하는 것이지 그 시대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자연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¹⁰⁾

또한 상급에 대한 다양한 신학자들의 입장들을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밝히게 될 것이다.

제 1 장 상급에 대한 성경적 고찰

이 장에서는 상급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상급에 대한 성경적 용어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성경의 상급 사상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 상급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맥을 이루고 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에 힘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성화와 선행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

9) 서철원, 『신학서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101-102.

10) *Ibid.*, 13-30.

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화와 선행에 힘써야 한다.

제 1 절 구약에 나타난 상급

구약에 나타난 상급을 살피기 위해 먼저 구약의 상급용어를 살펴보자. 구약에 상급을 나타내는 용어는 '사칼'과 '계물' 등이 있다.

1. 구약의 상급용어

1) 사칼(rk'c)

사칼은 (rk'c; 고용하다)에서 유래했으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며(28회) 주로 샅(hire), 임금(wages), 보상(rewards)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¹¹⁾ 그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1) '샅, 임금'

'사칼'은 먼저 일꾼이 일한 품삯을 의미한다.

창 30:28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창 30: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11) P. C. Böttger, "rk'c"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3, ed. Collin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138. (이하 NID 라고 함)

12) *Ibid.*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값**이 되리이다

창 30: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값**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
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출 2: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
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신 15:18

그가 육년 동안에 **품군의 값**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
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24:15

그 **품값**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값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속 8:10

그 날 전에는 사람도 **값**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값**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
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못 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어
니와

말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
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의 값**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였느니라.

‘사칼’은 또한 군병들의 급료를 말하기도 한다.

겔 29:18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각 머

리털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겔 29:19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되리라.

(2) '보수', '보상', '상급'

사칼은 또한 '보수', '보상', '상급'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며(창 15:1), 레아는 잇사갈을 생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급**으로 주었다고 했다(창 30:18). 또 회막에서 일하는 자는 '**보수**'를 받았다(민 18:31; 렘 31:16; 대하 15:7; 사 40:10; 사 62:11; 시 127:3; 전 4:9; 전 9:5).

(3) '통행료'

사칼은 '통행료'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낚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낚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은 1:3).

2)사칼의 파생어

'사칼'의 파생어로 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명사가 사용되고 있다.¹³⁾

(1) 세켈 (rk,c)

13) Rogers Cleon, "כס,"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 2, ed. R. Laird Harris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81), 878.

‘사칼’ 대신에 그 파생어인 ‘세켈’을 사용한 성경구절들도 있다. 선지자 이사야는 “**값**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사 19:10) 이란 문구를 사용하였고 잠언 기자는 악인의 보상은 불확실한 것인데 반하여 의를 뿌리는 자들의 **값**은 확실하다고 말하였다(잠 11:18).

(2) 마스코렛(tr,Kic]m)

마스코렛을 사용한 성경구절은 **보수**(창 29:15), **품값**(창 31:7, 14), **상**(룻 2:12)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3) 계물(lWmG)

구약에서 상급을 나타내는 명사로 사칼 다음에 많이 상요되는 명사는 ‘계물’이다. 계물은 가말(lm'G:)에서 유래했으며, ‘보상’(응), ‘보수’, ‘보답’ (recompense, reward), ‘이익’, ‘은혜’ (benefit), ‘조치’(dealing)를 의미한다.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19회 나온다. 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1)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

사 3: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사 35: 4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 59: 18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4) *Ibid.*, 166.

사 66: 6

횡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 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애 3:64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2) 인간이 갚는 복수

욥 3:4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시 137:8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3)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시 103: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말찌어다.

대하 32:25.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4) 사람이 행한 행위

삿 9: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 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잠 12: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 3: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

니라.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시라고(시 28:4; 94:2) **보복**의 하나님을 부른다(렘 51:56; 비교 신 28장).

‘계물’의 파생어로 ‘타그물’ (IWmg]T)이 있다.¹⁵⁾

이는 은혜로 번역된다. 시편 기자는 병에서 회복되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복되고 “그 **은혜**에 무엇을 보답할꼬.” 물은 후 “자기를 바치고 제물로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고 대답하였다(시 116:12). 여기서 ‘타그물’은 ‘은혜’를 의미한다.

2. 구약의 상급 사상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상급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보면 다 ‘미스도스’(μισθός)로 번역되었다. 위의 구약 명사들은 K.J.V.에서는 주로 ‘reward’로 번역되었으나 R.S.V. 나 N.I.V.에서는 ‘reward’ 외에 문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이상의 구약 명사들을 통해서 구약의 상급 개념을 살펴볼 때 주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 보상은 인간 대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물질적인 보수를 뜻한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에게 그 결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 모든 사물은 그 원인에 대해 결과가 따르는 것이고 씨를 뿌린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선행을 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형벌을 주신다(갈 6: 7-8).¹⁶⁾

15) *Ibid.*

16) *NID.* 138.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자연법칙에 부합되는 것이다.¹⁷⁾ 인간의 행위에 따라 상급과 형벌을 주시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반은 야곱에게(창 30:23,32), 바로의 딸은 유모에게 (출 2:9), 보수를 주어야 했고 6년을 일한 종에게 7년째는 놓아주되 공수로 하지 말 것을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다(신 25:12).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였다(신 28:1-6).

2)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구약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다.

인류 조상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함께 온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되었다(롬 5:12). 아담의 계보에 다 죄로 얼룩지어졌지만 아담의 칠 세손 에녹(유 14)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었다(창 5장). 또 노아시대에는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후손을 주셨던 것이다.

또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면에 흠으시고(창 11장)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창 12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그러나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의 형식으로 상급 개념이 나타나 있다(신 28장).¹⁸⁾

17) Wurthwei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 Kittel and G. Friedrich, 4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85), 706. (이하 TDNT 라고 한다.)

18) TDNT, 4, 710.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되며 험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다(수 1:7-8)

이러한 상벌 사상은 사사기에서 역대기까지의 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사사기 기자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은 여룹바알의 아들들에게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였다(삿 9:23-24).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멜렉에 대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다(삼상 15: 2-3).

시가서에서도 축복과 저주가 순종 또는 불순종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시편에서는 “복있는 자는 악인의 피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이지만 악인은 그와 반대이며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한다.”고 하였다(시편 1편).

잠언에서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와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하였다(잠 3:33). 선행에 대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다. 잠언에는 보상사상이 풍부하게 나와 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잠 11:31)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 19:17)

전도서에서 궁극적으로 선인은 잘되고 장수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전 3:11-13).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 14).

선지서에서도 기록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를 거부하시고 죄에 대해 진멸하신다고 하였다(암 1:3-2:16).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권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 악행에 대해 형벌하시고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순종에 대해 상급을 주셨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대적을 보

내서서 벌을 내리셨던 것이다.

이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내려졌다. 우상숭배를 극심하게 행한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지는 범죄와 반역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집단적인 보응과 구별하여 개별적인 상급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셨다(겔 18:2,20,21).¹⁹⁾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행위에 대해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심판을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셨다(렘 18:1). 므낫세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던 것이다(대하 33장).

이렇게 볼 때 구약 전체에 상급 신앙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이나 심판, 율법, 약속들(이 약속들은 '만일 하면' 과 같은 조건절로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은 상급 구조를 떠나서 논의 할 수 없다.

3) 구약에서 상급 개념은 또한 단순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하나님의 상급에는 인간이 수고한 가치에 대한 인간의 보상 개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 언약을 근거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²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상급'(賞給)(rk;c)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창 15:1).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다. 또 “아

19) NID., 139.

20) NID., 140.

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급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불순종하였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다시 축복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

이러한 사상은 선지서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²¹⁾ 범죄한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셨으나 회개하는 남은 백성들에게는 축복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욥기에도 상급이 단순히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갚으심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의인은 복지와 장수를 상급으로 받으며 죄에 대한 징벌로 질병과 가난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욥 4:7)하고 욥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순결을 주장하였고 자기에게 닥친 고난은 인과응보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엘리후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욥 35:7)고 대답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 상주시는 것은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 하나님께서 상을 보류하신다 하더라도 그 분을 불의 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상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온 세계가 다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욥 4:11).²²⁾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고 하였다(시 4:3). 인간이 스스로 경건하며 의로워지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주권으로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였다(시 23).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고 하였다(시 103: 10).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이며 여호

21) TDNT, 4, 708-709.

22) E.W. Hengstenberg, “욥기 해석,” 「구약신학논문집」 (1), 윤영택 옮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79), 107-108.

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다(시 73).

솔로몬의 시편에서도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지 봉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시 127:3).²³⁾

잠언에서도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되어진다고 하였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 16:1).

구약의 상급 개념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상을 잃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단순히 행위에 대한 대가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공로를 추호도 내세울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상급에 대한 자기 공로사상이나 상급 경시 사상이 분명히 배격되어짐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신약에 나타난 상급

1. 신약의 상급용어

신약에서는 상급과 관련하여 대체로 '미스도스'와 '아포디도미'가 사용된다.

1)미스도스(misqov")

(1) 헬라이어 문헌의 용법

명사 미스도스(Homer 이래)는 '일에 대한 보수', '사례금'이나 '요금'(예술가,

23) NID., 140.

과학자, 신학자, 시인, 연극자, 의사에게 지불하는 것), '봉급'(군인들), '임대료'(토지나 집세), '사례금'(사제들), '비용', '경비', '신랑의 지불금', 하나님이나 사람이 주는 '상', '형벌'을 의미한다.

(2) 70인 역본의 용법

미스도스는 70인 역본에서 약 70회 나오며, 주로 히브리어 사칼의 어근을 번역했고, '급료, 임금, 보수, 보상, 선물'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것은 70인 역에서 군인의 임금(급료; 겔 29:18)에 상응하는 용어에 사용되고 레위인의 차지할 부분(민 18:31), 그리고 제사장의 차지할 부분(미 3:11), 노동자의 임금(출 2:9; 신 15:18)에 상응하여 사용된다.

(3) 신약성경의 용법

미스도스는 신약성경에서 29회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²⁴⁾

이것은 70인 역에서 군인의 임금(급료; 겔 29:18)에 상응하는 용어에 사용되고 레위인의 차지할 부분(민 18:31), 그리고 제사장의 차지할 부분(미 3:11), 노동자의 임금(출 2:9; 신 15:18)에 상응하여 사용된다.

① 미스도스는 '일의 보수'라는 문자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눅 10:7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값**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딤후 5: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마 20:8

24) Priesker, *TDNT*, 4, 695-700.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값**을 주라 하니.

약 5:4에서 인격화 된 품값을 언급한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값**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행 1:18

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벧후 2: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좃는도다. 그는 불의의 **값**을 사랑하다가.

벧후 2: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유 1:11

화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값**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좃아 멸망을 받았도다.

미스도스와 관련하여 노동자가 받을 그의 임금(눅 10:7, 딤후 5:18) 가치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었다.²⁵⁾

막 1:20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값**군(미스도토스, *misqwtov*)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눅 15: 17

25) Priesker, *TDNT*, 4, 698. 신약성경은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hold back) 착취자들을 강하게 비난한다(약 5:4). 죄를 통해 얻어진 물건(goods)은 부정의 상급(reward of unrighteousness)을 말한다(눅 16:9; 행1:18; 벧후 2: 13,15; 유 11),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의 물질적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다(벧후 2:3, 딤후 1:11).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mivsqio)**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눅 15: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mivsqio)**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② 미스도스는 '보답, 보상, 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 사용되었다.

①a 계 22:12에서 보상과 형벌, 양자 모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①b 선한 행위와 노력에 대해 하나님이 수여하시거나 하실 보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 5: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 6: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 6: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5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10: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 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막 9:41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눅 6: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눅 6: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고전 3:8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전 3: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전 9:17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찌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요이 1:8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계 11: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㉔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열매에 대해 사용되었다

요 4:36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전 9: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㉕ 미스도스는 '행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벧후 2: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4) 미스도스의 신학적 의미

미스도스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예수님의 설교에서 자주 등장한다(마 6:1; 19:21; 막 10:21; 눅 18:22). 예수님은 이러한 설교들과 천국 비유에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강조하셨다(마 10:42; 막 9:41).

선교사역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다(요 4:36; 고전 9:18-27).

그러나 아무도 자기의 수고한 상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셨다. 이는 상급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마 20:1-16; 25:24; 눅 17:10; 19:17,19).²⁶⁾

바울서신에서도 상급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을 배격하고 올바른 상급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고(롬 2:6; 고후 5:10),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사람이 받는 상(고전 9:24; 빌 3:14)을 말씀하시고 공력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전 3:14)고 말씀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줄 의무가 없고 단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롬 4:4; 6:23; 고전 9:16,17).²⁷⁾

히브리서에서는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상급을 향한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있다(히 10:2,35; 11:6).²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약속된 상급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하였다(히 10:35-39).

2) 아포디도미(αποδιδομι)

이 말은 주로 원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주는 단어로서 구약에서는 씨 뿌린 이후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행함에 따라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슈브 동사).

(1) 아포디도미의 용법

구약 슈브에 해당하는 동사로 신약에서는 아포디도미가 43회 사용되었다. 그

26) NID 141.

27) *Ibid.*, 142.

28) *Ibid.*, 143.

중 마태복음에서 18회, 누가복음에서 12회, 바울서신에서 8회가 사용되고 있다.²⁹⁾ 그 용법으로 넘겨주다(give away; 마 27:58), 돌려주다(give back; 눅 4:20), 팔다(행 5:8), 샅을 주다(마 20:8), 빛을 갚다(마 18:23), 맹세한 것을 지키다(마 5:33), 용서하다의 뜻이 있다.

(2) 최종심판과 관련됨.

신약에서 신학적으로 아포디토미는 최종 심판에서 갚아주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모든 사람은 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롬 2:6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는 마 25: 31-46 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주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최종 심판 때에 상을 주신다는 것이다(마 25:40).

신학적으로 아포디토미는 신약에서 장차 다가올 심판 및 징벌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눅 14:12; 롬 11:9; 골 3:24).³⁰⁾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선포했으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설교하셨다. 갚음에 관한 신약성경의 개념은 막 8:38과 같은 구절에서 가장 잘 예증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눅 9:26). 구약에서

29) *Ibid.*, 135.

30) *Ibid.*, 143.

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주님(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 사람의 태도, 그를 향한 우리의 충실함이다. 이것이 마 25:31-46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궁극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들의 행위이다. 이 태도는 또한 그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동일하게 요한은 심판 때에 인정을 받게 될 일을 믿음과 동일시하고 있다(요 6:29). 반대로 단지 믿지 않는 것 자체를 죄라고 묘사한다(요 16:9 참조: 요 12:48). 그러므로 깊음이란 개개인들의 업적을 타인과 비교하여 낱낱이 세어보거나 무게를 달아보는 것과 같은 문제가 아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말에 대하여 진실한가 아닌가, 우리가 그를 고백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이다. 이는 히 10:30에서 입증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시 32:35).

이것은 아포디도미의 용례에 대한 배경을 알려준다. 인간은 그가 기독교인이든 지 혹은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하늘의 심판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롬 2:6 참조: 고전 3:13이하; 고후 5:10). 아포디도미는(마 16:27; 롬 2:6; 딤후 4:14; 계 22:12) 인간의 업적 그 자체에 있는 어떤 본래의 도덕적인 가치를 근거로 인간의 행한 일들을 평가한다는 뜻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아포디도미가 행한 일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언급된 곳에서도 마찬가지다. 행한 일이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반대의 표현, 아니면 동의와 믿음의 표현이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드러난다. 계 20:11-15에 보면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펼쳐져 있는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계 20:12). 믿는 자들은 형벌 심판은 면제받는다. 그들에게 보상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다(참조: 골 3:24). 보상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현재의 세대 안에서 그들 자신이 지닌 원한을 풀려 해서는 안 된다(롬 12:17; 살전 5:15; 벧전 3:9).³¹⁾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져야한다(롬 2:6; 고전 3:13; 고후

31) *Ibid.*, 138.

5:10). 각 사람은 최종심판에서 자기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것이다(마 16:27; 롬 2:6; 딤후 4:14; 계 20:11-15; 22:12).³²⁾ 대부분 이 말은 미래형으로 사용되어 미래에 있을 일의 가능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 상은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마20:1-12; 골 3:24).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롬12:17; 살전 5:15; 벧전 3:9).³³⁾

(3) 아포디도미의 파생어

아포디도미의 파생어 안타포디도미(ανταποδιδώμι)는 성경에서 7번 사용되고 있는데(바울서신에서 4번, 누가복음에서 2번 사용되었음) 주로 주어진 것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안타포디도미(ανταποδιδώμι)의 명사형은 안타포도시스(ajntapovdosi")로서 이는 되갚음 (repaying), 보수(reward), 보상(recompense)을 의미한다. 접두사 안티는 보상의 개념을 강화한다. 이 단어는 70인 역본에서 16여회 나오며, 보답하는 것, 삿 9:16 복수나 원수를 갚는 것(삿 16:28 사 34:8)에 대해 사용되었다.³⁴⁾

안타포도시스는 신약성경에서 골 3:24에 한번 하나님의 최종적인 보상을 의미한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3) 브라베이온(brabei'on, 상 prize.)

(1) 고전 헬라이어 문헌의 용법

명사 '브라베이온'(Homer 이래)은 운동 경기에서 유래한 전문술어로 브라부스

32) *Ibid.*

33) *Ibid.*, 136.

34) *Ibid.*, 135.

(brabeuv": 심판자)에서 유래했으며, '경쟁에서의 상'을 의미한다. 후에 이 말은 생의 투쟁으로 인한 혼란의 사상과 관계되었으며, 생의 사역의 완성과 절정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70인 역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2) 신약성경의 용법

'브라베이온'은 신약성경에서 2회, 곧 바울서신에만 나온다. 텔리취의 히브리어 신약성경은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브라베이온'을 모두 보상(recompence), 승리의 보상(reward of victory)으로 번역한다.³⁵⁾

고전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빌 3: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2. 신약의 상급사상

신약에서 상급을 나타내는 단어에도 구약에서와 같이 일한 자에 대한 품삯의 의미가 들어있다. 여기서 일한 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사회질서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1) 복음서에 나타난 상급사상

복음서에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상급사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마 10:41; 막 9:41; 눅 6:35). 이 보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물질

35) Stauffer, *TDNT*, 1, 637-639.

적, 비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여 의인에게 심판 때 주어지는 선물이다. 사람이 행한 것과 그가 언젠가는 받을 것 사이에 파기 할 수 없는 상호상관이 있음을 보게 된다(마 12: 36-37; 24:45; 25:14-46).

예수님께서 친히 의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으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마 5:12).

예수님께서서는 의(구제, 기도, 금식 등)를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을 하지 않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도 천부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마6: 4, 6, 15).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비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다(요 5:44).³⁶⁾

또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도 역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10: 41-42).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을 주신다는 것이다.

상급은 또한 사람의 기준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 바리새인의 경건과 열심은 사람을 기준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마 6:2,5,16).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마 25:40,45; 10:42). 이 상급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마 10:32),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다(막 8:36; 10:30).

마 16:27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금세에 있어 백배를 주시고 내세에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막10:30; 마 19:29; 눅 18:30).

복음서에서 상급개념은 죄 사함과 구원받은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상급의 차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36) D. 거쓰리, 이중수역, 『신약신학』 (서울: 성서 유니온, 1993), 107.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³⁷⁾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인 마태복음의 열 처녀 비유(마 25:1-13)와 달란트 비유(마 25: 14-30)와 양과 염소비유(마 25:31-46)는 다 천국의 차등 상급을 계시하기 위한 말씀이다.

또 누가복음의 청지기 비유(눅 16:1-13), 므나 비유(눅 19:11-27)도 차등 상급을 계시해준다.

그러나 이 상급개념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볼 수 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 한 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은 품꾼의 일한 결과와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품삯을 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성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눅 17:10)라고 대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차적인 것으로 말씀하심으로 유대인의 상급개념을 깨뜨리셨던 것이다.

복음서에는 상급에 대한 종말론적 성격도 나타내주고 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요 4:36-38).(비교 레 26:5; 신 28:33; 삿 6:3; 시 126:5; 암 9:13; 미 6:15; 마 9:37; 눅 10:1).

여기서 품삯을 받는 시기는 종말론적 시간을 의미한다.

2) 바울서신에서의 상급사상

사도바울은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신자가 받는 칭의를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행위에 대한 상급도 강조하였다(롬 2:6; 고전 5:10). 그는 유대주의의 공로사상을 칭의의 교리로 대체하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37) H. 리텔보스, 오광만 역, 『하나님의 나라』 (서울: 엠마오, 1996), 297.

에서 칭찬과(롬 2:29) 영광(롬 2:7)을 받고 부름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강조한 것이다(빌 3:14).

예수님이나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로마인들이 부르는 '프리미엄'(상이나 선물)을 말하는 것이지 '프리티엄'(물건의 가격이나 가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의 삯으로 사망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롬 6:23). 하나님은 이 상급을 우리에게 빚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다(롬 4:4). 따라서 칭의의 교리는 상급을 이해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공로가 되지 않음은 바울이 말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16).

그렇다고 상급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지는 않다. 바울은 상급을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것과(고전 9:24; 빌 3:14) 지혜로운 건축자에게 돌아가는 상(고전 3:14)으로 묘사하였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상급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바울은 고전 9:27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하였다(27절). 여기서 형용사 아도키모스(**ajdovkimo**)는 부정 접두사 **a** 와 도키모스(**dovkimo**)에서 유래했으며, 도키모스의 반대어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공인되지 않은' 뜻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것이다.³⁸⁾ 형용사 아도키모스는 신약성경에서 처음부터 부당하게 보이는 것이란 의미에서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 즉 가짜라고 판명되어 거부된 것이란 의미에서 '가치 없는, 거절된, 거부된'이란 의미를 지닌다(롬 1:28; 고전 9:27; 고후 13:5; 딤후 3:8; 딤텔 1:16; 히 6:8).

따라서 바울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함이 아니라 상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구원의 전도자가 면류관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상급은 또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구원은 받았어도 믿음의

38) 도키모스(**dovkimo**)가 사용 가능한 동전이나 금속으로 쓸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아도키모스는 쓸 수 없거나 가치 없는 돈이나 금속을 가리킨다(잠 25:4 사 1:22).

행위가 없을 때에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하여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

3) 공동서신에 나타난 상급사상

히브리서는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하나님의 상급을 가져다주는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히10:35).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행위가 상급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상급인 것이다. 또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로 소개하였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히 11:26).

야고보서는 상급을 특히 강조한 책이다.

올바른 기도는 응답의 상급을 받고(약 1:5-8), 시험을 참는 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1:12)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다(2:26).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상급을 받는다(4:10).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칭의의 믿음에 보완이 되어 진다고 강조하고 상급 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에서도 상급교훈이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4) 계시록에 나타난 상급사상

계시록은 전체가 심판을 주제로 하는데 심판 자체가 상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행함에 대한 상벌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죄와 사탄, 세상과 그리고 육에 대한 싸움이다.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계 2:10)고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상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직접 내리시는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원수는 아무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서부터 빼앗을 수 없으며 그들의 머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련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 지상 낙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거룩함과 행복된 생명나무와 같이 길이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계 22:1,2).³⁹⁾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그의 충성에 대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내세의 생명 뿐 아니라 영광까지 가리킨다. 순교한 자는 영화로운 생명에 이를 것이다.⁴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흰 돌을 주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계 2:17).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계 2: 26, 28).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셨다(계2:23).

39) Matthew Henry, 「요한 계시록」, 서기산 역(서울: 기독교문사, 1975), 442.

40) 박윤선, 「요한계시록」 (서울: 영음사, 1968), 75.

사데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 하리라고 약속하셨다(계 3:5).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 3: 11 - 12)하고 약속하셨다. 참고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하는 자는 상급을 놓치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약속하셨다(3: 21).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과 승리에 동참한 사람은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 보좌는 세상 끝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이며 영광의 보좌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머리되신 그 분의 신비한 몸으로 빛날 보좌이다.

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하시며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의 봉사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상급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최후의 심판에서 생명책과 함께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였다.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므로 불 못에 던지우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책들에 자기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상급심판은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가지시고 각 사람이 그 일한대로 갚으실 것을 강조함으로(22:12), 상급 교훈으로 성경을 마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급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 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과
- ②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결코 자기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 ③ 상급은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장 종교개혁 시대까지의 상급관

본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상급 교훈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여 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대주의자들의 공로사상, 헬라의 윤리적 철학적 상급개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로사상, 종교 개혁자들의 상급관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유대교의 공로사상

유대교는 그 교리의 근거를 대부분 구약성경에서 찾았다. 특히 유대교는 모세 오경을 가장 자기들의 경전으로 따르는데 모세오경의 십계명에 계명을 순종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있고 신명기에는 율법의 실천 여하에 따라 상벌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유대교의 최대 교파인 바리새인들의 신학에서 제일 중추되는 개념은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응분의 처분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의 구별이었다. 행위에는 그 행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⁴¹⁾ 그리하여 이것이 그들의 상급사상이 되었다.⁴²⁾

41) R. T. Herford, *The Pharisees* (Boston: Beacon Press, 1962), 132.

바리새인에게 특이한 것은 '공로(功勞) 사상'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쿠티(zakuth)는 구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메리트(merit)가 된다. 즉 사람이 전력을 다하여 의로운 행위를 힘써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행하는 자에게 공로가 덧붙여져 생겨지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써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 것이 된다.

이러한 사상은 유대 랍비들의 계명관 속에서도 발견된다. 유대 랍비들은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얻고 반면에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빛을 진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공로가 빛보다 많으면 의롭다고 간주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이 자력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업적 거래관계가 있고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⁴³⁾

유대교에서 공로사상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다음 이유 때문이다.

계명을 수행하는 데는 큰 희생을 치루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든지 한다. 그래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한다. 이 계명 실행의 행위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합침으로 성립한다. 공로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속하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나는 계명을 실천하므로 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선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⁴⁴⁾

바리새인들의 보상 개념은 더 나은 상태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더 나은 상태는 현세의 평화로운 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보상 개념은 현세적인 것 보다는 미래적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신약에서 말하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나 성령강림 같은 것은 없다. 그들은 보상 개념과 종말론적 기대를 결부시켰다. 이 종말론적인 기대는 심판과 부활이다.⁴⁵⁾

42) 전경연, "예수의 말씀에 나타난 응보와 보상," 「신학사상」 제5권 (1974년 5월): 263-264.

43) 권성수,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 연구(II)," 「신학지남」 통권 210호(1986년, 겨울): 33-34.

44) Herford, *The Pharisees*, 132.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미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비록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역할은 단지 인간의 수고에 대해 보상하는 정도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의인에게 상급을 수여하며 죄인에게 형벌을 주게 되는 것이다.⁴⁶⁾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토라와 많은 계명들을 주셔서 그 계명을 순종한 수고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다. 토라에서는 금생에서 계명을 지키면 미래에 좋은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의인에게는 의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이다(단 12:1). 그러나 금생에서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에 따라 이미 보응 받았다고 하였다.⁴⁷⁾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의 뜻을 순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가서 소위 ‘은혜의 보상의 관점’은 사라지고 계명을 순종한 자의 결과에 따른 공로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 공로사상은 마치 상업거래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쌓아두는 것처럼 공로를 쌓아두고 미래에 충분히 보상받는다든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이다. 물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따라 상급과 형벌이라는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고 이런 것이 의로운 행위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라고 보았다.⁴⁸⁾

이 행함의 원리에 따라 유대인들은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앞에서 자신의 행함이 통과될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공로사상은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내세울 위험 속에 있다. 사람의 눈은

45) Priesker, *TDNT*, 4, 712.

46) *Ibid.*

47) Priesker, *TDNT*, 4, 713.

48) *Ibid.*

49) Priesker, *TDNT*, 4, 714.

행위에 대한 관심으로 어둡게 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율법의 표준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휼을 구해야 하고(눅 18:13) 자신의 무가치성을 깨달아야 하며(눅 17:7-10), 율법의 완성 자이신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표준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사람들이 지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제 2 절 헬라와 로마세계에 있어서 상급개념

헬라와 로마의 세계에 있어서 윤리와 철학적 세계에서의 상급개념은 성경적인 상급 개념과 거리가 먼 단순히 선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상급으로 보았다. 그러나 종교적 세계에서는 내세의 상급을 추구하고 있다.

1. 헬라의 윤리적 철학적 세계

헬라 로마의 윤리적 철학적 세계에서는 상급을 위해 선을 행한다는 사상을 거부한다. 헬라 윤리에서는 행복이 최고의 선이며 그들의 상급이란 단지 도덕성이며 이 도덕성이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하였다.⁵⁰⁾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행복은 영혼과 육체의 조화이고, 자기 자신이 이 사실을 아는데 있다. 이 조화는 행복의 핵심에 속하며 이 세상에서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⁵¹⁾ 그는 선에 대한 지식이 도덕을 행하게 하는 참된 동기가 된다고 한다. 선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신의 강제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여겼다.⁵²⁾

플라톤도 상급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하나 이는 다만 헬라 철학의 내재적 존재

50) Priesker, *TDNT*, 4, 703.

51) *Ibid.*

52) *Ibid.*

법칙의 노선에서 언급하는 것이지 동기적 맥락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⁵³⁾ 그는 상급의 개념으로부터 도덕적 행위의 가치와 본성적으로 행하는 것을 구분하여 도덕적 행위는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 하였다.⁵⁴⁾

이 면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상급 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의 선행 자체가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이며, 인간이 선행을 통하여 도덕적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선행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하는데 이 지식에 의하여 선행이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한 내재적인 욕구로 인해 이성이 자극받아 영혼을 덕으로 이끈다고 믿는다.⁵⁵⁾

호머와 같은 작가들도 이를 지지하였다. 올바른 왕은 땅의 풍요로움과 백성의 번영과 함께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신실한 사람들은 훌륭한 자손을 낳는다(호머 오딧세이., 19, 109-114).⁵⁶⁾

신들은 이를 촉진시키고 지식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악한 행위는 징벌을 받고 선행은 땅에서 정직과 의로움의 상급을 받는다. 행복한 사람은 선한 생각(정직과 의로움)을 가짐으로써 높은 수준의 진리와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 시간에서 받는 상급의 개념은 미래의 상급이나 형벌에 대한 신앙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진정한 선은 그 자체만 위해 추구된다. 행복은 도덕의 실천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오직 선행은 그 자체로써 상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⁵⁷⁾

53) 플라톤은 당시 밀의 종교들에서 말하는 미래의 삶과 상급을 거부한다. 밀의 종교는 영원한 구원의 제의에 참여함으로써 상급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았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구원은 농업의 신인 어머니(Demeter)와 딸의 신비스러운 희생의 제의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했다. 또 이들은 초기에는 오르푸스의 정의에 대한 상급과 사악한 행위에 대한 징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오르푸스 집단에서는 하나의 시험으로써 금욕 생활이 요구되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제의에 참여함으로써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고통이 주어지는데, 오직 최후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고통이 결정된다고 믿었다. *Ibid.*, 704-705.

54) *Ibid.*, 703-704.

55) *Ibid.*, 704.

56) *Ibid.*

스토아주의에서는 도덕성은 우주법칙으로서 신에 대한 순종이다. 편재하시는 신은 모든 것을 보시지만 행복은 덕 안에 존재하며 덕과 악덕 이외의 상급이나 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이 도덕에 의해 존재하기에 도덕적으로 향상된 생활이 행복으로 이끈다고 한다. 죄에 대한 징벌과 선에 대한 상급은 도덕과 죄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도덕과 죄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유일한 상급이 이 세상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며 그 외의 상급은 없다고 본다.⁵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 도덕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도덕성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헬레니즘과 로마의 종교에서의 상급개념

헬레니즘의 종교들에서는 미래에 대한 상급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집트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 크나큰 관심을 보였다.⁵⁹⁾ 선행이 많았느냐 악행이 많았느냐에 따라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 선행보다 악행이 많은 사람은 지하세계에 삼킨바 되어 육체와 영혼이 괴멸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며, 악을 행한 행위보다도 선을 행한 행위가 더 많으면 그 영혼은 지하세계의 거룩한 심판관에 의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상급은 미래의 영원한 삶이 되는 것이다. 미래에 영혼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선행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한편 로마종교에서는 신들과 인간 사이에 계약적 관계를 많이 담고 있으며 희생의 의미에서 상급의 개념을 이끌어 낸다. 신들의 도우심에 대한 보답으로써 맹세와 제의가 행해진다. 제의(祭儀)를 드릴 때 예배자들은 신에게 자기들이 드린 선물을 상기시키면서 그 대가로 자기들이 소원이 상달되기를 기대한다. 기도가 허락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선행에 대한 상급이기도 한 것이다.⁶⁰⁾

57) *Ibid.*

58) *Ibid.*

59) *Ibid.* 705.

60) *Ibid.*

헬라 로마의 세계에 있어서 또 다른 상급은 죽음에 대한 것이다. 고대에서 신에 의한 최고의 인정은 신에게로 들림 받는 것인데 일찍 죽는 것이 하나의 상급으로 여겨졌다. 죽음은 또한 신비적 환상을 통한 신격화를 수반할 수도 있는데 신비적 환상은 하늘 여행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라는 외적인 의복을 입어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 육체라는 의복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면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죽음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으로 찬양되기도 했던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육신의 세계를 사랑하는 자이며, 육신의 세계에 속하게 되면 감각의 세계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상과 같이 헬라, 로마 세계에 있어서 상급개념은 이 땅에서 최고의 선으로 행복이 하나의 상급이 되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영혼들의 축복스러운 삶을 상급으로 기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든지, 미래의 영혼의 축복 된 삶이든지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선행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 인간의 선행에는 도덕적 행위와 신의 제위에 참여하는 것과 신과의 계약을 지키는 것이 다 포함된다.

결국 이들의 상급개념은 철저한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한 유토피아 건설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선행 자체가 동원되기도 하고 이를 위한 안내자로 지식을 제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이다.

제 3 절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功勞 思想)

로마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켜 믿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고 이 행위가 공로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공로사상을 내세움으로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의 본질을 변질시켰다.

그들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재능은 그리스도의 연고로 죄인의 마음에 침입된 은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후에는 그 선행이 공로 즉 구원과 영광의 정당한 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즉 세례를 받을 때 죄책과 오염의 모든 죄성을 영혼으로부터 제거해주므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하는 행위들은 완전하며 이렇게 갱신된 사람은 능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할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 이상을 더 행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자들은 자기들의 구원에 필요한 것보다 많은 여분의 행위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이익에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은 당위 공로(meritum de condigno)와 가당 공로(meritum de congruo)로 구분된다.⁶¹⁾ 당위공로라는 것은 사람이 중생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 행해진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만한 가치를 내재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당 공로는 사람이 중생 전에 단순히 준비적 은혜의 효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행위자의 마음에 은혜를 침입시킴으로 상주시기에 가당(可當)한 공로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인간이 구원 얻는 공로는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보탠 것이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교리와 현저히 다르다. 개혁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가 칭의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하였다(갈 2:21).⁶²⁾ 그들은 또한 공로를 '다른 사람을 위한 업적'으로 말하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얻는다고 보았다. 즉 사람이 행위에 의해 공로를 얻는다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동일시하는 사상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에게 빛을 지시는 결과가 된다.⁶³⁾

이렇게 로마 교회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가진다는 공로 사상을 주장하며 이를 트렌트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공로사상과 관련하여 칭의 교리를 담은 트렌트 회의⁶⁴⁾(6차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교서를 보면 다음과 같

61) L. Berkhof, 「벌콕 조직신학」, 265 - 266.

62)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서울: 영음사, 2003), 347.

63)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서울: 한국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8), 377.

64) 트렌트 회의는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도 개신교의 신앙의인에 대해서 동요하고 있던 시기에, 카톨릭의 교리를 재천명한 회의로 1545년에서 1563년까지 18년 동안 25회기에 걸쳐서 열렸다. 트렌트 회의는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도 개신교의 신앙의인에 대해서 동요하고 있던 시기에, 카톨릭의 교리를 재천명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신학을 주도했던 신학자들은 예수회 학자들인 라이네즈와 살레론이었다. 제 4 회기에서 성경과 성문화 되지 않은 전승을 동등하게 인정했다. 전승을 예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다.⁶⁵⁾

1. 칭의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간의 상태에서 은총의 상태로의 이전이다.

구원의 순서는 성인들의 경우에 선행적 은총(소명과 도와주는 은총)으로 시작한다. 그 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칭의를 위한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한편으로 칭의에 선행하는 협력이 있으며, 칭의에 앞선 행위들이 죄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인정이 존재한다.

소명이 공로가 실재하기 이전에 임하는 것을 가치 있는 공로(meritum de congruo)라 한다. 은총에 의해 발생한 칭의를 위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을 채택한다. 들음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자들은 약속된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화를 누그러뜨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그 때 의의 원천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되며, 죄를 증오하며 거스르게 되며 이것은 새로운 생활로 인도해 주는 결단을 가지게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다. 제 5 회기 원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파괴되지 않고 약화되었다고 보았다. 제 6 회기 Justification에서 협동설을 주장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인간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인간이 거부할 수 있었다. 제 7 장에서 의인과 성화를 동일시하고 있다. 의인은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총과 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내적 인간이 성화되고 갱생되는 것으로 보았다. 제 14장에서는 고해성사(참회, 고해, 사죄선언, 보상)를 인정했다. 제 7 회기 7 성례를 인정했다. 인효론을 부정했다. 심지어 이단이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도 인정했다. 제 13 회기 화체설을 인정했다. 제 23 회기 제 2 장에서 7성직과 인정했고, 제 4 장에서 만인 사제설을 부정했다. 제 25 회기 Indulgence의 오용에 대해서 비판했다.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지나친 편법이 되어서 교회의 규율이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65)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Chap. XVI, Canon. XVI*

한다. 따라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의 혐오에 대한 시작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는 결의 등은 은총의 실제적인 주입이 있기 전에 발생하는 것들이다.⁶⁶⁾

2. 칭의는 세례를 통하여 발생하는 속사람의 중생에 있다.

칭의를 통하여 신앙, 소망 및 사랑이 죄 사함과 같이 동시에 인간에게 전달된다. 트레نت 공의회 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per fidem)라는 용어가 신앙이 '모든 칭의의 기반과 뿌리'가 될 뿐이며, 그리고 '무상으로'라는 용어로 칭의에 앞선 신앙과 행위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공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행위들이 없이' (sine operibus)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거기에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가 교묘하게 회피 되고 있다. 죄는 은총을 통하여 용서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죄사함의 확실성을 자만하거나 그것만을 신뢰한다면 그의 죄들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들의 칭의를 확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성례들의 효력에 관하여 어떤 의심들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허약에 비추어 '주님의 은총'에 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질 '수도'(may) 있을 것이다.

3. 말씀은 은총의 일반적인 준비와 영향을 수반하는데 그것이 심리학적 방법으로 신앙과 선에 대한 추구심을 발생시킨다.

4. 선을 추구하는 능력(신앙, 소망 및 사랑)은 세례를 통하여 인간에게 주입된다.

이 때 인간은 죄사함과 함께 은총의 전달로써 칭의를 받게 된다.

5. 칭의와 은사는 계명들의 순종과 선행을 통하여 보존된다.

66) R. Seeberg, 『기독교 교리사(중. 근세편)』, 김영배 옮김(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598-601.

트렌트 회의는 칭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로서 순간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vid. Thomas, supra, p. 121)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하여 받게 된 칭의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교회의 규례들의 순종, 선행들에 의해 협력하는 신앙 등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며 더욱 의롭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의롭게 된 인간이 순종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소죄(小罪)를 범한다면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롭지 못하게 되거나 칭의를 받지 못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은 노동, 철야, 자선, 기도와 봉헌 및 금식과 금욕 등에서 그들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취하려고 한다. 그들은 아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위해 중생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 생활은 이 공로 사상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누구든 출교를 당하게 된다(can. 26). 칭의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신자들 속에 발생되며 고유한 의의 부산물로서 신자들이 이룬 선행들도 공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칭의를 받은 사람의 선행들'은 또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공로들'이 되며, 영생에 이르는 공로가 된다는 것이다(can. 32).

6. 칭의의 은총은 불신앙에 의해서 뿐 아니라 어떤 대죄(大罪)에 의해서도 상실될 수가 있다.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들도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다(can. 29). 그러나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증에 있어서 통회할 뿐만 아니라 고백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사면과 보속의 행위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범죄는 물론 영원한 형벌들까지도 사면에 의해 제거가 된다. 그러나 일시적 형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속의 행위들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칭의의 실제적인 체험은 고해성사의 한계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된다는 이러한 로마교회의 공로사상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불충분하다는 가정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제사가 되셨고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결코 공로로 작용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결코 일해서 얻는 계약상의 청구권이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사랑할 수도 무엇을 바랄수도 없음을 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바란다면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서도 이 우물이 내 것이라고 우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리는 또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할 수 있으며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성경과 신자들의 경험에 배치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결코 공로로 작용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들의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것이다(눅 17:9,10; 롬 5:15-18; 6:23; 엡 2:8-10; 딤후 1:9; 딤텔 3:5). 벌코프는 신자의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음에 대한 다음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⁶⁷⁾

1. 신자들은 그들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써 공로를 세울 수 없다(눅 17:9,10).
2. 신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선행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힘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들은 이 행위들에 대해서 공적(credit)을 기대할 수 없다(빌 2:13).
3. 신자들은 가장 훌륭한 행위라도 현세에서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또한 모든 선행들이 단지 부분적인 순종을 표현할지라도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그 어떤 것도 만족될 수 없다(사 64:6; 약 3:2).
4. 더욱이 신자들의 선행은 영광의 영원한 보상과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 시간적이고 불완전한 순종은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에 대한 공로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선행은 결코 공로적이 되지 못하며 인간이 선행을 하였다고 상급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결코 일해서 얻는 계약상의 청구

67) L.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 266 - 267.

권이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 4 절 종교개혁자들의 상급관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에 반대하여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슬로건을 걸고 교회를 개혁한 개혁운동이다. 이 개혁운동으로 오늘날 개신교가 세워지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가 개혁교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이 인간의 선행이 보상을 받을 공로가 된다고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본질을 왜곡시킴에 반대하여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개혁자들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인간의 선행과 이에 대한 상급교훈이 다소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혁자들 중에도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함으로 상급교훈이 경시되었지만 칼빈은 성화를 강조함으로 선행과 상급교훈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칼빈도 카톨릭의 공로사상을 경계하다보니 상급이 공로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진술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함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교훈을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1. 루터의 견해⁶⁸⁾

68)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1505년 엄격한 금욕적인 훈련을 쌓은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 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어거스틴 파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1510년 루터는 로마를 방문 죄 문제를 해결을 기대하고 라테란 성당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기도하였지만 사죄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는 진리를 발견하였다. 루터는 1517년 면죄부의 해약을 설교하고 ‘95개조 항의문’을 10월 31일 정오경에 비텐베르그 성곽 교회 앞에 게시하였다. 그는 내세를 결정하는 것과 사죄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교황에게 내세권과 사죄권과 연옥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로마 천주교회의 주장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을 비판하였다. 로마 천주교회는 미사, 견진, 종부, 결혼, 고해, 성찬(성체), 세례 등 일곱 가지의 거룩한 의식을 가르쳤으며, 이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연옥의 형기가 단축된다고 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주장을 일축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다.⁶⁹⁾

루터는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그 열매로 선행을 수반하며 선행을 하였다고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1520년 5월에 저술한 「선행론」(Treatise of Good Works)에서 믿음과 선행의 관계,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로마 천주교회와 성경적인 기독교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⁷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최고의 선행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Sola Fide)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초로서, 로마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공로 사상은 비성경적이며, 비 신앙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선행을 좁은 의미로 규정하여 오직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금식과 자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이들을 비난하고,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 즉 장사 등을 포함한 모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고 하였다.

그는 “신앙은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며 자진해서 기쁨으로 실행하게 해 준다. 신앙은 선행들을 행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루터는 신자의 선행은 신앙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경우는 무죄하고 선하다고 하였다. 이는 전가된 의로 행위들을 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성령이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살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갈망하고 사랑하게 되며 실행하기 시작하며 그러므로 영생이 지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선은 성령의 법에 성령의 법으로서 살아있는 의지와 체험적인 생활로 심령에 새겨진다고 하였다. 신앙의 힘은 선을 실행하는 데서 표현된다는 것이다. 산 사람이 먹고 마시고 행할 무슨 일을 발견하는 일을 억제할 수 없고

69) Peter To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Westchester: A Division of Good News Publications, 1983), 61-62.

70) Luther, *Treatise of Good Works*, 1520.

실행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선행을 위하여 다음 말 외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앙은 반드시 선행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⁷¹⁾

그가 선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우리 내부의 천국은 어떤 공로를 추구하는 것이 없이도 선행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촉구하며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사랑을 답례로 우리 형제들에게 실천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련들 속에서 루터는 행위들이 신앙의 현존을 입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행위들이 인간을 경건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이다. 인간은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선행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성(becoming)에 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행위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들만이 신앙을 통하여 선한 사람이 된 사람에 의해 선행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신앙에서 발생하는 성령에서 발생하든 간에 그들이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 행위들이 신앙의 자유 안에서 실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율법에 의하여 부과된 실제적 도덕적 행위들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율법의 행위들을 명령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을 가지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성령은 중생으로 시작하여 신앙을 발생시킨다. 이 수단에 의해 인간은 실제로 선하게 된다. 신앙은 새롭고 경건한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 신앙 → 성화 → 선행 이라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신앙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는

71) Reinhold Seeberg, 「기독교리사」. 357.

것이다. 루터는 칭의와 성화 사이를 구분은 하였지만 분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루터는 신앙을 강조하여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을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한편으로 율법의 행위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⁷²⁾

그는 만일 우리가 선행(선행)없이 오직 믿음만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거나 그 분께 인정을 받는다면 신자는 결과에 대한 염려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⁷³⁾

루터의 이러한 생각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을 비판하고 신앙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의 신앙이 있으면 성화나 선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물론 신앙에 의해 성화나 선행이 수행되지만 여기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칭의와 성화를

72) 그렇다고 루터가 성화와 선행의 영역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그의 로마서 주석이나 갈라디아서 주석 등에서 성화의 삶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며 루터교 역사 속에서도 1577년에 작성되었고 1580년 이후에 루터교 목사들의 표준 문서가 된 Book of Concord의 내용 중 제 20항 선행에 대한 항목에서 “신자는 선행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루터의 성향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성화와 선행을 무시하는 경향과 강조하는 두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성화를 무시하는 경향은 모라비안교를 예를 들 수 있다. 모라비안교는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 이신칭의의 교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여 다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기도와 말씀 성례와 같은 것들도 그것이 인간 편에서의 행위로만 간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거부하려는 정적주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정적주의(quietism)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올 때까지 신자는 고요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율법폐기론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편들을 쓰는 것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모라비안교의 대표되는 학자가 Gehard O. Forde이다. Forde는 무조건적인 은총의 결과로서의 성화를 강조하였다. 성화는 칭의와 구별되어지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루터교의 이신칭의의 지나친 강조는 성화의 정당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루터교가 이신칭의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루터의 후계자인 멜랑히톤은 성화와 선행을 강조하여 신인협력적 논쟁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경건주의자 안트(Arndt) 같은 사람도 칭의와 성화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김광열,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99-108.

73) Tony Lane, 「기독교 사상사」, 김응국 옮김 (서울: 나침반사, 1987), 262.

모든 은총의 논리 속에서 이해하려는 루터의 노력은 옳은 것이나 그렇다고 복음의 은총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의 정당한 삶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⁷⁴⁾ 루터와 루터교의 성화관은 칼빈이 주장한 율법의 제 3의 기능인 성화의 기능을 간과한 것이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인도하는 성화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공로사상을 배제한 것은 좋으나 신앙의 행위와 그에 따른 상급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칼빈⁷⁵⁾의 견해

1) 성화를 강조한 신학

루터가 이신 칭의(以信稱義) 교리를 강조한 데 비해 칼빈은 칭의의 교리와 동시에 성화의 교리를 강조하였다. 그는 칭의와 성화는 사실상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하나님은 의의 실행을 위해 자기의 은혜로 의인으로 간주하신 사람들을 실제로 갱신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칭의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였고 “당신이 성화의

74) 김광열, 『구원과 성화』, 105-106.

75) 이천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통 신학은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고 할 것이다. 칼빈(1509-1564)은 종교개혁의 창시자는 아니었으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칼빈 없이 역사적인 일화로 머물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서구 유럽의 칼빈주의를 통해 반 종교 개혁의 반격이 무너져 내리고 개신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만큼 교회와 삶, 신학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신학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모체가 되었던 것이다. 칼빈은 자신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루터의 후계자 멜랑히톤은 1541년 열렸던 웨스회의에서 칼빈의 박식과 그의 탁월하고 명철한 신학적 통찰력을 알게 되자 칼빈을 “그 신학자(The theologian)”라고 불렀다. 이것은 ‘유일한 신학자’라는 뜻이다. 어거스틴이나 루터가 독창적 사상가로 칼빈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교회의 조직신학에 있어서 칼빈을 따를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요한 칼빈과 그의 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신학을 유럽에서는 주로 개혁주의, 영미계통에서는 칼빈주의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42.

참여자가 아니면 당신은 그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들이 없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와의 친교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⁷⁶⁾

2) 선행에 대한 상 주심을 강조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 부르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증거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강요 제 3권 18장에서 보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간은 자기의 선행에 대한 공로를 주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였다. 다음 칼빈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마16:27)하는 말씀을 고찰하겠다. “우리가 다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고후 5: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롬2:10).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잠 13:13).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눅 6:23),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8).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대로 보응하시되”(롬 2:6), 그러므로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요 6:27)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는 말씀이 첨가됨으로 ‘일한다’는 말이 은혜와 반대되는 뜻이 아니라 노력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의 장본인이라든지 구원은 그들의 행위에서 유래한다든지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⁷⁷⁾

칼빈은 이렇게 현세의 축복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하였다.

76) John Calvin, 「기독교강요」 III,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327 - 329.(이하 *Inst.* 라 한다.)

77) *Inst.* III. 18. 2.

그는 일생을 통하여 십자가의 훈련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이 현세의 유익들을 바라거나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그들이 자기 눈을 돌릴 적마다 그들은 오직 절망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통해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한다.⁷⁸⁾ 우선 우리는 각각 자기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즉 모든 신자에게 초보를 가르치는 첫 단계이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훈련으로 그들을 연단시키시며, 그들이 현세의 유익을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신다.⁷⁹⁾ 주께서는 큰 고난 가운데도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머리를 높이 들어 먼 곳을 바라보라고 경고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을 자기 자신에게서 얻으라고 하신다.⁸⁰⁾

칼빈은 이어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강조하였다.

그들이 커다란 환난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머리를 높이 들고서 멀리 내다보며 세상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축복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는 이 축복을 ‘상급’, ‘보상’, ‘상’(마 5:12; 6:1)으로 부른다. 행위의 공로를 고려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불행과 고난과 증상과 그 밖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의 선례를 따라(고후 6:13; 히 10:35; 11:26) 영생을 일종의 ‘보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영생에서 자신의 백성을 노고로부터 안식으로, 박해로부터 번영하며 즐거운 상태로,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빈곤으로부터 부요로, 치욕으로부터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당한 모든 재앙을 변화시켜 더욱 큰 복으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인도해서 천국을 엿보게 하는 길이라고 해도 잘못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성결하게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롬 8:30).⁸¹⁾

3) 상급은 공로가 아닌 은혜로 주심을 강조

78) 존 칼빈, 『기독교강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111.

79) *Inst.* III. 18. 4.

80) *Ibid.*

81) *Inst.* III. 18. 5.

칼빈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강조하였지만 그러나 그 보상은 결코 공로가 아님을 또한 강조함으로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였다. 상급에서 은혜를 강조하였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 3권 15장에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공로 사상을 공박하면서 “공로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잘못된 말이며 위험한 말”이라고 하였다. 그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이 자기의 선한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의 행위에는 아무런 보상받을 가치가 없으며 명령받은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눅 17: 10).⁸²⁾ 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 대해서 결코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모든 목적은 우리가 교만을 억제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우리를 낮추어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털끝만치라도 행위에 공로를 돌린다면 그는 성경 전체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성경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선하심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공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자이다.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한 교만과 광포한 허영으로 충만한 것이다.⁸³⁾

만약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면 약간의 선행을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갈 5:3; 롬 3:10-18). 그것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이미 의롭다 하신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여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다.⁸⁴⁾

칼빈은 하나님이 보상해주신다고 해서 인간의 행위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님을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 보상을 종이 받는 샅이 아니라 자녀들이 받는 기업(엡 1:18)으로 설명하였다.⁸⁵⁾ 그는 “주께서

82) *Ibid.*, 555.

83) 존 칼빈, 『기독교강요』, 111.

84) *Inst.* III. 18. 4.

85) *Inst.* III. 18. 2.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만이 이 기업을 향유할 수 있으며(갈 4:30), 그렇게 되는 데는 양자로 삼으신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엡 1: 5-6)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복락을 행위의 결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데 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행위를 열거하시고 그것을 실행한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속으로 갚으시며, 하늘을 차지하라고 부르신다(마 25: 35-37).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상속권에 의해서 차지해야 한다고 첨부하신다(마 25: 34).⁸⁶⁾ 바울은 노예들에게 충실히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서 주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을 대망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보상을 "유업의 상"이라고 한다(골 3:24).⁸⁷⁾

칼빈은 이렇게 행위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그 보상은 ‘유업의 상’ 또는 ‘은혜로 주시는 상속권’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까닭에 행위를 동시에 말하는 것인가?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만 들면 이 문제는 밝혀진다. 이삭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의 자손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고 했다(창 15:5; 17:1 이하; 18:18 참조). 여러 해 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로 아들을 제단에 바칠 채비를 했다(창 22:3).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을 받았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는가? 그 명령을 받기 전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는가?⁸⁸⁾ 신자들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고려되기 전에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즉 하나님 자신의 자비 이외에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 때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셨다고 우리가 여기서 밝히는 데는 조금도 모호한 데가 없다. 그러나 행위가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신 것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86) *Ibid.*

87) *Ibid.*

88) *Ibid.*

우리를 속이거나 희롱하시는 것이 아니다.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것 혹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명상하고, 우리에게 제시된 복된 소망을 하늘에서 얻으려고 행위를 통해 노력하도록 주께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약속의 열매가 성숙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우리의 행위에 그 결실의 공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에 대해 상급을 주셨지만 사실은 행위 이전에 이미 상급을 약속해 놓은 것이다. 상급이 먼저 있고 행위가 뒤에 나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이전에(창 22:3) 먼저 그의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창 15:5; 17:1 이하; 18:18 참조).⁸⁹⁾

칼빈은 이렇게 아브라함 행위 이전에 행함에 대한 보상을 약속받았다는 면에서 상급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결코 공로가 아님을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구별해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가 약속하시는 보상을 우리가 공로로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집주인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킨다. 제 일시(오전 7시)에도 보내고 제 이시, 제 삼시(오전 9시), 심지어 제 십일시(오후 5시)에도 보낸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을 때 모두에게 같은 값을 준다(마 20:1). 이방인들을 부르심(The Call of the Gentiles)이라는 고대 저서는 암브로시우스가 쓴 것이라고 하나, 저자가 누구였든 간에 그는 이 비유를 간단하고도 바르게 해석했으므로 나 자신의 말보다 그의 말을 사용하겠다. “주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의 은혜는 하나뿐이지만 부르심은 각양각색을 밝히 보이신다. 제 십일 시에 포도원에 갔어도 온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날이 저물 때에, 즉 일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대표한다. 주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탁월성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와는 별도로 충성한 은혜를 부여하신다. 많이 수고했으나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처사를 보고 자기들이 받는 것은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⁹⁰⁾ 만일 여전히 행위에 대한 보상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보상은 영생(벧전 1:9)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그들에게 던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성경에 씌어진 바로는 우리가 하

89) *Ibid.*

90) 존 칼빈, 『기독교강요』, 373.

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의 목적은 오직 우리의 자랑을 억제하며 우리를 낮추어 거꾸러뜨리며 완전히 부수는 것이다.⁹¹⁾

칼빈은 이어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결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한 말씀을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은 면류관을 상으로 주셨을까?”라고 하면서 선행에 대한 상급과 은혜를 결부시키고 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은혜가 앞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만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 미리 부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받을 상으로 주어질 것인가? 또한 주의 자비가 우리의 행위에 있는 모든 불의를 덮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는 우리의 행위에 의를 전가하실 수 있겠는가? 그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행위에서 벌을 받아야 할 점을 일소해 버리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판정하실 수 있겠는가?⁹²⁾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상급도 없다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어거스틴이 늘 ‘영생’을 ‘은혜’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영생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⁹³⁾ 영생을 상속하도록 자비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만드실 때에, 그의 일반적 경륜을 따라 선행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경륜의 순서에는 이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 행위의 결과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롬 8:30), 앞에 온 은혜를 다음에 온 은혜의 원인으로 만드신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에는 행위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바라보게 하신다. 사도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즉 죽음은 사람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렸다는 것이다.⁹⁴⁾

91) *Inst.* III. 18. 4.

92) *Inst.* III. 18. 5.

93) *Inst.* III. 18. 5.

94) *Inst.* III. 14. 21.

여기서 칼빈은 로마서의 구원의 서정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영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선행에 따른 상급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차등 상급을 강조

칼빈은 상급을 보편 상급인 영생과 차등 상급인 영광의 차등으로 나누고 나서 신자 개별적인 차등 상급을 강조하고 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궁극적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심판에 의하여 그들의 순종과 신앙에 대하여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⁹⁵).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후 5:10; 롬 2:9-10; 요 5:29 등).⁹⁶ 그 때에 성도들은 영생을 상급으로 얻게 될 것이다. 칼빈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 심판주가 우리의 구속주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심판자는 우리들의 구세주로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들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는 정죄함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⁹⁷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들 대신에 공의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더불어 심판하는 존귀를 나누게 하기로 정하신 바로 그 분의 손으로 심판이 이루

95) 칼빈, 「칼빈 주석」, 존 칼빈성경주석 출판위원회역 (서울: 성서원, 1999), 살전 1:6-10 설교.

96) “우리가 다 반드시 ...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롬 2:9-10)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97) 칼빈, 살전 1: 6-10 설교.

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로서는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왕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실 수 없는 것이다. 머리가 자기의 지체를 흠여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⁹⁸⁾

칼빈에 의하면, 심판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질 상급은 신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영생만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개별적인 상급이 있다. 물론 이 상급도 우리들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 순서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다. 그럼에도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에 따른 각각 다른 상급들을 주신다(딤후 4:8; 단 12:3; 딤후 1:18; 마 19:29 참조).⁹⁹⁾ 칼빈은 또한 천국상급의 차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그의 강요 3권 25장 부활 장에서 신자가 받을 영광의 차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선물을 나눠주실 때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시지 않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에도 그 영광(榮光)의 정도가 똑같지 않으리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살전 2:19)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20)고 한 바울의 말이나, "너희도...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으로 그들을 장식하시리라는 것을 안 바울은, 자기의 수고에 해당하는 특별한 면류관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딤후 4:8). 그리스도께서 사도(使徒)들에게 그들의 직무가 존귀하다는 것을 가르치실 때, 그에 대한 결실은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셨다(마 19:21 참조). 다니엘서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하였다(단 12:3).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그 날에 주의 공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딤후 1:18). 이 점을 확증하는 것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의 몸의 영광을 각양각색의 선물로 나타내기 시작하시고 점점 그 영광을 더해 가시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그 영광을 완성하실 것이다.

98) *Inst.* II. 16. 18.

99) *Inst.* III. 25. 10.

이렇게 칼빈은 구원받은 신자가 천국에 다 같이 가지만 그 신자가 받을 상급은 충성한 것만큼 각각 차이가 큰 것을 말하고 있다. 열두제자에게는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고 충성한 바울은 자기의 수고에 특별한 상급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으며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하고 있다.

칼빈이 상급과 관련해 비유적으로 “은사”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흔히들 논란의 요소가 되는 자본주의적 차등 상급을 칼빈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의 완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에서 은사의 역할은 섬김과 봉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칼빈의 다음 말에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점점 그 영광을 증대시키시듯이, 하늘에서도 그 영광을 그렇게 완성시킬 것이다.¹⁰⁰⁾

칼빈은 이렇게 상급에 있어서 잘못된 공로사상을 배격하고 올바른 보상의 의미를 정립시킴으로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해 주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의 의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상급 또는 보상과 영생과 연결시키면서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다. 칼빈은 그의 강요 제 3권 18장에서 선행에 따른 상급은 곧 영생이며 천국의 유업의 상속권이라고 하였다.¹⁰¹⁾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반면에 상급은 선행의 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25장에 가서는 신자의 영광의 차등을 말하면서 개인의 차등 상급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칼빈이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의 문제점을 설명하다 보니 상급을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100) *Inst.* III. 25. 10.

101) 칼빈은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자신", "기업", "영생"을 언급하고 있다(창 15:1, 요 3:16, 엡 1:18). *Inst.* III. 18.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선행에 따라 반드시 상급을 주시며 그 상급은 인간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상급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 3 장 최근 개혁주의자들의 상급관

지금까지 천국상급에 대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상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천국상급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를 부정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왜 상급을 부정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고자 한다. 또한 천국상급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의 입장도 살펴봄으로써 천국상급에 대해 최근 개혁주의자들의 흐름을 정리하며 천국상급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 상급을 무시하는 견해와 상급을 중시하는 견해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상급 무시 견해(賞給 無視 見解)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 나타나 있는데도 개신교 신학자들이 상급교리를 무시하는 이유를 살펴보자.¹⁰²⁾

1. 상급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견해

개신교 신학자들이 천국상급을 이신득의의 사상의 각도에서 고찰하다 보니 상급과 공로사상의 차이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급 무시 경

102) 총신의 권성수 교수는 그의 논문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 교훈”에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상급교리를 무시하는 이유를 도덕적, 신학적, 역사적, 주석적인 네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Ibid.*, 28-33.

향은 칸트의 이상주의 윤리관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화란의 칸트 철학 전문가 드소퍼(A. J. de Sopper)의 말처럼 “칸트 이후에는 칸트 이전과 다른 안목으로 세계를 보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칸트는 철학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철학계에서는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은 칸트를 추종하든지 칸트를 비판함으로써 철학을 할 수는 있어도 칸트를 모르고서는 철학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¹⁰³⁾

이 칸트 철학은 도덕 철학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전 철학자들 곧 플라톤을 시작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스피노자로 이어지면서 행복이 윤리적 선행의 목적이란데 반대하여 선행은 행복이란 목적과 관계없이 단순한 의무감에서 행위를 해야 윤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⁴⁾

이러한 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덕은 덕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를 결과에 대한 상급과 관련시키면 비열한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또 그의 주장을 따르면 예수님의 상급교훈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¹⁰⁵⁾

이러한 칸트의 이상주의 윤리의 영향을 받아 개신교 신학들이 상급 교리를 꺼내기를 싫어하였다.¹⁰⁶⁾

와일더(A. M. Wilder)와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의 상급교훈을 도덕화하여 상급의 차이성을 부인하였다.¹⁰⁷⁾ 즉 예수님이 상급을 언급한 것은 교육 수준이 낮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성경에 나오는 명백한 상급교리를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해버리는 와일더의 견해는 성경의 영감성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해석이다.

103) 손봉호,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서울: 성광문화사, 1990), 39-40.

104) *Ibid.*, 116 -117. 칸트는 비록 보상을 위한 덕을 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보상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의 실천 이성비판에서 보상에 대한 보증자로서의 신의 존재를 요청하였다. 그는 영혼불멸이나 내세의 보상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였으나 보상을 바라보고 덕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상주의적 윤리관을 주장하였다.

105) I. H. Marshall, *The Challenge of the New Testament Ethics* (London: Macmillan, 1946), 201-202.

106) 권성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 교훈"(I), 28.

107) Wilder, *Eschatology and Ethics in the Teaching of Jesus* (New York: Harper & Row, 1950), 89- 90.

2.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된다는 견해

개신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신학적 이유 때문에 상급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래드(G. E. Ladd)는 예수님의 많은 교훈이 공로와 보상에 대한 교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교육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하였다. 이는 박해에 대한 보상(마 5:12), 원수를 사랑한데 대한 보상(마 5:46), 은밀한 중에 한 자선(마 6:4), 또 의를 위한 금식과 같은 것이다(마 6:18).¹⁰⁸⁾

이 예수님의 보상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보상을 공적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고용주나 고용인 또는 그의 노동을 돕는 종이나 노예와 같다는 것이다(마 20: 1-16; 24:45-51; 25:14-30). 그는 보상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에 대한 값을 철저히 지불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나(마 5:7; 10:32,41 이하; 25:29) 자기를 희생할 때 얻는 배상과 같다고 생각하였다(마 10:39; 눅 14:8-11). 따라서 이 보상은 책임을 완수하는데 대한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고(마 5:19; 18:1-4; 막 9:41; 눅 19:17,19) 징벌이기도 하다(마 10:15; 11:22, 24; 눅 12:47)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상은 공로(merit)의 윤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상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인간은 그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밖에 다른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눅 17:7 -10).

그러면서 래드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일한 대가를 무시하고 신실성에 의해서 동일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였다. 그 보상은 자체가 하늘나라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마 5:3, 10). 누구에게나 똑 같은 것이며 이는 천국 그 자체에 미리 예정되고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¹⁰⁹⁾ 그렇게 되면 차등상급은 없어지고 동등상급이 된다는 결론이 되고 만다.

108) George. E. Ladd, 「신약신학」, 이창우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0), 189-191.

109) George. E. Ladd,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0), 349-351.

래드는 고전 3:10-17 말씀의 해석에서는 차등 상급을 인정하는 듯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고전 3:14)는 말씀은 구원이나 칭의의 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구원이나 칭의는 선물이지 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으므로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을 것이다(고전 3:15). 그러면서도 래드는 이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였다.¹¹⁰⁾

헨리 포스터도 그의 고린도서 주석에서 사역자들에 대한 상급을 설명하면서 사역자들에 국한하여 차등 상급을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성공과 그 결과들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데 그들의 노고를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노고의 정도에 따라 그 노고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실성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볼로의 노고를 다 기억하시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그들에게 상급을 내려 주시는 것이다.¹¹¹⁾

일부 개혁주의자들은 천국의 차등 상급을 말하면 결국 로마 카톨릭과 같은 공로사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천국시민권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은 상급이며 그 자체를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천국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개혁교회의 기초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¹¹²⁾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차등 상급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요 35: 6-8; 롬 11:35-36).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이 되며 인간이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신자의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에 대한 상급을 강조하고 있다.

110) George. E. Ladd, 「마지막에 될 일」 (서울: 정음 출판사, 1983), 113.

111) Henry J. Foster, 「베이커주석」, 장지철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6), 177-178.

112) 김경신, “천국 시민권 자체가 상급이다”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273.

3. 상급을 공로사상으로 보는 견해

상급 무시주의자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상급의 차등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차등 상급은 무조건 공로사상으로 곡해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해석을 하여 차등 상급론을 거부한다.

총신 신대원을 나오고 선교단체 출신인 이명호牧사는 「천국에도 차등 상급이 있나」라는 책을 써서 천국의 차등 상급을 비판하고 있다.¹¹³⁾ 그는 “천국에서의 상급의 등급” 문제는 개혁신교회와 중세 카톨릭 교회 사이에 빚어진 핵심 논쟁 중 하나라 하면서 이 질문은 형태를 달리하여 오늘날 몇몇 개신교 분파들 내부에서 여전히 곡해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천국에서 차등 상급이 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성경교리의 보전에 주력해온 개혁신교회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였다.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 자체를 신인 협동론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구원 즉 천국 시민권에도 차등이 있으며 현세에서의 행위에 따라 상급에도 등급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신교회의 기초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형태를 달리하는 율법적 행위주의 내지 공로주의로 기울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떠나 민중들의 기호를 맞추는 신학이라고 하였다. 신학이 신자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짓 복음이라고까지 하였다. 교회는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천국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나 천국에서 차등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 상급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만약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정신에 어긋나는 거짓 복음이라면 저주만 있을 따름이고까지 하였다. 그는 상급 차등론이 한국교회에 만연된 것은 한 민족이 전통적으로 종교성에 몰들어 있기 때문이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종교의 혼합주의적 도전과 인과응보의 시류에 편승하여 이름만 예수님을 걸쳤지 여전히 절간과 같으며 무지몽매한 민중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

113) 이명호, 「천국에도 차등 상급이 있나」 (경기: 도서출판 대장간, 1999), 7-11.

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한 마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공로사상은 비 성경적이라는 신학에다가 상급= 공로라는 등식을 끼어 맞춤으로 상급의 은혜성을 간과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임을 단정할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충성과 헌신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있는 것을 자기 주관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된 신학적 해석을 이유로 차등 상급을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

상급은 자기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의가 공로가 되어서 결코 천국의 것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하신 것이다. 자기가 충성하였다고 하지만 자기가 받은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충성에 대한 열매도 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되어진 것이며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은혜로 된 것이므로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수고한 것이 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고전 15: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다(마 10: 42).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지 상급 = 공로라는 도식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므로 공로사상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상급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은 성경해석을 자신의 이해의 틀에 맞추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해석방법인 것이다.

4. 성경에 나오는 상급용어는 차등 상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

1) 포도원 품꾼 비유(마 20: 1-16)에 대한 해석

신자의 차등 상급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를 잘 든다. 그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일꾼들이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착안하여 동등 상급을 주장하고 차등 상급을 비판하였다.

헌터(Hunter)는 마 20:1 이하가 상급이라는 말을 쓰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급은 소멸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도덕'이나 '상업상의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속된 상급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며 차등 상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¹⁴⁾

예레미아스(J. Jeremias)는 일찍 온 자들이 늦게 온 자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공로사상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마지막으로 고용된 일꾼들은 하루 전체 품삯을 주장할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하잘 것 없이 보이는 세부적인 묘사 속에는 두 세계 사이의 차이점이 들어 있다. 즉 공로의 세계와 은혜의 세계인데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고 있다.¹¹⁵⁾

보쉬(F. H. Borsch)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다음 보쉬의 말을 들어 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과 기본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각 사람과 그룹들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용납한 것 이상을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일단 깨닫게 되면 그들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¹¹⁶⁾

키스메이커(Kistemaker)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¹¹⁷⁾

114) Hunter, *A Pattern for the Life: An Exposi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Its Making, Its Exegesis and Its Mean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53), 41-44.

115) J. Jeremias,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139.

116) F. H. Borsch, *Many Things in Parables : Extravagant Stories New Commu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8), 37-38.

117) S. K. Kistemaker,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Baker, 1980), 77-78.

세상적 원리는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로와 능력의 원리들이 무시되고 은혜가 득세할 수 있다. 하나님은 매우 선하시므로 은혜의 원리가 승리한다.

크레이그 블롬버그(C. L. Blomberg)는 포도원 품꾼 비유(마 20: 1-16)를 해석하면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자나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동등상급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⁸⁾ 그는 차등 상급을 다루는 자들의 성경해석은 설득력이 없으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차등 상급을 말해주는 본문이 없다고 주장하였다.¹¹⁹⁾ 만약 천국상급에 대한 교리가 작용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동기와 심리에 심한 손상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해석하면서 먼저 온 자나 뒤에 온 자나 동등한 품삯을 받은 것은 ①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② 마지막 그룹의 일꾼들처럼 그다지 자격이 없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덕분에 관대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리가 나온다.

③ 주인의 통합적인 역할은 모든 참 제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다는 귀한 진리를 제시한다.

그는 참된 신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등급 매김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꾼들의 이미지는 ‘은혜’, ‘천국’, ‘완전함’ 등의 보다 추상적인 개념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로 심판을 준비하는 성경 본문 가운데 대다수가 두 가지 선택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다. 즉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고 심판은 행위로 말미암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므로 행위가 개입될 수 없어 상급의 차등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차등 상급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존하면서 그에게 구속의 모든 공로를 돌려드리는 일과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들에게 멸망에 대한 비난을 던지는(롬 9:22- 24) 중요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행위와 은혜 사이의 균형의 결여로 인해 천국 안에서 상급

118) C. L. Blomberg, *Interpreting Parable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1990), 224.

119) C. L. Blomberg, “천국상급에 차등이 있는가?”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272-285.

의 등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자 중 최고의 의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완전함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므로 신자들 간의 차이는 사소한 것이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계 21 - 22장의 천국에 대한 진술과 특히 21장 4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없으리라는 것이다. 천국에서 기쁨이나 특권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끝없는 회오와 슬픔에 잠겨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생이 완전함을 말한다면 영생에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고 하였다.

차등 상급을 거부하는 자들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먼저 온 자가 먼저 와서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세속적 ‘성과주의’ ‘업적주의’ ‘공로주의’ 사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이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차별된 대우를 해달라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주권(뜻)에 의해 똑같이 동등한 몫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모든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 씩 품삯을 준 것은 모든 신자가 동일한 상급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이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9:16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설명하시다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이 본문을 보면 부자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어떻게 또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냐는 율법주의적 질문이다.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시해주셨다(마 19:17-19). 이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다고 대답하자(마 19:20; 막 10:20)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셨다. 그 부자 청년은 그 주님의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다(마 19:21-22). 이 부자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다(마 19:23-24). 이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마 19:25)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 19:26) 대답하셨다. 이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즉 사람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중 온 사람이나 먼저 온 사람이나 동등한 품삯을 주었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시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와 포도원 품꾼 비유 사이에 베드로와의 대화가 삽입된 것이다.

이에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 어떤 보상이 있느냐고 질문하였다(마 19:27).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셨다. 즉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주를 위해 충성과 헌신한 12 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로 차등 상급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마 19:28-29). 그러면서도 금세에 백배를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을 것(막 10:20)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차등 상급론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구원론으로 들어가서 포도원 품꾼비유를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모든 일꾼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은 바로 앞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상급론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앞의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이은 구원론의 설명으로 볼 수 있다. 만약 12 보좌를 주신다는 차등 상급에 대한 약속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과 똑같은 뜻이라면 주님은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순된 가르침을 하실 리가 없다. 따라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동

일한 품삯을 받은 것은 동일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베드로의 공로지향적인 질문에 대해 차등 상급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셨을까? 그것은 상급의 은혜성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다. 즉 천국에서 차등 상급은 있되 그 차등 상급이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공로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에 속한다는 것이다.

2) 영생권에 대한 해석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를 자기 것으로 삼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영생권은 신자이면 누구나 받는 것임으로 동등 상급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화되어 선행을 이름으로 받는 상급은 이 영생권과 구별되는 차등 상급이라 할 수 있다. 즉 영생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급은 차등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혼동하여 영생권은 누구나 받는 상급이므로 결국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존재하지 않고 동등 상급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영생권과 관련하여 켈리(J. N. D. Kelley)는 딤후 4: 8의 '의의 면류관'도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권과 같은 동등상급을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하였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자라면 누구나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¹²⁰⁾

데이비드(P. H. Davids)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생명의 면류관'은 동격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 시련에서 인내한 자들에게 모두 동등한 여김을 받는다고 하여 동등상급을 주장하였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지만 야고보서의 보다 넓은 문맥에서 그러한 술어들이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하였다.¹²¹⁾

120) J. N. D. Kelley, *A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Black, 1963), 210.

고든 피(Gordon Fee)는 면류관은 목표의 어떤 특정한 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승리 그 자체라고 하면서 차등 상급을 부인하였다.¹²²⁾ 심판 때에 인정받는 것이나(도키모스, *dovkimo*) 인정받지 못한(아도키모스, *ajdovkimo*) 것이라는 표현도 토기가 가마 속에서 잘 구워졌는지 아닌지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영생과 사망의 문제이지 상급의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밋첼(J. R. Michaels)은 벵전 5장 4절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은 영생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차등 상급을 부인하였다. 이는 베드로 전서에서 신자들의 영광을 언급하는 모든 구절(1:7; 4:13-14; 5:10)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³⁾

블롬버그는 천국에서 차등 상급을 말하는 듯한 본문은 동등상급 곧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전 9장 25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내를 올림픽 면류관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한다고 하면서 승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그리스도인) 모두가 영원히 있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어깨를 겨누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면류관은 고전 9장 24, 27의 ‘상’과 같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영생 곧 ‘영원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다. 블롬버그는 진정한 개혁교리는 성도들이 인내하는 자들임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회개한 일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구원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살전 2:19에서 ‘자랑의 면류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양육하는 다른 신자들과의 끊임없는 교제에서 맛보는 즐거움, 영생 자체의 소망 및 기쁨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 속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기쁨은 신자들이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같이 누리는 기쁨이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¹²⁴⁾

블롬버그는 그 외에도 고전 4장 5절의 ‘하나님께서로부터 칭찬’은 신분의 영구한

121) P. H. Davids, *The Epistle to the Corinthian* (Grand Rapids: Eerdmans, 1982), 80.

122) Gordon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 (Grand Rapids: Eerdmans, 1987), 437.

123) J. R. Michaels. *1 Peter* (WBC: Waco: Word, 1988), 80.

124) Blomberg, “천국상급에 차등이 있는가”, 276.

차이보다는 일시적이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빌 3장 14절의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도 천국의 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²⁵⁾

또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드리는 이십사 장로들은 휴거된 신자들이 아니라 천사들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천사가 아니라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스라엘 열두 족장과 열두 제자들을 합친 것으로 일반 신자들과 다르므로 보편적 교리를 말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구절이 온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면류관을 벗어던짐으로 차등 상급을 입증하는 구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¹²⁶⁾

이렇게 블룸버그는 성경 해석적 이유에서 상급을 가리키는 본문들을 모조리 영생의 관점에서 보아 차등 상급을 무시하고 동등 상급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참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 심판 때 아무리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때 끝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속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상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동지들과 다른 상급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개신교 개혁이 물려준 이 귀한 유산을 발견하고 하늘에서의 영원한 차등에 관한 우울하고도 해로운 견해를 내어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신대학의 전경연 교수는 그의 논문 “예수의 말씀에 나타난 응보와 보상”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보상의 약속은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볼 때 보상이 바로 ‘생명’이라 할 수 있고 결국 ‘영생’이라고 하였다.¹²⁷⁾

합신의 홍창표 교수도 그의 논문 “하나님 나라의 상급 개념”에서 상급을 영생과 혼동하고 있다. 그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중심으로 팔복이 증명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한히 깊고 풍부한 기쁨인 상급을 하나님

125) *Ibid.*, 281.

126) *Ibid.*, 278.

127) 전경연, “예수의 말씀에 나타난 응보와 보상,” 280 -281.

나라의 백성이 차별 없이 즐기게 될 것이라 하면서¹²⁸⁾ 차등 상급을 부인하였다. 그는 만약 상급의 차등이 있다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현재의 생활에서 누리는 기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소극적인 상급은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고 적극적인 상급은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차등 상급을 부인하고 동등상급을 주장하였다.

차등 상급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 주시는 주님의 상급의 약속에 대해서도 다 동등 상급으로 해석한다.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상급들도 다 동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함’, ‘감추인 만나’, ‘흰 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흰옷’,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함’,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함’,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함, ‘주의 보좌에 앉게 함’ 등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상급은 곧 영생권’이며 신자는 다 ‘동일상급’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²⁹⁾ 여기서 생명은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는 것이므로 신자가 상급을 받기는 받는 데 누구나 똑 같이 받는 것이므로 차등 상급이 아니고 동등상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7절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씀과 2장 10절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은 ‘이기는 자’와 ‘충성한 자’가 받을 상급을 말씀한 것이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극심한 환란과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교회들이다.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신자들에게 이러한 상급들은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 이기고 지는 것은 자기 현실에서 믿음을 지킨

128) 홍창표, “하나님 나라의 상속개념,” 『신학정론』 (1995년 5월호): 292-293.

129) 그들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요 17: 2-3의 주님의 대표적인 기도에서 영생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동등상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은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상급의 부유함, 풍성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받을 상급은 구원이나 멸망이나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반쪽자리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것이다. 천국에서 구원은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이 되어야지, 그곳에서 또 무슨 차별과 계급이 있느냐는 것이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며 많이 받았다면 이웃을 위해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상의 차별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영생도 하나의 상급이라 할 수 있다. 영생이란 바로 영원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외에 더 큰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은사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마 10:20)고 하셨고 바울 사도도 신앙적 삶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고 했으며(롬 6:22)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노라'(딤후 1:16)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보상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삶을 최대의 목표로 살아야 하겠다.

그러나 영생은 누구나 받는 것이니까 차등 상급이 없고 동등상급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큰 오류이다. 왜냐 하면 이기는 것이나 충성하는 일은 누구나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또 충성의 정도도 각각 다르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고 하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셨다. 만약 차등 상급에 대한 성구가 없고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동등상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차등 상급에 대한 수많은 본문들을 볼 때 이 본문에서 '생명'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한다. 생명은 누구나 다 받지만 생명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지 않은가? 주를 위해 충성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보다 훨씬 더 좋고 또 영원히 계

속되는 귀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도 충성하고 승리한 신자가 누리는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그 정도에 있어서 다 다를 것이다. 이 내용은 신자가 받을 상급의 내용 부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생 자체와 영생에 따르는 특별상인 존영과 영광과 쾌락 곧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다.¹³⁰⁾ 즉 영생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 칭의 됨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받는 특별한 선물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이다.

지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을 영생권과 구별하여 차등 상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결국 동등상급은 ‘상급’이라 하기보다 ‘구원’으로 볼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으므로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이므로 이 상급은 결국 상급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급이라 함은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차등 상급이라 하여야 맞는 것이다.

3) 상급에 대한 한글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

총신의 정훈택 교수는 “한글 성경의 상급(賞給): 영어 성경과 비교”라는 논문에서 차등 상급론을 비판하고 있다.¹³¹⁾ 그는 먼저 한국교회의 부흥에는 성도들이 미래의 축복과 영광을 기대하고 현재의 헌신과 열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면서 상급에 대한 긍정적인 시간을 보이는 듯 말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의 이러한 상급론은 구원과 연관된 카톨릭의 공로사상과 다른 구원 이후의 천국의 차이를 강조하는 개신교적인 상급론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상급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풍요로운 기독교인들과 최하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계층이 형성될 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130) Abraham Kuyper, *E Voto Dordraceno*, 2. 374-375.

115) 정훈택, “한글 성경의 상급(賞給): 영어 성경과 비교” 『신학지남』 (2004년 가을호 통권 280호), 71-91.

도 가장 큰 영광의 상급에서부터 “불에 타다 겨우 구원 얻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 즉 아무런 상급도 없는 구원 사이의 무수한 계층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상급론은 다른 성경에 없는 한글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며 이것은 성경번역상의 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³²⁾

정훈택 교수는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브라베이온’(brabei'on)으로 경기장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 단어 그리고 단어 있는 고전 9:24 과 빌 3:14에서는 한국 교회에 고착화되어 있는 상급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구절에서 상은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비유어 혹은 상징어로 사용되었다. 바울 사도는 천국의 상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삶과 신자들의 삶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단어를 개념화하여 천국에서의 일등상, 이등상 등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¹³³⁾

이렇게 정훈택 교수는 성경에 나오는 ‘상’을 문자적으로 보기 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봄으로서 분명한 문자적 내용을 상징으로 처리하는 성경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한글 성경에서 상급론을 지지한다는 성경구절들은 영어 성경과 비교해보면 대부분 구절이 오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오역인 줄 모르고 상급론의 근거가 되어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인 양 마냥 배우고 가르치며 또 복음의 진수로 불신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³⁴⁾ 그는 성

132) *Ibid.*, 72.

133) *Ibid.*, 88.

134) 정훈택 교수는 이 상급론의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들을 영어 성경과 비교하여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하였다. 그는 조건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며 영어로 a gift 또는 a present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 의해 정당한 댓가로 주는 것을 ‘값’, ‘보수’, ‘보답’, ‘보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pay, wages, reward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이라는 것은 조건과 조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균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조건이 옳은 것임을 계몽하여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려는 교육적, 사회적 목적 때문에 조건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크고 지극히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영어로는 prize나 award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상급론은 하나님 이 선물 이외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이미 한 일에 대한 결과로서 보답일

경에 나오는 샅과 상의 차이점을 볼 때 샅보다는 상이 하나님의 은혜성을 잘 설명함으로 한국 교회가 보상론 보다는 상급론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반면 영어 성경을 보면 고전 9:24 과 빌 3:14등 몇 구절만 상(prize)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¹³⁵⁾ 정교수는 이것이 초기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이 은혜의 개념이 들어가는 '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상을 강조하는 '샅'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 같아 그렇게 번역한 것 같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공로사상 때문에 1:1의 '샅' 개념보다도 100: 1이상의 상을 보장해주는 '상'개념으로 번역했다면 이것이 더 엄청나게 부풀린 공로사상의 표현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노력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초 공로주의 사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¹³⁶⁾

그러나 이러한 정교수의 주장은 상급의 은혜성을 모르고 '상급'을 무조건 공로사상으로 몰고 가려는 이분법적인 사상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상주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순종에 대한 상주심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인간의 공로사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것이다. 상에 대한 원어인 구약 성경의 '사칼'(rk;c)과 신약성경의 '미스도스'(misqov)는 샅, 보상, 보답의 의미인데 이 단어를 사용한 본문의 문맥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성과 보상성의 원리에 따라 한글 성경에서 '샅'이라 번역한 것보다 '상'으로 번역한 것이 번역자가 고민 결과 선택한 훌륭한 번역이지 이를 오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영어성경에는 'reward'로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이 'reward'도 문맥에 따라 은혜성과 보상성의 의미를 종합한 '상' 개념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prize'로 번역된 것만 '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사료된다.

고전 9장 24절 본문을 보자.

수만은 없고 미래를 향한 의도성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다는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실 무엇을 기독 신자들의 윤리적 동기로 본 것이다. *Ibid.* 84-86.

135) 이에 비해 한글성경은 상(賞)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19번 신약 성경에 25번 총 44번 나온다고 하였다. 즉 영어로 'reward'가 한글로 상으로 번역된 것으로 본 것이다. 원문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의 사칼(rk;c)과 신약성경의 미스도스(misqov)는 샅, 보상, 보답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Ibid.*

136) *Ibid.*, 86.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 본문에서 성경은 달음질하여 우승한 자는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¹³⁷⁾ 사도 바울은 고전 9장 17-18절에서 계속하여 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misqov")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misqov")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위의 본문에서 '상'이 비록 원문상 24절의 '브라베이온'(brabei'on)과 다른 '미스도스'(misqov") 이지만 문맥상 다 '상'으로 번역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정훈택 교수는 또한 한국 교회의 상급론을 비판하면서 상급론이 신자들이 구원 얻은 다음에 얻게 될 상급 제 2의 은혜를 말하는데 비해 바울 사도는 구원 자체를 상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고전 9:25절의 "썩지 않을 면류관"과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27절)이란 표현을 쓰는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23절)과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바울이 구원 이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고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달리기 경주를 그 비유로 사용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 비유에서 상은 천국/구원과 분리되어 있거나 천국/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상급론의 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¹³⁸⁾

그러나 이러한 정 교수의 해석은 문맥상 맞지 않는 것이다. 정교수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라고 하였는데 신자가 이기기를 다투며 절제하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구원의 문제라면 신자가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 신자는 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힘쓸 필요가 없다. 단지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위해 달려가야

137) 박윤선, 「그린도전서」(서울: 영음사, 2003), 138-139.

138) 정훈택, "한글 성경의 상급(賞給): 영어 성경과 비교", 88.

할 것이다. 이 본문은 불신자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도 모든 고생을 하며 달음질 하는데 하물며 신자들은 썩지 않을 영생의 상급을 위해 얼마나 더욱 고생하며 힘써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¹³⁹⁾

빌 3:14의 말씀도 정교수는 상급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구원 자체로 보았다. 그러나 이 본문은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자.

꺄뵁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노라

kata; skopo;n diwvkw ejj" to; brabei'on th" a[nw klhvsew" tou' qeou' ejn Cristw'/ jhsou'.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바울의 신앙걸음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동사 ‘쫓아가다’는 헬라어 ‘디오코’(diwvkw)로서 이는 ‘뒤쫓다’(run after), ‘추구하다’(pursue) ‘열심히 따르다’, 비유적으로 주의나 대의를 ‘열심히 추구하다’,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를 의미한다.¹⁴⁰⁾ 바울은 빌 3:12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디오코’는 얻으려고 열심히 쫓아가는 모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정교수가 말한 대로 본문의 ‘상’을 구원이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해석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정교수는 한글 성경의 번역 오류로 상급론이 생겨나서 열심을 부추기지만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는 한국 개신교회와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상급론은 성경과 교회역사와 거리가 먼 것으로 한국 교회에서 탄생한 교리이며 그 뿌리는 잘못된 성경 번역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¹⁴¹⁾ 그러나 이 상급론은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말씀이다.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히 11:26)고 하였고 바울도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하였고 칼빈도 아브라함 카이퍼도 수많은 개혁주의자들도 다 상급을 인정하고 있는데 정교수만 한국 교회가 잘못된 성경 번역으로 잘못된 상급교리를 만들었다는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주관적 자의적 주장이라 사료된다.

139) 박윤선, 「신약 주석 그린도전서」, 139.

140) A. Oepke, TDNT, 2, 229-230.

141) 정훈택, “한글 성경의 상급(賞給): 영어 성경과 비교”, 90.

특히 그는 결론 부분에서 상급론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듯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그런 일확천금을 얻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급교리를 기복주의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상급교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충성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개혁주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4) 기타 성경구절에 대한 해석

차등 상급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의 해석을 통해 차등 상급론을 비판한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자.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승리의 보장을 해주신다는 것이며 여기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인데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¹⁴²⁾

그런데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daom] hBer]h' *r]k;c])은 분명히 차등 상급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신약의 마 5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을 위해 핍박당한 자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oJ misqo;" uJmw'n polu;") 말씀하심으로 차등 상급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142) 이명호, 『천국에도 차등 상급이 있다』, 19-22.

의 명령을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왔고(창 12장), 조카 롯과의 영토 분쟁이 있을 때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였고(창 13장), 조카 롯에 속한 소돔고모라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을 구출한 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 후(창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주시는 상급의 약속이지 누구에게나 주시는 약속이 아닌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므로 차등 상급을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자녀라고 상급이 다 똑같지 않는 것이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차등 상급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익한 종의 믿음에 대한 것도 종종 예를 든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눅 17:9-10).

이 본문에서 차등 상급을 부인하는 자들은 주인이 종에게 사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니 상급의 차등이 없다고 말한다.¹⁴³⁾ 그러나 이 본문은 상급의 차등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상급이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다. 사례는 한 일에 따라 주는 보수로서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익한 종에게 은혜로 구원은 물론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것이다.

또 상급을 천국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보는 견해가 있다.

미켈리스(W. Michaelis)는 마태복음 5:10에 근거하여 팔복에서 말하는 상급은 천국을 하나의 비유로 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팔복은 천국에서 모든 신자들이 공통으로 누리는 총체적 구원이라고 하며 차등 상급을 부인하였다.¹⁴⁴⁾

또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등상급 쪽으로 해석을 한다. 즉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

143) Blomberg, “천국상급에 차등이 있는가”, 282.

144) Wilhelm Michael, *Der Evangelium nach Mathaeus*,(Zuerich: Zwingli Verlag, 1949,1), 229-230.

과 상급을 받았으니 상급의 차등이 없다는 것이다.¹⁴⁵⁾ 그들은 신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구원 자체가 상급이지 별도의 상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바라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 천국에 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데 지체간의 비교나 차별이나 경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나 자기 자랑, 자기 업적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공로 업적 충성 정도에 따라 상과 복에 차등이 있다면,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관인 공로주의, 성과주의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재능대로 준 것이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남김으로 각각 100% 헌신하였으므로 같은 상급과 칭찬을 받았지 배를 남기지 못했다면 상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고 땅 속에 묻어 둬므로 주인의 책망을 받고 만 것이다. 주인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종들에게 맡겨준 대로 회계하여 상급과 책망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문을 가지고 상급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제 2 절 상급중시(賞給重視) 견해

앞서 차등 상급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인본주의적 견해를 살펴보았지만 차등 상급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고 개혁주의의 많은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내용이다. 비록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을 반대하여 은혜를 강조하다보니 상급을 공로사상으로 해석하여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이 상급을 부인한 것도 아닌데 그 후계자라고 칭하는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중심의 개혁주의의 이탈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자나 신 정통주의들은 그들의 인본주의적 성경해석에 의해 차등 상급

145) Blomberg, “천국상급에 차등이 있는가”, 280.

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개혁주의자들 안에서도 성경신학이 발달되면서 성경해석적 이유에서 자기들의 신학의 잣대로 성경을 해석하여 차등 상급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바른 정통에서 왔던 개혁주의자들은 상급을 공로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성경에서 차등 상급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으로 차등 상급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성경 해석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하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매튜 헨리¹⁴⁶⁾

영국의 주석가 매튜 헨리는 성경에 나타난 천국상급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사도바울의 집짓는 비유를 해석하면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과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것에 대해 마지막 날에 불로 공력을 밝히며 심판할 때에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마니 이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해석하였다.¹⁴⁷⁾ 그러나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타지 않은 집을 지은 것이니 명예와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충성은 내세에 있어서 완전한 보답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전파하며 그들의 일이 올바르게 보답을 받는다. 아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넘치는 보답일까!” 하며 감탄하고 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의 공력은 시련을 견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 터 위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건축을 잘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초와 상부 구조물들은 모두 한 덩어리였다. 그러므로 이 건축자는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

146) 매튜헨리는 1666년 10월 28일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687년에서 1712년까지 목회를 하였다. 그는 가정예배에서 친구약을 읽고 설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 주석을 쓰게 되었다. 공중예배에서 30분이나 기도하고 한 시간의 설교를 하였으며 자기가 직접 편집한 시편 찬송을 불렀다. 그는 52세인 1714년 큰 교구 직무와 주석사역으로 무리하게 몸을 사용함으로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 근 3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경주석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영감을 받았다.

147) Matthew Henry, 「고린도서」, 노사곤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5), 62 - 63.

고 하였다.

그러나 공력이 불에 타 버릴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15절). 이 날에 모든 가리개는 치워지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좋은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한 사람은 비록 그가 정직했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지라도 손해를 당한다. 비록 그가 구원을 받을지라도 그의 모든 공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건축했을 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공력이 없으므로 상급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공력이 불타는 가운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공력은 다 불타고 마는 것이라 하였다.

메튜 헨리는 고전 9장 24 - 27절에 대한 주석에서도 상급을 얻기 위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25절) 말씀을 통해 바울사도는 운동선수가 엄격한 음식과 극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앞에 놓인 상을 위하여 그리고 영광스러운 경주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하거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더 더욱 절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¹⁴⁸⁾

메튜헨리는 바울은 고후 5: 9-11 주석에서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을 나태와 죄를 주의하고 신앙에 있어서 주의와 열심을 내도록 격려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대하신 주께서 “잘 하였도다” 칭찬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 칭찬을 상급으로 받을 때 칭찬받는 그들은 이것을 최고의 은총이요 명예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 바울은 다가올 심판으로 신앙생활을 격려한다고 하였다(10, 11절). 우리는 다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한다. ‘다, 반드시’란 곧 심판의 보편성과 확실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대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있게 될 것이며, 받게 될 보상은 육신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된다. 선악 간에 모든 일이 공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튜헨리는 천국의 상급 사상이 성경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분임을 강

148) *Ibid.*, 144-145.

조하였다.

2. 아브라함 카이퍼¹⁴⁹⁾의 견해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과 서술자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상의 문제가 등한시된 것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개혁주의 내에서의 상급 경시 사상을 비판하고 상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⁵⁰⁾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한 윤리적 개념 이상인 것이다.

카이퍼는 “선행의 공로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약속된 상들이 죽은 것 같이 침묵에 누워 있도록 수난하였으니 이로 인해 상의 풍부하고 다양한 약속의 형식으로 성경이 공급한 경건에의 격려가 무디게 된다.”고 하였다.¹⁵¹⁾

카이퍼는 이어 영생 자체와 영생에 따르는 특별한 영광 사이에 구별을 지었다. 영생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아 칭의 됨으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나 구속된 자들 중에도 이것 외에 은혜의 상이 있다는 것이다. 은혜의 상은 구속된 영혼들 전체에게 주는 영생과 같은 것일 수 없고 특별한 선물, 추가적인 무엇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이 특별한 선물이나 보상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수난과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하여 보다 더 큰 행복을 받을 재량이 영혼에 창조될 수 있고, 하나님은 상으로 약속하시기를 영혼이 그 재량에 적절한 지복으로 채워질 것이라 하셨다. 우리의 지상 생활에 더 큰 행복은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받을 상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금생에 한 일이 선 악간에 다 폭로된

149)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헤르만 바빙크와 B. B. 위펠드 등과 더불어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며, 혹은 제 2의 칼빈이라고 불리우는 신학자이다. 그는 목회자, 신학자, 신문 편집인, 국회의원, 대학 설립자, 대학교수, 교회 개혁자, 정당 당수, 수상 등 다채로운 생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개혁 교회가 갱신되었고, 사문화되고 있던 칼빈의 종교 개혁신학이 부흥하게 되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더 높이기를 원하였고 학문, 예술, 정치 등 삶의 다방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개혁을 시도 하였다.

150) A. Kuyper, E. Voto, II, 377.

151) *Ibid.*

후에 상이 올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와 자선을 통해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은 구속된 각 사람에게 분배하여 내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카이퍼는 상은 영생에 추가적인 것으로 특별한 선물이며 보상의 성질의 것'이라고 구분하였다.¹⁵²⁾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들이 받을 권리가 없는 추가적인 선물(extra gifts)을 주어 그들을 놀라게 함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이퍼는 마 19:29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는 영생과 상을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그 성구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영생을 추가적인 상으로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본문을 살펴보자.

마 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본문에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금생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받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분명히 상급에 대한 약속이다.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 금생에서도 보상을 주시고 내세에서도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내세에서 영생을 상급으로 약속하셨다면 영생 자체는 동등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영생 안에는 천국의 모든 영광과 상급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받는 영생을 받는다고 해서 차등 상급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 될 것이다.

카이퍼는 또한 하이델베르그의 요리 문답이 상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한 노선을 따랐다.(*Heidelberg Catechism, Lord's Day 24*).

카이퍼는 또한 매우 영적인 사람은 보상의 동기 외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⁵³⁾

따라서 카이퍼는 상급에 대한 공로사상이나 상급경시 사상을 배격하고 상급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2) *Ibid.*, 374.

153) A. Kuyper, *E. Voto*, II, 384.

3. 헤르만 바빙크¹⁵⁴⁾의 견해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르는 상에 대해 말할 때 장차 그가 누릴 영광의 차등함을 가르친다고 말했다.¹⁵⁵⁾ 그는 또 말하기를,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는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예와 통치권을 받을 것이다(마 24:14 이하). 물론 우리 모두가 동일한 복, 동일한 영생, 하나님과의 동일한 교제를 나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광휘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들은 그들의 충성과 열심에 비례하여 그들의 주님과 왕으로부터 다른 면류관과 상을 받는다(계 2-3장)"고 하였다.¹⁵⁶⁾ 그는 성경이 영광의 상의 상이한 수준들을 가르치고 있고 특별히 각 사람이 그의 행위들에 의해 받을 상들이 고찰되는 곳에서라 하였다.

바빙크는 성도가 최후의 심판 때에 심판의 권세를 받을 것이라 하였다. 즉 고전 6장 2-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에 대해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는 이 구절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판에 대해 단순한 인정을 표시하는 식의 권한 행사 밖에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진정한 역할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마 19장

154)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 1921)는 Abraham Kuyper와 Benjamin B. Warfield 와 함께 3대 칼빈 주의자로 지목되는 화란의 개혁신학자이다. 카이퍼가 수상으로 그의 정치적 생애에 정열을 쏟을 때, 바빙크는 학문적 세계에 그의 삶과 생애를 더 효과적으로 살았다. 그는 17세기 개혁자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자들에게 돌아가 정통주의와 개혁주의의 정체성을 시도하였다. 그는 교의학의 가치와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하므로 유럽대륙을 휩쓸고 있었던 자유주의의 성경신학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저항하였으며, 교회 밖의 제 학문의 도전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변증하였다.

155) Herman Bavinck, *Rereformeerde Dogmatiek*, IV, 711.

156)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Baker, 1956), 567.

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성도의 심판의 권세를 분명히 하였다¹⁵⁷⁾. 그런데 이 본문은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므로 바빙크는 분명히 차등 상급을 언급한 것이다.

4.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¹⁵⁸⁾의 견해

게할더스 보스는 그의 책 「바울의 종말론」에서 차등 상급에 대한 여러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¹⁵⁹⁾

고전 1:4-8; 15:32; 고후 4:16; 5:10; 9:6;-8; 갈 6:5-10; 빌 1:10,26; 골 1:5; 3:24; 살전 3:13; 5:23; 살후 1:7; 딤편 2:18; 5:25; 6:16,19; 딤후 2:11; 4:4,8,14,16 등

보스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사역과 그가 받으신 가치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면서 주님이 받으신 보상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주사’의 헬라어 ‘ejcarivato’는 본문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마땅히 받은 이름은 은혜의 형식으로 그에게 수여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과 보상 관계에 들어오실 때에도 그는 은총의 행동으로써 그렇게 하시지 그가 반드시 주어야 할 어떤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157)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matiek, 4th ed, 4vols, Kampen: Kok, 1928-30(3rd ed, 1918), 683-684.

158)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는 1863년 3월 14일 네덜란드 프리랜드 주의 헤렌벤에서 독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화란서 중등교육을 마친 그는 당시 미시간 주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기독교 개혁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청빙을 받은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1881년). 그는 여기서와 프린스턴 신학교, 독일의 베를린, 스트라스부르그 등지에서 신학수업을 마치고 1888년 스트라스부르그 아랍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1932년 70세의 나이로 은퇴하기까지 39년간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로 봉직하면서 교수와 목사로서 사역하다가 1949년 8월 13일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159) G, Vos, *The Pauline Eschat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1979), 275.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일한 원리를 신자들에게 확대하였다고 하였다. 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얻는 것’(earning)은 바울의 일반적인 가르침에 따를 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공로가 부인된 은혜의 왕국 속에서 한 지위를 얻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회계할 날을 위하여 스스로 보상을 쌓아 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유대적 정신에 따르면 문제는 영리 본위(commercial)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지 않을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는 심판하여야 하는 것처럼 상급도 주셔야 하는 의무에 사로잡히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그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상급을 주시겠다고)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에 따르면 그 상급은 결코 엄격한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신자의 부자 관계로 인하여 새로운 특징이 여기에 가미된다. 그것은 곧 그것이 은혜의 상급만이 아니라 특별히 부성애(paternal love)에 의하여 수여되는 상급이다.

5. 벌카우워(G. C. Berkower)¹⁶⁰⁾

화란의 신학자 벌카우워는 그의 조직신학 연구 「믿음과 칭의」편에서 행위에 대한 심판과 성경에서 상급개념 및 야고보서에서의 칭의 문제를 다루었다.¹⁶¹⁾

1) 먼저 그는 ‘행함에 따른 심판’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믿음’(sola fide)의 내용과 상반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160) G. C. Berkower 는 190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를 졸업한 후 네덜란드 분리 개혁교회인 개혁교회 목사가 되었다. 1945년 그는 교의학 교수로서 자유대학교에 복귀하여 은퇴할 때까지 봉직하였다. 그는 다작(多作)을 하였고 14권으로 된 교의학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는 신학은 항상 성경과 관련되어야 하고 강단의 필요성과 관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1) G. C. Berkower, *Studies in Dogmatics: Faith and Justification*, Translated by Lewis B. Smede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4), 103.

바울의 로마서 2장 6절에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2장 6-8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¹⁶²⁾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서 이 최후의 심판과 행함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순종과 불순종과의 최종적인 분리이다. 그런데 이 행함의 문제는 바울의 칭의를 강조한 성구와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니다. 벌카우위는 바울이 행함에 대한 심판과 상급의 문제로 다른 성구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시 62:12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전 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 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2:36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 25:31-46

고전 3: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전 4: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162) *Ibid.*, 104.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갈 6:7-9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율법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벧전 1: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별카우워는 이렇게 행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한 다음 이는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또한 강조하였다(롬 12:1; 14:23; 살전 1:13). 이렇게 믿음과 행위의 결합은 우리의 생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며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였는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 행함은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지 율법적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믿음은 구체적인 삶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 5:13)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갈 5:22-23).

그러므로 ‘오직 믿음’(sola fide)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에 대한 확신에 찬 반응인 것이

다.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해놓고 우리의 구속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함으로(벧전 1:17-19) 구속과 관련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와 그의 소유인 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여 좋은 나무에 좋은 실과를 맺게 하며(마 12:33) 믿음은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은 행함에 대한 심판을 신앙과 불신앙의 심판이다. 윤리적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닌 믿음과 관련된 심판인 것이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선행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마 26:10).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용서받을 사람과 용서할 마음이 준비된 사람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시지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마 6:14,15). 일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사람이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다시 빚을 지게 된 것이다(마 18:26,29).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동이 서에서 만 것처럼 거리가 먼 것이다.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앞으로 오셔서 모든 형벌심판에서 면제해 주실 심판자를 기다린다. 그 날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163)

2) 성경에서의 상급의 문제

성경에서 상급의 문제는 ‘오직 믿음’(sola fide)의 문제의 논쟁과 관련되며 이는 또한 행위에 대한 심판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것은 이것은 믿음에 의한 칭의의 고백에 대조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 보상의 문제와 비 공로성의 문제에 긴장이 있다. 신적인 보상은 인간의 행위에 대응된다.¹⁶⁴⁾

개혁 신학은 상급의 문제를 로마 신학만큼 자주 언급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카이퍼조차도 개혁자들의 저술들과 설교들에서 상급의 문제가 오랫동안 등한시 되어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선행의 공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63) *Ibid.*, 112.

164) *Ibid.*, 113.

성경에 나오는 풍부한 약속된 상급이 죽은 자와 같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증언은 약속된 상에 대해 매우 일관된 것이어서 이를 등한히 할 수 없다. 루터는 이 문제를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에 칼빈은 상급의 문제를 상당히 언급하였지만 그의 논점은 대부분 상에 대한 약속에서 행위에 의한 칭의로 결론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주력하다보니 공로사상에 대한 반대 논증의 모습을 띠었다. 이것은 성경의 은혜의 교리를 공격하는데 대한 방어벽을 치는 것이다.¹⁶⁵⁾

신자의 행위에 대해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다. 상급개념은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급은 구약에서 자주 언급된다. 잠언에 가장 많이 상급이 강조되고 있다.

잠 10:17, 22, 27, 29, 30; 12:14; 13:13; 16:31; 19:16; 20:7; 23:18; 25:21, 22; 33:18, 19; 34:37; 37:5,6; 84:12, 13; 94:14; 146.

신약에서도 이 대응성은 어디든지 있다.

마 5:12; 6:1, 2, 3, 4, 16; 눅 6:35, 37, 38

성경에서 이 행위와 보상의 관계는 통합적인 부분이며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연구할만한 것이다.

별카우워는 또한 상급의 동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였다.¹⁶⁶⁾ 그는 이 사상의 극단은 모든 선은 선 자체를 위해야지 어떠한 상급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무신론적 윤리라고 지적하였다. 선행을 위한 동기는 다른 아무데서 추구하지 말고 오직 도덕적 무상명령 자체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순 윤리적 견해들보다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골 3:23,24; 딤후 4:8; 히 6:10; 11:26). 그는 또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카톨릭의 공로사상이 아니라 고 하면서 철학자들의 윤리이상주의를 공격하고 성경은 동기 없는 윤리의 냉담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 '오직 믿음' 교리와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교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165) *Ibid.*

166) *Ibid.*, 117.

가? 벌카우위는 이를 위해 카이퍼의 상급론을 제시하고 있다. 카이퍼는 상급론을 강조하며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신자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여기에 추가적인 선물로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은혜로운 상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늘에 쌓아둘 보화는 특별한 선물로서 보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지상에서 수난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보다 더 큰 행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상으로 약속하시고 적절하게 보상해주시다. 이렇게 카이퍼의 상급론을 동의하면서도 벌카우위는 카이퍼가 마 19:29에서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의 해석을 만족하지 않았다. 카이퍼는 이 본문은 신자들에게 영생에 추가적인 상급이 있음을 확증시켜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영생을 넘어서는 은혜의 특별한 상을 얻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벌카우위는 이 말은 성경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온 하늘의 모든 상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 것이라 하였다. 그리스도는 영생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상으로 계산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카이퍼의 말대로 영생과 특별상을 구별하려면 특별상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영생과 병행하여 독립적인 기초를 가진다고 주장하도록 강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벌카우위는 이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의 다양성과 등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 사람이 상을 받는 것과 지상 생활 및 행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한편으로는 행위와 상 사이에 적응성(correspondence)이 있음을 주장하고 한편으로는 선행에 생길 수 있는 공로를 부정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 진리이다. 이것은 로마 교회에 의하면 역리적(paradoxical)이고 자가 모순적(self-contradictory)인 해결이다. 그러나 개혁파의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벌카우위는 상의 은혜성을 롬 4:4의 말씀 곧 “일하는 자에게는 그 값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느니라.”는 말씀에서 일하는 자는 그의 보수를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댓가를 받는 것이라 하였다. 일과 보수사이에 상관이 있어 공로와 성취에 의하여 결정되고 은혜에 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교환법칙이라는 것이다(레 19:3; 신 24:13; 눅 10:7; 약 5:4).

그러나 성경의 구원론이 말하는 상은 결코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독특한 조화이다. 상은 일해서 얻은 청구권에 대한 계약상의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위와 상의 상호관계는 산업적 계약에서 가지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취한다.¹⁶⁷⁾

종교개혁 시대나 그 후의 개혁파의 신앙고백서에서 눅 17:10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찌니라.

이 본문은 모든 공로개념과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상의 은혜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준 것은 공로와 상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선의 놀라움에 기초하여 로마 교회의 선행의 공로성을 기각하는 것이다.¹⁶⁸⁾

별카우워는 칼빈이 상의 약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였다.¹⁶⁹⁾ 즉 칼빈은 “천국은 종들에게 주는 봉급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는 기업”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또한 상은 하나님의 공훈과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칼빈의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은 확실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훈하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에 의한 상급을 제시함으로써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 것으로 별카우워는 본 것이다.

별카우워는 이렇게 오직 믿음과 상급의 교리를 잘 조화시켜 성경의 진리를 잘 드러내 주었다고 본다.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은 반드시 있으며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6. 하인리히 헤페의 견해

하인리히 헤페는 그의 「개혁파 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역사상 개혁파 신학자

167) *Ibid.*, 123.

168) *Ibid.*, 127.

169) *Ibid.*, 128.

들 가운데서 상급을 언급한 피스카토, 부칸, 코체유스 등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¹⁷⁰⁾

피스카토는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구별하며, 의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분량에 따라 차등하게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¹⁷¹⁾

부칸은 "영생의 영광이 모든 택자들에게 동등한 분량으로 공통적일 것인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택자들에게 자기의 은사들을 차등하게 나누어주시듯이, 천국에서도 자기의 은사들을 택자들 가운데 차등한 방식으로 주실 것이다"고 하였다.¹⁷²⁾

코체유스는 "영광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차이가 있을 것이나, 질투함이 없을 것이며 가장 큰 영광 곧 머리의 영광이 모두에게 흘러넘칠 것이다"고 하였다.¹⁷³⁾ "영광에 있어서 또한 등급들이 있을 것인데, 행위들의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세상에서 맺은 의의 열매들에 일치하는 방식으로이다".¹⁷⁴⁾

7. 헨드릭슨의 見解

헨드릭슨은 그의 저서 「내세론」에서 천국 상급 부분을 다루고 있다.

먼저 그는 제19장에서 “내세에는 완전한 평등이 있는가? 아니면 행복과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란 제목으로 천국의 차등 상급의 문제를 다루었다.¹⁷⁵⁾ 그는 사람들이 평등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평등은 비성경적(잠 6:6-11; 24:30-34)이라고 말하였다.¹⁷⁶⁾ 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였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평등하게 은혜를 입고 각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170)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Baker, 1978), 709 - 710.

171) Jo- hannes Piscator, *Aphorismi Doctrinae Christianae*, 1592, 108; 헤프, 710.

172) Gulielmus Bucanus, *Institutiones Theologicae*, 1609, 39. 14; 헤프, 709.

173) Johannes Cocceius, *Summa Theologiae* , 1665, 97. 4-5; 헤프, 709,

174) Johannes Cocceius,, *Summa Doctrinae* ,1648, 16. 647; 헤프, 709.

175) William Hendriksen, 「내세론」, 오성종 역 (서울: 세순 출판사, 1991), 122-124.

176) *Ibid.*, 122-123.

있어 각기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과 차별과 행복한 정도의 차이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성경은 이러한 영광의 정도 차이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마 25:14-30). 비록 구원을 받긴 했으나 평등한 분량이 아닌 상급을 받을 것이다(고전3:10-15). 모든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천사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천사들이 제각기 다 천사장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177)

이렇게 헨드릭슨은 천국의 차등 상급이 있음을 설명한 후에 이 차등 상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설명하였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나타난 충성의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고 하였다. 달란트비유에서 보듯이 충성의 정도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¹⁷⁸⁾ 상급의 은혜성을 강조한 것이다.

헨드릭슨은 심지어 그는 천국에서 뿐 아니라 지옥에서도 평등하지 않고 차등이 있을 것(마 11:22, 24)을 말하였다.¹⁷⁹⁾

헨드릭슨은 또한 그의 책 「내세론」 43장에서 45장에 가서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다. 그는 최후 심판은 세대주의자들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을 반대하며 오직 한 번 있다고 하였다(계 20:11-14)¹⁸⁰⁾. 또 이 심판을 집행할 심판 주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자"이신 어린 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 하였다.¹⁸¹⁾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적 사역을 완성하신 보상으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이 심판대에서 천사들이 악인을 모으며 불 못에 던지우는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사역을 도울 것이다(마 13:41,42; 24:31; 25:31; 살후 1:7,8; 계 14:17-20). 또한 신자들도 이 심판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시 149:5-9; 고전 6:2,3).¹⁸²⁾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될 것

177) *Ibid.*, 123-124.

178) *Ibid.*, 124.

179) *Ibid.*

180) *Ibid.*, 245.

181) *Ibid.*

182) *Ibid.*, 246.

이다(계 15: 34).

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대상은 먼저 타락한 천사들이며(마 8:29; 벰후 2:4; 유6),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 25:32; 롬 14:10; 고후 5:10).¹⁸³⁾

헨드릭슨은 이미 의인들과 죄인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갔는데 또 무슨 심판이 필요하냐 하며 최후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반박하며 최후의 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⁸⁴⁾ 그는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첫째 아직 천국과 지옥에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최후의 심판은 남아있는 자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원한 세월에 걸쳐서 영육 간에 받게 될 행복과 저주의 정확한 정도 내지 분량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의 순간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그들의 영혼으로서만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의 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의 의의 옷을 입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행 4:12; 요 3:16; 14:6; 고전 3:11 등).

또한 그 심판은 영광의 정도와 형벌의 정도의 차이를 결정할 것이다(단 12:3; 눅 12:47,48; 고전 3:12-14).

헨드릭슨은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서 천국과 지옥가는 것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과 지옥에서의 형벌도 다 똑같지 않고 차등이 있음을 결정한다고 하였다.¹⁸⁵⁾

그 차등은 그가 지상에 있으면서 얼마만큼 빛(지식)을 받았느냐(롬 2:12)와 그가 받은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눅 12:48)? 또는 그가 얼마만큼 충성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그 행위를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헨드릭슨은 이 최후의 심판은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과 그

183) *Ibid.*

184) *Ibid.*, 249.

185) *Ibid.*, 250.

가 받은 빛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심판한다는 것이다(계 20:13; 고전 3:12-13). 곧 구원과 상급에 대한 심판을 동시에 심판하는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¹⁸⁶⁾

헨드릭슨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함과 동시에 천국의 차등 상급을 분명히 함으로 천국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8. 후크마¹⁸⁷⁾

후크마는 그의 책 *The Bible and the Future* 제 2부 제 18장 '최후의 심판'¹⁸⁸⁾에서 천국상급을 다루고 있다. 후크마는 최후의 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① 심판의 뚜렷한 중요 목적은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 ② 각 사람이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③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사하여 그들이 영원토록 지내야 할 장소 곧 새 땅이든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든지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⁸⁹⁾

다음에 그는 심판 주는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위임을 받아 심판

186) *Ibid.*

187) 후쿠마는 1913년 화란의 드라크텐(Drachten)에서 출생하였고, 1923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칼빈대학에서 문학사학위를, 미시간 대학교에서 심리학전공으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칼빈 신학교에 입학하여 1942년에 신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하여 계속 연구하였다. 1944년에 기독교 개혁교회의 목사로 안수 받은 후쿠마는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목회사역을 시작하였다. 1953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교리」(*Herman Bavink's Doctrine of the Covenant*)라는 논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8년에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발탁되었고, 1978년 은퇴할 때까지 강의를 하였다. 한편 1956년에는 칼빈 대학에서 2년간 성경학 교수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55년후 23년간 모교인 Calvin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으며 1978년에 은퇴를 하고 1988년 7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정성구, 「개혁주의 인명사전」(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797.

188)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종말론」, 류호준 역(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357-372.

189) *Ibid.* 358-359.

을 행하신다고 하였다. 또 그리스도는 심판의 사역을 집행하실 때 천사(마 13:30-43)들과 성도들의 보좌를 받아서 하실 것이라 하였다(고전6:2-3).¹⁹⁰⁾ 또 심판의 대상은 천사들과(고전6:2-3; 벧후 2:4; 유6) 모든 인간들이라 하였다(마 25:32; 롬 2:5-6; 3:6; 계 20:12-13)¹⁹¹⁾.

그는 모든 신자들도 이 속에 포함되지만(롬 14:10; 고후 5:10; 히 10.30; 약 3:1; 벧전 4:17) 신자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롬 8:1). 오히려 신자들은 심판 날을 기다리게 된다고 하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 52항을 언급하고 있다.

모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하늘에서 오시는 참 심판자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벌써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모든 저주를 나에게서 없게 하셨다는 위로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원수와 나의 원수까지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나 그의 모든 택함을 받은 자는 나와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심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삶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이다. 고후 5:10은 이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은 실상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 방향이며 따라서 심판의 날에 참작이 될 것이다. 이 속에는 사람의 행위들, 말들,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다 행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마태복음 25:35-40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계 20:12에도 이 점에 관해 분명히 하고 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날은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도 다 심판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마 12:36). 심지어 사람의 생각들마저도 판단 받을 것이다. 고전 4:5에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목적들을 나타내시리라" (참조. 롬 2:16).¹⁹²⁾

190) *Ibid.* 361-362.

191) *Ibid.* 362-363.

192) *Ibid.* 363-365.

그는 이 심판의 내용을 한 마디로 종합하여 “심판의 날에 나타내진바 되지 않고 숨겨질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라 하였다.¹⁹³⁾

그때에 “신자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행하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모두 설명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산다면 그들은 현세에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아니할 것이며 헛된 삶을 살려고 계속 힘쓰게 될 것이라 하였다.¹⁹⁴⁾

후크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왜 성경은 그렇게도 끊임없이 최후심판은 행위들에 따라 판단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롬 2: 6).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그는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결단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최후의 심판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신앙과 행위 간의 밀접한 관계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약 2:26; 갈 5:6; 마 7:1).

이어 후크마는 상급의 문제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는 구원은 분명히 전적인 은혜이지만 성경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상급들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함으로 상급의 차등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눅 19:12-19과 고전 3:10-15 말씀을 인용하였다.

눅 19:12-27의 므나 비유에서 상급의 변수는 종들이 원래 받았던 므나와 이익으로 남긴 므나의 숫자에 맞게끔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 비유의 중요

193) *Ibid.* 364.

194) *Ibid.* 365.

한 교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섯 고을, 열 고을에 대한 상급의 언급은 상급이란 증가되는 기쁨이라는 측면보다는 증가되는 책임의 문제라고 함으로 지상에서 충성한 분량만큼 천국에서도 맡을 책임이 클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행위의 공로이기보다는 봉사의 책임일 것이다.

또 그는 고전 3:10-15 말씀을 가지고 상급의 문제를 다루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어떻게 지어 나아가느냐가 문제와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게 될 불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 종류의 건축자들은 둘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터가 된 기초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초 위에 집을 지었던 건축자들 중에 불의 시험을 거쳐 남아난 집을 지은 자들은 상급을 받게 되지만 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는 여기서 손해 본 자들은 구원을 상실한다는 뜻은 아니라 상급을 상실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그는 이 본문은 어떤 사람은 상급을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상급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상급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터 위에 사람이 어떤 재료들로 집을 지어 나가느냐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과 상급은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어 장차 신자들에게는 그러한 상급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상급에 관해 하신 말씀을 열거하였다(마 5:11-12; 6:19-21; 눅 6:35; 막 9:41; 마 25:23). 그는 또 “예수님은 상급들은 인간의 행위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함으로 상급의 은혜성을 강조하였다. 그 본문으로 눅 17:10의 무익한 종의 믿음을 예를 들고 있다.¹⁹⁵⁾

그는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문답 제63항의 대답에는 이러한 사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고백서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195) *Ibid.* 371.

다.¹⁹⁶⁾

상급은 공로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후크마는 이어 상급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차등 상급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미래의 상급 사이에 관계는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음악을 공부하여 어떤 음악 기구를 잘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는 그의 음악을 즐기는 능력 역시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커질수록 지금과 미래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축복들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용량 역시 커질 것이다.¹⁹⁷⁾

후크마는 신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히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그 상급은 하늘나라를 섬기는 실력의 차이가 될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후크마는 신자의 참으 상급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9. 그루템 198)의 견해

그루템은 그의 책 조직신학(하)에서 상급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루템은 제 56장 “최후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란 제목에서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시며 모든 불신자들은 형벌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

196) *Ibid.*

197) *Ibid.* 371-372.

198) 웨인 그루템(Wayne A. Grudem)은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Trinity Evangelical School에서 성경과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하버드 대(B. A)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M. Div.),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Ph. D)에서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The Gift of Prophecy in the New Testament and Today* 및 *The First Epistle of Peter*(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가 있다.

였다. 이울러 신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며 심판대 앞에서 형벌을 면하고 상급을 받을 것을 말하였다.

다음 그루뎀을 말을 보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했다(고후 5:10; cf. 롬 2:6-11. 계 20:12,15). 마태복음 25:31-46에 기록된 심판의 장면에도 그리스도께서 양을 염소와 구별하여 그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신자들을 위한 이 심판은 평가해서 상급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신자들이 영원히 정죄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심판 날은 신자들은 상급을 받고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놓인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할는지 조심할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12-15)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따라 받는 상급의 정도가 다를 것을 암시한다. 므나의 비유에서도 10개의 므나를 더 남긴 사람에게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고, 다섯 므나를 더 남긴 사람에게도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눅 19:17, 19)고 말씀하셨다. 이 외에도 마지막 심판 날에 신자들이 받을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을 가르치거나 암시하는 구절이 여럿 있다.¹⁹⁹⁾

그러나 그루뎀은 이 차등 상급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천국에서 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충만할 것이라 하였다. 상급의 차이는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루뎀은 이 질문은 우리의 행복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소유한 능력과 신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상급을 기뻐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²⁰⁰⁾

아무리 큰 상을 받는다 해도 언제나 더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사도들과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포함한 더 큰 권세를 소유한 신분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큰 상급을 받고 높

199)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하)」, 노진준 옮김 (서울: 은성출판사, 1997), 463-465.

200) *Ibid.*, 465.

은 신분을 받은 사람만 천국에서 온전히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어리석은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온전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고의 신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맞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고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계 4:10-11)는 것이다.²⁰¹⁾

그러면서 그루뎀은 천국상급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로 경쟁하게 만들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하게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실 만큼 무한한 복을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고전 12:26-27).²⁰²⁾

이렇게 그루뎀은 천국의 차등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또한 차등 상급이 주어진다고 해서 결코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는 자신에 주신 분량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될 것임이므로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단지 상을 받도록 경쟁하는 것보다 서로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으로 바림직한 상급관을 제시하였다.

10.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의 견해²⁰³⁾

에릭슨은 그의 기독교 신학 시리즈 제 7권 종말론, 제 5장 최후의 상태에서 천국의 상급을 다루고 있다. 에릭슨은 의로운 자들의 미래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우리 신자

201) *Ibid.*

202) *Ibid.*, 465-466.

203)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침례교 목사요 미국의 벤델 신학교 교수이며 칼빈과 루터를 사랑하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사상을 소개하며 성경 본문의 해석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충실하게 해석한다. 그의 『기독교 신학』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들도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될 처소라 하였다.²⁰⁴⁾

그러므로 신자들은 천국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6:19-20)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에릭슨은 이어 이 천국에서 신자의 삶은 안식과 예배와 섬김이라고 하였다. 그는 구속받은 자들의 천국에서의 활동에 관한 언급은 비교적 적지만 이를 알려주는 성구들을 제시하고 있다.

에릭슨은 먼저 천국에서의 신자의 삶은 안식이라고 하였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풍부하게 상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는 안식은 단순한 활동의 중지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을 말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음에 에릭슨은 천국에서의 삶을 예배로 말하며 계 19장 예배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나아가 에릭슨은 예배의 장면을 사 6:3의 스랍이라는 천사의 찬양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하늘에서의 이루어지는 이러한 예배의 묘사를 볼 때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지상에서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의 실습이자 준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에릭슨은 천국의 삶은 섬김의 삶이 될 것이라 하였다.²⁰⁵⁾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에릭슨은 이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열두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열두지파를 다스릴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왕을 위한 봉사라고 하였다.

204) Millard J. Erickson, 『종말론』, 이은수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154-157.

205) Millard J.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下)』, 신경수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440.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 28-30).

이 봉사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다스리라는 청지기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사역을 봉사직이라 하였다. 또한 마태복음 25: 14-30에서 청지기 비유에서 충성되이 행해진 일에 대한 상급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기회였다. 지상에서 행해진 충성된 일에 대한 상급이 하늘에서 주어질 것이라 하였다.

에릭슨은 또한 천국에서의 여러 가지 상급들을 언급하고 있다.²⁰⁶⁾ 이는 므나 비유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눅 19:11-27). 열 명의 종들은 그들의 주인으로부터 각각 한 므나씩을 받았다. 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남긴 결과에 따라 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단 12:3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고 하면서 상급을 언급하고 있다.

또 고전 3:14-15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말씀도 천국의 상급을 지지해주고 있다.

에릭슨은 그러나 천국의 차등 상급이 통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객관적인 환경의 차이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매우 큰 방을 받을 것이나 반면에 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작은 방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국에서 차별의식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이 감소되고 끊임없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에릭슨은 천국의 차이를 외적이며 객관적인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그 환경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의 차이로 보고자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예배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즐거워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를 더 즐거워했던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206) Erickson, 『종말론』, 168.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기쁨이 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반응의 범위는 매우 좁아 후회함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²⁰⁷⁾

에릭슨은 이렇게 천국에서의 신자의 삶을 안식, 예배, 섬김이라는 풍성한 삶을 소개하며 신자들은 이러한 것을 다 누린다는 면에서 환경적인 상급의 차이는 없고 누리는 느낌과 정도가 다르다는 면에서 주관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차등 상급을 주장하였다. 상급의 차등을 그루뎀은 주관적인 차이보다는 객관적인 차이로 본 반면에 에릭슨은 주관적인 차이로 보았다.

11. 박형룡 박사

박형룡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칼빈주의 조직신학자이다.²⁰⁸⁾ 그는 평양신학교 교수로부터 총신대학의 교수로 평생을 교수 사역을 하며 조직신학 전집을 저술하였다. 그는 천국의 차등 상급을 강조하였고 상급에 관한 부분은 그의 저작 전집 제5권 구원론, 제7장 성화 부분의 제 7절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카이퍼의 상급 사상을 지지하며 상급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취하였다. 그

207) *Ibid.*, 169.

208) 박형룡박사는 삼일운동이 있는 다음 해인 1920년에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여기서 그는 보수주의적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 중국 남경에 있는 금릉대학에 입학하여 1923년 이 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9월부터 1926년 5월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학하여 신학사(Th. B)와 신학석사(Th. M) 학위를 마치고 1927년 미국 켄터키주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1년간 박사 학위 과정을 하다가 일단 귀국하였으며, 평양 산정현교회 전도사로 시작하여 곧 이어 동사 목사(同事牧師)로 일했다. 그는 명 설교자로서 이름을 떨쳤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숭실중학교, 평양신학교의 강사로 일하면서 평양신학교의 대변지인 <신학지남>의 기고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1928년 4월 1일부터 평양신학교의 임시 교수가 되고 1931년 4월에 정교수로 취임하였다. 그 후 50년간 한국 보수 신학계의 대들보 구실을 하면서 정통신학을 확고히 붙들고 계승시켰다. 박형룡박사는 1933년 1월 7일 미국 남침례 신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은 변증학 분야였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메이첸 아래서 신학 교육을 받은 그는 성경관에 있어서 타협할 줄 모르는 장로교 보수주의자로 특징되며, 성경의 고등 비평을 악마로 여겼다. 또한 자유주의와 현대주의를 반기독교 운동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10-11.

는 성화의 과실로서 선행이 있고 선행은 상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상과 관련하여 선행, 공로, 상을 고찰하였다.²⁰⁹⁾

먼저 그는 선행의 성질을 다루었다. 선행은 성화의 과실이라는 것이다.²¹⁰⁾

눅 6:43-44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지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그는 선행을 종교생활의 내면적 수련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행동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선행을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행하는 세속적 의미의 선행(롬 2:14; 6:33)과 중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령적 의미의 선행을 구분하였다. 세속적 의미의 선행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에 속한 것이며 신령적 의미의 선행은 성화와 관련한 선행이라 하였다. 그러나 선행이 비록 성화와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이 선행은 신적 도덕률의 요구에 완전히 응답하는 행위 언약의 조건들 아래서 능히 영생의 상급을 얻게 할만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타락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사 64:6) 아무도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후사로 열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화의 과실로서의 선행은 자연적 행위와 도덕적 성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새롭고 거룩한 행위를 성경은 선행이라 칭한다는 것이다(행 9:36; 엡 2:10; 딤후 3:17; 딤편 2:14). 즉 신자의 선행은 중생한 마음의 과실(果實)이며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동기를 가진다고 하였다(마 7:17,18; 12:33). 또한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외면적 순응과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의식 순종이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의지를 행하려는 욕망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하였다(신 6:2; 삼상 15:22; 사 1:12; 29:13; 마 15:9). 나아가 그는 선행의 최종 목적은 사람의 안녕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였다(고전 0:31; 롬 12:1; 골 3:17,23).

박형룡 박사는 이어 이러한 선행에 공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

209)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366-377.

210) *Ibid.*, 367-368.

하면서 로마교회의 공로사상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카톨릭 신학의 공로 사상을 비판하고 선행의 비 공로성 교리를 확립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공로가 되려면 그 행위 자체의 내재한 가치와 존귀 때문에 교환법칙에 의 공의에 의해 당연히 상받을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납할만 하고 상받을 만한 행위도 엄밀한 의미에서 공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약 공로적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행위자에게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¹¹⁾

박형룡 박사는 이어 선행의 비 공로성을 다음 성경구절을 들고 있다.²¹²⁾ 눅 17:9, 10; 롬 5:15-18, 6:23; 엡 2:8-10; 딤후 1:9; 딤텔 3:5 등이다. 그는 특히 그 중 눅 17:10 말씀을 통해 피조물은 아무 경우에도 공로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며 공의에 의한 상의 청구권을 가진 행동을 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주인이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감사를 불러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박 박사는 비 공로성의 이유로 다음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²¹³⁾

- ① 신자는 그의 전 생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 공로를 세울 수 없다. 그가 그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때에라도 그는 그의 무를 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이다(눅 17:9,10).
- ② 신자는 자기 힘으로 선행할 수 없고 오직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요 15:5,6; 고전 15:10; 고후 3:5; 빌 2:13; 4:13; 겔 36:26,27).
- ③ 신자의 최선의 행위라도 금생에서는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으며 그들의 선행을 다 합할지라도 오직 부분적인 순종만으로 대표한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이하의 것으로는 만족되지 못한다(사 64:6; 약 3:2). 그리고 신자의 행위는 죄로 더러워지고 매우 많은 연약과 흠점으로 섞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을 견디어낼 수 없다(사 64:6; 시 143:2; 130:3; 갈 5:17; 롬 7:15,18).
- ④ 그 뿐 아니라 신자의 선행은 영광의 영원한 상에 비하면 전연 균형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현세적이며 불완전한 순종은 결코 영원적이며 완전한 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아니다. 또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무한한 거리가 있어서 신자들의 행위들로 하나님

211) *Ibid.*, 368-369.

212) *Ibid.*, 369.

213) *Ibid.*, 369-370.

을 유익하게 하지도 자기의 이전의 죄의 벌을 갚지도 못한다(롬 3:20; 4:2,4,6; 엡 2:8,9; 딤후 3:5-7; 롬 8:18).

박 박사는 이어 선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행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유신양론(有信仰論)을 비판하고 상의 문제를 다루었다.²¹⁴⁾

박 박사는 먼저 상에 대하여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인용하여 개혁파 저술가들이 상에 대하여 너무 오랫동안 등한시 하였다고 하면서 상급의 문제를 조직신학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그는 칼빈은 상에 관하여 많이 말하였지만 상의 약속이 행위에 의한 칭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방어하는데 대부분 할애를 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박 박사는 성경의 증언과 우리의 신도게요서(cf. Heidelberg Confession of Faith, Ch. X VI. Art)들도 약속된 상에 의하여 자유롭게 말한다고 하면서 상급을 강조하였다.²¹⁵⁾

박 박사는 상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 성경의 풍부한 증언들을 신구약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구약에서는 특히 잠언에 상급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잠 12:14; 10:6,7,22,27,29; 13:13; 16:31; 19:16; 20:7; 23:18; 25:21,22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한다고 하였다.

시 14:6; 33:18,19; 34:37; 37:5,6; 84:12,13; 94:14.

출애굽기 20:5,6과 이사야 26:7도 상급을 나타내 준다.

신약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들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였다.

마 5:12; 6:1-4,16,20; 눅 6:37,38.

박 박사는 주고받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서 여러 행위에 각자가 적당한 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이러한 순종이 행하여졌어도 사랑을 베푸는 때에 상을 받는다고 하였다.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없고 원수를 사랑하여야 상이 클 것이라 하였다(눅 6:33,35).

박 박사는 이어 상급의 동기를 비난하는 견해를 반박하였다. 상급의 동기를 비난하는 견해는 윤리적 행위는 선을 위해서만 선이 행해지는 것이지 선을 행했다

214) *Ibid.*, 372.

215) *Ibid.*, 373-377.

고 상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²¹⁶⁾

그러면서 박 박사는 신앙으로 칭의 된다는 교리와 상의 성경적 약속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어 박형룡 박사는 영생과 구별된 특별상이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코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즉 행위와 상 사이에는 적응(適應)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 선행에 생길 수 있는 공로마저 다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과 신도계요들은 이 행위와 상급사이의 적응성과 은혜성을 분명히 하였다 는 것이다. 신자들의 영생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니 은혜로 얻음이 분명하고 영생에 추가하여 받는 상은 선행에 기초하지만 이 역시 궁극적으로 은혜에 기초한 것이고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에 위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박 박사는 상의 은혜성을 롬 4:4의 말씀 곧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일반적으로 일과 품삯이 교환법칙으로 상도 공로에 기초한 것처럼 혼동하지만 성경의 구원론이 말하는 상은 결코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것이라 하였다.²¹⁷⁾ 이 부분에 있어서 박 박사는 대부분 벌카우워의 글을 인용하였다.

이렇게 박형룡 박사는 상급에 대한 공로사상과 경시사상을 다 비판하고 올바른 상급관을 가졌다.

12. 박윤선 박사²¹⁸⁾의 見解

216) *Ibid.*, 374.

217) *Ibid.*

218) 박윤선 박사는 1905년 12월 11일 평북 철산에서 태어나 18세까지 한학을 수학하다가 19세에 대동학교 6학년에 편입하였고 오산학교 신성중학교를 거쳐 1931년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성경 원어 공부를 하면서 1934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그 해 8월에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유학하여 메이첸의 지도로 신약학을 전공하였다. 1936년 신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종교 교육부와 편집실에 근무하였고 평양신학교 성경원어 강사와 고등성경학교 강사를 역임하였다. 1938년 재차 도미하여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언어학과 변증학을 연구하였고 귀국후 만주 봉천에서 시무하며(1940-45) 만주

박윤선 박사는 그의 공관 복음 주석, 신상수훈 주해에서 천국 상급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천국의 본질 중 보상의 문제를 다루면서 상급 무시사상과 상급에 대한 공로 사상을 배격하고 올바른 상급관을 제시하였다.

그는 상에 대한 보상을 복음서가 많이 말한다고 하였다. 마 6:1-4 을 보면 인간은 하늘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여야 될 것을 가르친다.²¹⁹⁾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만 선을 행하므로 상을 얻는 원칙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구원받는 것은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특수은총에 의하여 받는 것이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우리의 행위여하에 상관을 가진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되 역시 은혜의 법칙대로 하시어 인간의 공적보다 훨씬 넘치게 큰 영광을 주신다고 하였다.

박윤선 목사는 이어 천국상급의 동기에 대해 말하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함은 비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 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율자(自律者)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내세의 상급제도를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도록 장려하신다고 하였다(고전 9: 24 - 27; 딤후 4: 7,8).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자선 사업은 땅 위에서 보수를 바라지 않고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사람이 내세에 들어가 상급받기를 원하는 것은 결단코 비루(卑陋)한 것이 아니다.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상급으로 생각하여야 될 의존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신학원 신약교수로 재직하다가 해방 후 1946년 부산에서 부산 고려신학교 교장에 취임 1960년까지 봉직하였다. 1952년부터 1953년까지 네덜란드 자유대학에 유학하여 신약학을 계속 연구하였고 1953년 미국 웨이스 신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총신대학교 교수를 하였고 은퇴한 뒤 미국에 가서 주석집필에 전념하다가 1979년 총신대학원장에 취임하였고 학장서리를 겸하다가 1980년 학원소요에 따라 사임하고 그 해 설립된 합동신학원의 원장이 되었다. 1979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 40년에 걸친 저술활동의 결과로 20권의 주석을 완간하였다. 1988년 별세하였다.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88).

219) 박윤선, 「공관복음 (상)」(서울: 영음사, 1980), 202.

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는 생각이고 따라서 겸손한 태도이다.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도리어 교만이요 자기를 하나님과 대등시하는 혹은 자기를 하나님의 처지와 같이 높이는 교만이라 하였다.²²⁰⁾

그러나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 선을 행하는 자는 천국의 상급과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2)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명예를 위해 구제 사업을 하였는데 이제 사람의 박수와 칭찬을 받았으니 자기 상급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썩어질 상급을 받지 않으려고 가급적 자기 이름을 숨기는 것이다. 이는 내세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음을 얻고자 하는 까닭이다(눅 16:8, 9; 14: 12- 14). 내세의 상급을 믿는 사람은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함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갚으심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하였다(마 6: 3, 4).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좁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맞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좁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하늘에 쌓아두는 자들이다(마 6: 19, 20).

그리하여 주님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눅 14: 13 -14) 하신 것이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갚음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시상 원리에서는 선을 행한 자의 보상이 유대주의의 그것과 달라서 율법의 기계적 작용이 아니며 상리적 보상도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고라도 상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가르치신 것이다(눅 17:7-10). 의를 행하게 됨은 은혜요, 그것을 행한 뒤에 상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함이 예수님의 교훈이다.(마 24:47; 25:21,23; 10:41,42; 20:1-16; 눅 17:10 참조).²²¹⁾

박윤선 목사는 므나 비유에서 성경은 내세의 차등 상급을 분명하게 제시해준다고 하였다.²²²⁾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해석에서 공력이 남

220) *Ibid.*, 597.

221) *Ibid.*, 653.

아 있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공력이 불타서 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을 잃는다고 해석하였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음은 위기일탈의 위험을 피하여 겨우 구원을 받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런 확실한 말씀을 무시한 채 차등 상급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해석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다.

성도들이 내세에 누릴 영광의 차등은 상급에 대한 구절들에서 당연히 추론되지만, 특히 다음 몇 구절은 그 사실을 잘 보인다.

다니엘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마태복음 5:19,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칼빈, 매튜 풀, 데이빗 디슨, 매튜 헨리, 데이빗 브라운 등), 이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범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본다. 예수께서 강조하신 바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루어 왔으며 율법은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17, 18절) 우리가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중요하게 여기며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석가들은 본 절의 천국을 주께서 종종 의미하신 신약 교회를 가리킨다고 이해보았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해 박윤선 박사는 다르게 주석했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곧 진정한 신자들에 한하여서는 율법을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직접 관계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받을 영광의 크고 작은 문제에만 직접 관계를 가진다. . . .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의 일부분을 범한 자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였다. 그는 다만 천국에서 상급이 적은 것뿐이다. . . .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며 내세에 상을 받는다 (단12:3)".²²³⁾

222) *Ibid.*, 686.

223) *Ibid.*, 174-175.

박윤선 박사는 계시록에서도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상급약속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는 못되지만 내세에 이르러 반드시 상급을 받는다는 보상을 강조하였다. 그는 상급에 대한 성경구절들을 많이 들고 있다. 전 12:14; 마 16:27; 롬 2:6; 고전 3:13; 고후 5:10; 히 9:27; 계 20:12 등.²²⁴⁾

박윤선 박사는 그의 성경주석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상급의 풍부한 내용을 잘 소개하였으며 상급의 차등성과 은혜성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볼 수 있다.

13. 권성수 교수의 見解

총신의 권성수 교수는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신학 지남에 7 차례에 걸쳐 연재하였다. 또한 그는 이것을 모아 「천국의 상급」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²²⁵⁾ 그는 서론에서 상급 무시 경향의 네 가지 방향을 설명한 후 상급교훈은 성경 속의 금광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구약에서 상급교훈은 구약교훈 전체 속에 씨줄과 날줄처럼 짜여 있다고 하였다.²²⁶⁾

그는 또한 구약전체에 상급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문서화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상급교훈이 금맥을 형성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²²⁷⁾ 특히 유대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책인 마태복음, 히브리서 및 야고보서에는 상급구조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바울서신과 계시록에도 상급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사도행전과 복음서에도 역시 상급교훈이 각각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에 상급교훈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태복음의 상급 교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²²⁸⁾

이어 권교수는 본론을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산상 보훈의 상급론을 취급하였고 2부에서는 기타 본문에서 상급 교훈을 취급하였다. 1부는 상급의 차등(마

224) 박윤선, 「계시록」, 287.

225) 권성수, 「천국의 상급」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226) 권성수,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 연구(I)", 33.

227) *Ibid.*, 34.

228) *Ibid.*, 39.

태복음 5장 중심, 제2장)과 상급을 통한 동기 유발(마태복음 6장 중심, 제3장)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선교 강화에서의 상급교훈(마태복음 10장, 제4장),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의 상급 교훈(마태복음 20장, 제5장), 달란트 비유에서 상급 교훈(마태복음 25장, 제6장)을 순서대로 다루었다. 이러한 권성수 교수의 마태복음의 상급 교훈에 관한 연구는 상급에 있어서 공로사상과 상급 무시 경향을 배격하고 올바른 상급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상급에 관한 매우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제 4 장 천국상급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견해

제 1 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

지금까지 천국 상급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제 천국상급에 대한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주의는 칼빈의 개혁 사상에 근거하여 영국의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와 화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혁교회(reformed church)로 발전했다. 그러나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신학적으로 별개의 노선이 아니라 영국의 전통을 가지면 장로교회로, 유럽의 전통을 가지면 개혁교회로 나누어 호칭할 뿐이다.

그 중에서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요리 문답에 기초한 교리를 고백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영국 왕조와 분리된 의회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신학자 총회를 소집하여 영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의식, 권징, 정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여 가까이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나 대륙의 개혁 교회와 일치케 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참석자들은 151명으로 30명의 평신도 사정관과 121명의 목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이 장로교 소속을 갖고 있었다. 이 의

에 감독교회파와 독립교회파와 에라스티안파 등이 있었다.

대 요리문답은 주로 성인과 목사의 교리 교육과 설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각 조항을 더욱 자세하게 주석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소 요리문답은 대 요리문답의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작성되었다.

이 요리문답서들은 1647년 가을에 심사와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보내졌으며, 에딘버러 총회는 1648년 7월 20일에 대 요리문답을, 7월 28일에는 소 요리문답을 각각 승인하면서 이 두 요리문답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공인된 교리, 예배, 권징, 교회 정치에 위배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선언했다. 이 결정 사항은 1649년 2월 7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비준을 받기도 했다. 이와 같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표명하면서 오직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 독 노회에서 본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으나 1788년 총회를 창립하면서 정교분리원칙에 근거하여 일부조항(20장 4항, 23장 3항, 그리고 31장 1,2항)을 수정하였다.²²⁹⁾

한국교회는 이 수정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대. 소 요리문답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²³⁰⁾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 표준 문서로 채택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제라도 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각성하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 소 요리문답을 가르침으로서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으며 조직신학 전반에 걸

229) 나용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0), 6.

230) *Ibid.*

친 신학의 진수를 다 포괄하고 있다.

제 1 장 '성경'에서는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시된 진리를 "성경"에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에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성경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 권위는 전적으로 그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제 2장에서 5장까지는 신론을 다룬다. 2장의 '하나님과 삼위일체'에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다. 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 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신 것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를 다룬다.

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성(理性) 있는 불멸의 영혼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들은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할 능력도 부여받고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복을 누렸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다. 하나님의 섭리는 제 1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되어가는 방편 면에서 제 2 원인(자연법칙과 인류의 행동 원리와 기타)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밝혔다.

제 6장에서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이라는 인죄론을 다룬다. 인류의 시조(始祖)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이 범죄로 의(義)를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그들은 인류의 뿌리이므로 모든 후손들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罪責)이 전가(轉嫁)되어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이것이 원래의 부패성(원죄)이다.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自犯罪)들이 나온다.

제 7장과 8장은 기독교론을 다룬다. 제 7장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으며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복

과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첫 언약인 행위언약을 어겨 받을 수가 없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언약(covenant)을 맺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둘째 언약이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해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제 8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仲保者)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시고,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贖良)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함이 되었다. 8장은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전 생애와 그의 신인양성되신 인격과 그의 구속사역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제 9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루고 있다. 아담은 그의 타락 이전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었지만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를 신령한 선을 소원할 의지력(意志力)이 전혀 없어졌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고 또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령한 선을 원하게 하시며, 또 행하게도 하신다.

제 10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론을 다룬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놓으신 구속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해주시는 구원의 과정과 관련하여 신앙고백서는 먼저 유효한 부르심(중생포함)을 소개하고(10장) 이어 칭의(11장)와 양자됨(12장), 성화(영화포함)를 다루고 있다. 이는 롬 8:30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하여 그의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 등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다.²³¹⁾

그리고 나서 믿음(14장)을 다룬다.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의 중요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고 그에게서만 안식함이다. 그 목적은 은혜 언약대로 칭의,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룬다(15장).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죄가

231) *Ibid.*,88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계명대로 행하려는 것이다.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행(16장)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행들은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요, 또한 증표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앙고백서는 신자의 선에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으시고 갚아 주신다는 보상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다음에 신앙고백서는 궁극적 구원을 다룬다(17장). 구원받은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은 그들의 자유 의지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없는 선택(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적 기도의 효력, 및 성령의 내재(內在)와 성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씨, 은혜 언약의 신실성 때문이다.

구원의 확신(18장)을 다룬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인간의 반응(믿음과 회개)을 다루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과 연결시키는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구원의 단계를 소개한 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로 주신 율법을 다룬다(19장). 이는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무시하는 반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율법은 칼빈의 분류한대로 도덕법과 의식법과 국가법으로 나눈다. 도덕법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도덕율로서 아담의 범죄 후에도 의(義)의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하였지만(不成文律) 도덕률 자체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의 형태로 주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두 돌 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인간에게 대하여 우리의 행할 의무를 다루고 있다. 위의 도덕적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아직 미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적(儀式的)인 율법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인데 예배에 관한 것과 교훈에 관한

것이다. 모든 의식적 율법들은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 하나님께서 (옛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다. 그 법의 효용은 그 시대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끝났으나 그 법의 정신은 공정성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도덕법을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폐지하시지 않고 도리어 강화하셨다.

그 이어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다루며(20장),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 이어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다룸으로(21장) 인생의 본문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식일도 다룸으로 신약의 예배의 날인 주일성수를 강조한다. 안식일은 창세 이후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이레 중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레 중 첫날로 바뀌었다. 신앙고백서는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하면서 주일 지키는 방법으로 구약시대처럼 철저하게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안식할 것이며, 그 날의 모든 시간은 공예배와 사적 예배를 위하여, 또는 부득이한 책임과 자비 시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하였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규범으로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22장), 국가의 위정자(23장), 결혼과 이혼(24장)을 다룬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교회론을 다룬다. 먼저 교회의 중요성을 다루며(25장), 성도들의 교통(26장), 성례(27장), 세례(28장), 성찬(29장), 교회의 권징(30장), 공의회와 협의회(31장)를 다룬다.

32장과 33장은 종말론을 다룬다. 인간의 사후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32장), 마지막 심판(33장)을 다룬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제 1장 '성경'에서부터 33장의 '마지막 심판'의 종말론 부분까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다룸으로 성경 다음으로 중시되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로 사용되고 있다.

제 3 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상급사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천국상급과 관련된 내용은 제 16장 선행 부분과 제 33장의 최후의 심판 부분이 있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1. 제 7 장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난 상급사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신 상급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제1절에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순종한다고 해도 그 분을 인간들의 복과 상급으로 모실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서 친히 자원하여 낮아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covenant)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행위 언약"을 첫 사람 아담이 어김으로 행위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을 주셔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과 구원을 거저 주셨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도록 하였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주신 것이다.

신약에는 구약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시대이므로 언약 실시의 규례로서 설교와 성례(세례와 성찬)를 기본적으로 강조한다.

7장에서 나타난 상급사상은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지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상급을 주장할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강조한다.²³²⁾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무슨 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2. 제 11장 칭의에 나타난 상급사상

232) *Ibid*, 60.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이 은혜로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이다. 신앙고백서 11장 1절에 이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義)를 주입(注入)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라고 불러 주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義)와 및 그의 만족한 속상(贖償)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이다.

이 칭의에는 종말론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있을 최후의 심판을 미리 앞당겨 지금 의인으로 칭의를 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비록 아직 상태 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미리 통과해 놓은 것이다.²³³⁾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는 앞으로 형벌심판은 없다. 오직 상급심판만 있을 뿐이다.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의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의에서 찾기 때문에 신자들이 받을 상급도 이 칭의에 근거한 의(義)인 것이다.

신앙고백서 2절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게 하는 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케 하는 것이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죄에 대한 죽음으로 순간적으로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지며

233) *Ibid.* 93.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²³⁴⁾

신앙고백서 제3절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칭의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으므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지 신자들의 공로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그 결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성부께서는 값없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만족한 속상(贖償)을 값없이 그들 대신으로 수납하신 것이다. 이따라서 그들의 칭의(稱義)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칭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임을 신앙고백서 제4절에서 밝히고 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인하여 죽으셨다가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의롭다 함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실제로 적당한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실시하심으로 비로소 실현된다.

칭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적용으로 신자가 칭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며 한번 이루어진 칭의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임을 신앙고백서는 5절에서 밝히고 있다.

의롭다 하심이 된 자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범죄한다 해도 칭의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은 없다.

3. 제 13장 성화에 나타난 상급사상

234) *Ibid.* 94.

성화는 중생되고 칭의받고 양자된 신자가 거룩한 사람과 인격과 거룩한 삶으로 결정적으로 혹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화의 결과에 따른 선행과 선행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는 면에서 상급에 있어서 신앙고백서의 성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신앙고백서 13장 1절은 성화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효과적인 부름을 받고 중생된 자들은 새로 지어 주시는 마음과 영을 소유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실제로, 개인 인격적으로 성화(聖化)되어 간다. 그들이 받는 이 성화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덕(功德)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및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현된다. 성화의 내용은, 그들에 대한 죄악의 지배 관계가 전체적으로 멸절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죽어가는 동시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생명과 힘을 얻게 되어, 점차 그들의 실생활에 성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성결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

신자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대속공로와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는 죄가 멸절되고 정욕이 멀해지며 생명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신앙고백서 2절은 이 성화의 과정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며 지상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성화는 신자의 인격에 전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금생에는 불완전하여 그의 모든 지체에 부패의 어떤 잔재(殘滓)들이 남아 있다. 거기서 화해 없는 전쟁이 계속 일고 있으니, 육체의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제어 하시는 전쟁이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루는 성화의 과정 속에 신자는 전적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급을 주실 것이다.

4. 제 16 장 「선행」에 나타난 상급교훈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무엇보다 제 16장의 '선행' 부분이 상급교훈

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

선행에 대한 보상 교훈은 제6절에서 소개하고 있다.

신자들의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납(嘉納)이 된 이상 그들의 선행들도 가납이 된다. 선행이 금생(今生)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의 선에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으시고 갚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인격을 받은 이상 그들의 선행도 받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록 그 선행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였으면 그 선행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말하는 선행과 다른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대로 된 것”임을 1절에서 정의하고 있다.

성경 말씀의 보장 없이 단지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에 의하여 고안된 것은 선이 아니며, 또 혹은 단지 선의(善意)의 위장(僞裝)이 되므로 선이 성립되지 못한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선행은 진정한 선행이 아님을 7절에서 밝히고 있다.

어떤 행실이 그 자체로서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합하고 자타(自他)에게 유익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으로 정결해진 마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그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된 것이 아니며,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 행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신자의 선행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람이 그런 정도의 선도 행치 않을 경우에는 더욱 죄가 많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고 하였다.

제 2절에서는 선행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행들은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요, 또한 증표라는 것이다. 신

자들이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나타내며,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신앙고백을 명예롭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제 3 절에서는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 외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그들이 그의 기쁘신 뜻을 원하게도 되고 행하게도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신앙고백서는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는 때에도 선행에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는 때에는 어떠한 책임이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태만해져서는 안된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듯이 일으키려고 부지런히 선행을 힘써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가 선행을 힘쓴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4절에서 강조한다.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책임 이상으로 또는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많이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해야 할 책임에서 대단히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신자가 아무리 선행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한 것일 뿐 아무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5절에서 강조하며 선행 및 그에 대한 상급의 공로사상을 배격한다.

우리의 가장 선한 행실들도 하나님에게서 사죄나 영생을 받게 하는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한행실들과 내세의 영광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으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처지가 못 되며, 또한 그것으로써 우리의 죄악의 빚을 속상(贖償)할 수도 없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이행한 것뿐이고,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따라서 제 16장의 '선행'에 나타난 상급교훈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상급을 강조해준다. 이 선행은 일반인들이 행하는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른 선행이며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인격을 받을 뿐 아니라 신자의 선행도 받으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을 주장할 수 없음은 이 선행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이며 자기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선행에 대한 보상을 강조함과 동시에 상급의 은혜 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 제 33 장 「마지막 심판」에 나타난 상급교훈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 심판' 부분에서도 성경의 상급교훈을 잘 소개하고 있다.

제 1절에서는 심판자와 심판의 대상 및 심판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그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 간에 보응을 받게 된다.

여기서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며 심판의 대상은 사람 뿐 아니라 천사들도 다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한다. 심판 날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해야 하며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 간에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다.

제2절에서는 심판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악하고 거역하는 불 택자들을 영원히 정죄하시는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그 때의 의로운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존전에서 임하는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던지워져 거기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택한 자나 불택자나 다 심판하시지만 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구원하시고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 33장 ‘마지막 심판’ 부분도 신자의 행위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음을 강조하고 그것은 공로가 아닌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외에도 웨스터민스터 대 요리문답, 소 요리문답, *Belgic Confession*, Art. 34. 와 *Heidelberg Catechism*, Question 63. 에 천국상급에 대한 교훈이 잘 나타나 있다.

제 5 장 천국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1)

지금까지 천국 상급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성경에는 차등 상급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나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공로 사상을 우려하여

성경에 나오는 차등 상급을 구원으로 해석하여 신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동등 상급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그들은 상급의 내용 중 영생에 대한 약속들이 나오니까 영생은 누구나 받는 동등한 상급이므로 차등 상급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학적 이유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충성한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의 풍부한 내용들을 왜곡시켜 온 것이다. 이에 비해 카이퍼를 비롯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상급의 차등성과 은혜성을 균형있게 다룸으로서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서들도 약속된 상을 지지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 천국 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해보자. 천국상급에 대한 기독교적, 구원론적 교회론적, 종말론적 고찰과 윤리적 고찰을 통하여 상급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 절 천국상급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상급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은 상급의 수여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이루신 그의 의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상급을 나누어주신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신자가 감당하는 실력의 차이를 차등 상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상급 및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상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의 구속과 상급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중보자로서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우리 자리를 대신하셨고²³⁵⁾ 우리로 하여

235) *Inst.* 2, 16, 7.

금 형벌 받아 마땅하게 한 그 죄책을 자신에게 전가시켰다.²³⁶⁾ 칼빈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통의 성질을 하나님의 원한, 진노 또는 증오를 담당하신 것이라 하였다.²³⁷⁾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채찍으로 맞으셨다는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었고 하나님께 속상(贖償) 또는 만족(satisfaction)을 드리셨다는 것이다.²³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은 그의 구속의 공로는 주신 사죄함과 칭의와 영원한 새 생명이다. 예수는 피 흘려 백성들을 구원하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영원한 상급을 나누어주실 것이다.

1) 동등 상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입혀주신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은 신자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 상급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원과 같은 것이다. 범 죄한 인류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겨 그의 계명으로 살도록 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속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양이 피 흘려 죄를 속량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가 제거된 것이다.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원죄가 되었으므로(롬 5:12),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롬 5:19).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의인이 된 것이다(롬 8:1-2).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롭게 하신 칭의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함으로 이루신 의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죄인된 우리들은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236) *Inst.* 2, 16, 5.

237) *Inst.* 2, 16, 11.

238) *Inst.* 2, 12, 3.

우리의 의로 삼게 된 것이다(롬 5:18-19).

피가 죄를 속하므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의가 된다(롬 3:25-26). 피 흘려 죄에서 구속함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의에 이르게 되었다(롬 3:26).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까지 이른 순종으로(빌 2:8) 모든 계명을 다 성취하셨다(갈3:13). 율법이 그 범한 대가대로 사망을 요구하므로 이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 계명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획득하여 그를 믿는 자들의 의가 되게 하였다(롬 5:18-19).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를 획득하였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삼았으므로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의가 된다(고후 5:21).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요3:16; 롬 5:17).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요 3:16).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젖값을 지불하고 피로 사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고 그를 믿는 자들만이 영생을 허락받는다. 영생에 이르는 단 한 가지 조건은 이 생명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의가 되어(롬 4:24), 영생에 이른다(요 11:25-26).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차등 상급이 아니고 동등상급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요 1:12).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에 동참하게 하셨다(롬 8:17).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런데 만물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으므로 그리스도의 상속에 동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엡 3:6). 그리스도와 동등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2) 차등 상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주신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받는다는 면에서 동등상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은 동등상급에만 머무르면 구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자신이 실지로 입고 산 실력에 따라 차등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고 죄를 이기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신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우리 믿음의 창시자(‘아르케곤’)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심판 날에 영원히 주실 것이다(딤후 4:8).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는 환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며(계 2:10),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벧전 5:1, 4).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주에 살게 될 것이다.²³⁹⁾

그러므로 신자들이 믿음의 순종생활의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차이가 난다는 차등 상급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순종의 결과에 따라 하늘에서 영광도 다르며 상급도 다른 것이다.

2. 그리스도의 3 중직과 상급

그리스도의 중보직은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이지만 우리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명을 위임받았다. 신자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직의 실력을 갖춘 만큼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중보직의 실력도 하나의 천국상급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3중직의 의미

239)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275.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 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다. 구약의 제사장(출29:6-9), 선지자(왕상17:16), 왕(삼하12:7) 은 그 직책을 맡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으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다. 예수님은 영원전 이 이름과 이 직책을 가지고 계셨다.

엡1:4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 중보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시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직분을 박탈당하였다.²⁴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2 아담으로 세워지고 아담에게 부여된 삼중직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의해 합당하게 이 직임이 회복되었다. 이 회복이 새 인류에게 전이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 중직을 새 인류인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직분은 우리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서 나를 제사장, 선지자, 왕 직분의 온전자 만드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3 중직의 내용

(1) 선지자 직

240) 서철원, 「기독교론」(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166.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은 첫째 선지자직분이다.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심은 그가 모든 신 계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모든 하나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고,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되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시다.

요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곧 참 하나님이신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소 요리문답 24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가르쳤다. 그리스도 자신이 구세주이고, 구원을 위해 고난의 종으로 죽으므로 속죄를 이룰 것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다. 그리하여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은혜로, 곧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그는 그의 인격과 구원사역을 바로 알고 믿도록 역사하여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며 진리의 바른 지식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처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시다(눅 24:19).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있게 선포하셨고(마 7:28-29), 이루시며(마 5:17; 요 19:20),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신 것이다(요 1:18).²⁴¹⁾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 계시를 증거하셨고(벧전 1:11),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말로 가르치고 몸으로 행하여 진리를 선포하셨으며(눅 24:19; 히 1:1-3),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다(요 16:13-15).²⁴²⁾

241)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206.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우리 신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신자의 선지자 직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전 4: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야 한다.(행 1:8). 그러므로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피조물에게 전달하는 직책이다. 우리 신자들도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맡아 피조물들에게 전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을 피조물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본인이 하나님이 충만을 받아야 한다. 받는 방법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2) 제사장 직

그리스도의 직분은 또한 제사장 직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이나 권세나 존귀나 모든 것이 다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 무한하신 부요를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셔서 십자가 못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25 문답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들을 인하여 바쳐진 화목제물의 역할

242) *Ibid.*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피로 자신을 성결케 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²⁴³⁾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자기 피로 성결케 하시고 영원한 대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들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을 드리기를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셨다. 칼빈은 히 5:9의 텔레이오테이스(**teleiwqei;**)를 ‘성결케 되었은즉’으로 번역하여 요 17:19의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와 연결되어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통해서 그의 영원한 대 제사장이 시작된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의 죽음이 가장 엄숙한 종류의 성결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²⁴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막 10:45),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유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영원한 대 제사장이시다(히 7:24-25).²⁴⁵⁾ 그는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히 8:1; 롬 8:34), 그의 이룩한 구원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적용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그의 구속이 확실한 구원이 되게 하신다. 구속의 적용이 소명이고 사죄에 대한 칭의이다. 이 일은 인류역사의 끝까지 진행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과와 혜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⁶⁾

성경은 신자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됨을 증거하고 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잘 화목하게 하여야 한다.

243)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17.

244) 「칼빈주석」, 히 5:9,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17-18.

245)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207.

246) *Inst.* III. 15. 6.

우리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고후 5:18-19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

(3) 왕직

그리스도의 세 번째 직분은 왕직이다. 왕직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사이의 중보직이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26문답은 그리스도의 왕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문: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여 이기심으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표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사 9:7; 히 1:8). 그는 자연계를 복종시키시고(요 1:3; 골 1:17)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의 왕권을 나타내시며(골 1:8)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셨다(빌 2:9-10).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다스리신다(고전 15:55-57).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마 8:16-17), 사단을 제어하신다(마 4:11; 계 20:2-3).²⁴⁷⁾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직분이 한 사람에게서

247)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208.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이다.²⁴⁸⁾ 그는 제사장이자 동시에 왕이신 것이다. 스가라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환상에서 두 개의 면류관을 썼는데 하나는 왕관이요, 다른 하나는 제사장관인 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성취될 수 있었던 동일 인물에게서의 왕권과 제사장직의 연합을 의미한다.²⁴⁹⁾

예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왕권을 탈환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마 28:18). 그리스도는 피흘려 자기 백성을 사서 나라를 삼으셨다(계 1:5-6; 5:9-10). 이 은혜의 통치는 각 개인에게서 죄의 제거로 성령 오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좇아 우리로 살게 한다.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왕직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통치로 피조물을 거느리고 보호하고 다스리므로 피조물을 복되게 하는 직책이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지고 단일성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를 모든 존재들에게 잘 전달하여 자존자 하나님 한 분의 법칙에게 모든 것들이 다 피동 되어서 완전 정치의 단일 정치가 이제는 통일 정치가 되어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직책이다.

벧전 2:9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였다.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왕이나 제사장의 신분이 필요없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할 직분을 맡았다.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우리가 확대한다.²⁵⁰⁾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므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시행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진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법이 시행되게 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확대한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복음의 권세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넓히고 확립한다. 그리하여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계 11:15).

248) 「칼빈주석」, 속 6:11.

249) 「칼빈주석」, 속, 6:9-11.

250) 서철원, 「기독론」, 173.

3)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상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골3:3)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골3:1).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고(골3:3),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난다고 하였다(골 3:4).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왕적 제사장 직분을 성취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되 자기의 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의 대리 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직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의 몸인 교회가 이같이 아주 밀접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이 마치 그의 지체들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머리와 지체 간에 존재하는 밀접한 교통의 결과로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적합한 표현이 우리에게도 적용된 것이다.²⁵¹⁾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승리를 얻은 때에 교회도 이미 승리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며 당장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세가지 직분인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3직인 제사장직, 선지직, 왕직을 잘 감당하여 이 땅 위에서 이 그리스도의 실력을 길러가야 한다. 피조물 중에 최고 최귀한 영광된 실력은 그리스도직의 실력이다.

이 그리스도의 3직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영원무궁한 세계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이 때 다스리는 실력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3 중직을 잘 감당한 것만큼 그 나라에서 실력있게 다스릴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 2:26).

251) 「칼빈주석」, 단 7:27.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3중직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긴 성도들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제 2 절 천국 상급에 대한 구원론적 고찰

1. 구원과 상급

지금까지 상급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대로 많은 신자들이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지 못하여 상급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하고 공로사상에 빠지거나 상급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구원과 상급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다.

1) 구원의 의미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는 명사 ‘소테리아’(swthriwa)와 동사 ‘소조’(swvzw)가 있다. 이는 신이나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소테리아는 신약성경에서 45회 나타나며, 개역 한글판은 모두 ‘구원’, NASB는 구출(2회), 보전(1회), 구원(42회)이란 의미로 번역했다. ‘구원하다’(save)는 소조는 252) 신약성경에 나오는 ‘소조’ 동사는 108회 나온다.

(1) 구원은 육체적 위험과 죽음 및 질병으로부터 구출이다.

제자들은 마 8:25의 풍랑에 빠졌을 때 "주여 구원하소서"하고 울부짖었다.

마 14:30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다.

252) TDNT, VII, 969.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방관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막 15:29이하; 마 27:39 이하).

눅 23:39에 의하면 그들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했다.

요 12:27의 겻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기도하셨다.

이 기도는 히 5:17에서 반영되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행 27:20, 31, 43에서 소조는 바울의 난파에 대한 기사에 선원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 구절들에서 문제의 구원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구원은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에서는 항상 전인(全人)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믿음은 치유의 성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을 유효하게 만든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 9:22; 막 5:34; 10:52; 눅 7:50; 8:48; 17:19; 18:42, 48). 악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 치유 행위는 사도들의 행위로 계속되었다. 이 병 고침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되었다(행 4:9이하).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 행 14:9이하에서 바울은 앓은뱅이를 고칠 때 "구원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다. 약 5:15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2)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라는 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 1:21에 예수님의 이름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마 16:25, 눅 9:24에서 종말론적 구원에 대하여 언급한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선언하셨다.

막 10:26; 눅 18:16; 마 19:26에서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말씀에 이어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구원은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들을 초월한다. 공로나 공적에 근거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다. 더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법칙도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행동에 의해 제한된 것이다.

눅 19:9이하에서 부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은 소테리아의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막 10:27). 구원은 완전히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한다.

초대 교회의 선포에서 ‘구원’이 복음의 기초이며, 내용이며, 목표이다.

행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라고 선언하였다.

이 구원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온다(롬 1:16 참조: 고전 1:21). 구원의 대상은 ‘프쉬케’(목숨)이 아니라 인간의 전(全) 존재거나 프뉴마(영)이다(고전 5:5).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엡 2:8).

(3) 구원은 시제상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성경은 구원은 이미 성취된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장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²⁵³⁾

① 성취된 구원

성경에 신자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한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마 9:22; 막 5:34; 10:52; 눅 7:50; 8:48; 17:19; 18:42, 48)고 말씀하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심으로 받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는 이미 받은 구원으로 중생을 말씀하고 있다.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요 3:2; 엡 2:1). 또 이미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롬 3:20)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요 1:12)와 사죄함을 받은 것이다(롬 8:1).

②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성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성화를 말한다.

빌 2:12 -13에 이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

253) 이 세가지 의미의 구원은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274-275. 하문호, 「기초 교의신학 V 구원론」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83), 45-5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을 보존하며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죄아래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성향과 죄로부터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바꾸어야 하며(갈 5:17), 날마다 죄의 성향과 싸워야 한다(롬 7:17-25). 이거이 성화의 과정이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롬 6:18),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 6:13).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의가 왕노릇하게 하여야 한다(롬 5:21). 그럼에도 이 죄성이 계속 남아 있다. 우리 신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

③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은 부활과 심판시의 상급과 영화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음이 왔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고전 15:51). 또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상급을 받으며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계 21:26).

2) 구원과 상급의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성경 에베소서 2장 8-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행위는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다.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따라서 신자들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다(벧전 2:22-2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행위의 문제가 대두된다.

앞서 살펴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가리킨 엡 2:8-9의 말씀에 이어 엡 2:10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문에서 행함의 약속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²⁵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전 5:10).

우리의 행함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254) Theodore H. Epp, 「신자의 헌신과 보상」, 홍관옥 역(서울: 바울서신사, 1991), 11-12.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죄의 심판이고 다음은 상급의 심판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므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의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다. 신자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대는 행위 따라 상급을 주시는 상급 심판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1:12).

이방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계 11:18).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장 41-42절).

하나님께서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일한 대로 각 각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계 22: 12).

구원과 상급의 또 다른 구분은 구원은 기초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급은 재료에 해당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10-1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 둔 구원이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나무나 풀, 짚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 집을 지은 행위에 대한 심판은 불로서 한다고 하였다. 불이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고 없어지면 해를 받는데 이런 사람은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 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고전 3:13 - 15).

여기서 공력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구원은 얻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상급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달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위하여 달음질하고 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우리 성도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급을 위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며 달음박질 하여야 한다.

2. 믿음과 상급

신자의 믿음 생활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상급은 믿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은 칭의에 있어 믿음이 도구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²⁵⁵⁾ 이는 성화와 상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은 칭의의 공로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화와 상급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 다만 도구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을 받은 선행은 오직 믿음을 통한 행위여야 할 것이다.

1) 믿음의 의미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pivsti", faith)는 '신뢰', '확신', '확실성'을 의미한다. 명사 피스티스는 70 인 역본에서 약 55회 나오며, 주로 히브리어 에무나(경고, 충실, 성실, 확고부동의 믿음)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명사 피스티스는 신약성경에서 약 230회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²⁵⁶⁾

255) G. C. Berkower, *Studies in Dogmatics: Faith and Sanctification*, Translated by Lewis B. Smede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4), 33.

256) Walter Bauer; A.Weiser; O.Michel, *TDNT*. 6, 174-228.

(1) '피스티스'는 '신실성', '신뢰성'을 의미한다.

마 23:23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롬 3:3 딤후 2:10 갈 5:22 살후 1:48.

(2) '피스티스'는 '엄숙한 약속, 서약'을 나타낸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딤후전 5:12).

(3) 피스티스는 '증거, 보증'을 의미한다.

행 17: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딤후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4) 피스티스는 대상에 대한 '신뢰, 확신, 믿음'을 나타낸다.

① 하나님에 대하여

막 11:22 벰전 1:21 히 6:1 살전 1:8 롬 4:5,9,11-13,16,19이하 등.

②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 4:40; 5:34; 8:10; 9:2, 22, 29; 10:52; 15:28; 막 2:5; 눅 5:20; 7:9, 50; 8:25. 48; 17:19; 18:42; 롬 3:23, 26; 갈 2:16, 20; 3:22; 엡 3:12; 빌 3:9; 약 2:1; 계 14:12.

(5) 피스티스는 '신앙의 내용, 교리'를 나타낸다.

롬 1:5; 12:6; 갈 1:23; 3:23이하; 딤편 1:19; 4:1, 6; 6:10; 딤후 2:18; 딤후 4:7; 유 1:3, 20.

2) 믿음의 의의

1)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신인양성일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입혀주신 구원이다. 이 대속의 구원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대형) 죽으심으로 죄용서(사죄)를 주신 것과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심으로(대행) 의를 입혀주신 칭의와 하나님과 불목된 것을 하나님과 화친시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²⁵⁷⁾

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롬 1:17).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요 1:12), 부활을 보장받게 되었다(롬 8:11).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대속에 팔린 예수님의 것임을 믿고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주장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살 때에 지극히 큰 능력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이다.

2)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내주하여 사기는 것이다.

요일 5장 1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

257) 서철원, 「기독교론」, 177-180.

나라.

그리스도가 내주해 계시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²⁵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 5).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가르쳤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3) 믿음은 성경 육십 육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과 계약으로 약속되어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실상으로 내 것을 삼아 영원히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행함이다.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으로 인정한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마음으로는 믿지만 몸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행치 않는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이요 알고 행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의 순종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약2:26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셨다.

3) 믿음에 따른 상급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살아야 한다(유 20). 우리 성도는 날마다 집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다음 재

258) L. Berkhof, 「별콧 조직신학 구원론」, 78-79.

료는 믿음이다. 믿음은 곧 순종이요, 복종이요 신뢰이다. 다음에는 주님을 모실 신령한 집을 지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격,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항상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최후의 심판 날에 믿음을 따라 신령한 집을 건축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좇아 행한 일들만 가치 있게 여기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는 인내하는 믿음에 따라 상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에는 상급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용어로 상급을 묘사하는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히 3:7 -4:1),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음'(히 11:17, 40), '축복을 기업으로 받음'(히 11 :9. 12:17), '한 성을 예비하심'(히 11: 16),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히 12:2) 등이 그것이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사람들은 장차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나라와 마련된 성을 고대하며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다. 모세도 애굽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장차 상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히 6: 12

계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주님과 그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한다.

히 10: 35-36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1장 또한 천국의 상을 받는 삶의 종류를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이들도 있고, 심한 고통을 당한 이들도 있다. 모두 장차 받을 유업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증거를 거듭 받았다.

3. 칭의와 상급

신자가 받을 상급은 결코 신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그의 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칭의를 주셨고 그 칭의에 근거하여 순종을 통하여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1) 칭의의 의의

칭의는 헬라어로 의롭게 하는 ‘디카이오오’(δικαιοω, justify) ‘옳다고 간주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정당하다고 인정하다’라는 뜻이다. 이 동사 ‘디카이오오’는 70인 역본에서 약 45회 나오며 주로 히브리어 차다크(올바르다, 공정하다, 의롭다)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또 동사 디카이오오는 신약성경에서 39회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거의 항상 법적인 관련이 나타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대속적 배상에 의한 그의 의를 예수 믿는 신자에게 전가해 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롬 3:24; 8:30).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 11장 1절에서 이 칭의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義)를 주입(注入)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기쁘게 받아 주심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라고 불러 주심이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취하신 의(義)와 및 그의 만족한 속상(贖償)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이다. 이 믿음 그것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칭의는 사람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밖에서 온 것이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며 주입된 것이 아니고 전가된 것이며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법정적인 것이다. 이 칭의로 인해 신자들은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이다.

이 칭의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서 심판과 형벌을 단번에 면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성품적으로나 실질적인 상태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다. 그리하여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삶을 살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칭의는 믿는 즉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 면에서는 과거적이며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므로 관계 인격 면에서 현재적이며 마지막 심판을 통과한다는 면에서 미래적이다.²⁵⁹⁾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를 선사하였다.²⁶⁰⁾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 획득한다. 모든 인류는 다 범죄하여 멸망을 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리하여 제 2 아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므로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롬 5:18-19).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의 공로로 의에 이르게 된다(롬 3:2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이 의가 되어(롬 4:24), 영생에 이른다(요 11:25-26).

이 칭의는 믿는 순간에 선언되는 순간적인 신분의 변화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일평생 유효한 것이다. 이 칭의는 행함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에서 온 것이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의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2) 칭의받은 자에게 주시는 상급

259)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259.

260) 서철원, 「기독교론」, 179.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칭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도 받게 된다. 신자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은 신자의 신분도 의인으로 간주하실 뿐 아니라 신자의 선행도 의로 간주하신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칭의에 근거하여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자들을 단번에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형벌 심판을 면케 하시며(롬 8:1), 대신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약속해 주셨다(딤후 4:8). 신자들은 자신의 인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장차 마지막 날에 받을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롬 2:10, 13).²⁶¹⁾

그리스도가 나누어주신 상급을 영원히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구속받은 신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또한 칭의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요 1:12; 롬 8:15; 갈 4:4-5).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후사로 상속받게 된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중보자가 되신 아들로써 하나님이 창조의 상속자가 되셨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상속에 동참하게 된다(롬 8:17). 그리스도와 동등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케 하신다. 그와 함께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자녀이므로 하늘나라를 다 상속받지만 주와 함께 고난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광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유업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유업이다. 바울은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유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261)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25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tevkna)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한 후사(klchronovmoi me:n qeou')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상속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다. 여기서 '후사'는 헬라 원어로 '성클레로노모스'(sugklhronovmo")로 공동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는 가 받는 유업은 동참하지 않은 자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4. 성화와 상급

성화의 열매가 선행이며 선행의 결과에 대해 주시는 것이 상급이다. 따라서 상급은 선행과도 연관이 있지만 선행의 뿌리가 되는 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성화된 만큼 선행이 나오는 것이지 성화와 상관없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한다.²⁶²⁾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화가 없이 겉으로 보기에 선행을 많이 했다고 상급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행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외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화의 의미를 알고 성화를 바로 이름으로 선행을 행해야 할 것이다. 이하 성화의 필요성과 의미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1) 성화(聖化, 거룩하여짐; sanctification)의 필요성

성도가 거룩한 삶과 선행을 힘써야 할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히 큰 은혜를 입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뜻을

262)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316-317.

살아가야 할 것이다.

로마서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전서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2) 성화의 의미

(1) 성화는 거룩하여지는 과정이다.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실제적으로 그 인격과 삶이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말한다.

장로교의 기본이 되는 교리인 소 요리 문답에서는 성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 요리 문답 35문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의 일인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全人)이 새로워지고,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됩니다.

성화는 전인(全人)이 새로워지며 지정의(知情意)의 전(全) 인격, 전(全) 생활이 죄에 대해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이다. 죄는 죄책과 부패성으로 구성

된다. 칭의는 우리의 죄책이 법적으로 제거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부패성이 실제로 극복되는 것이다. 칭의는 외적, 객관적 사건이지만, 성화는 내적, 주관적 사건이다. 성화는 사람의 전 인격과 삶의 실제적 변화이다.²⁶³⁾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법적인 의(義)를 성도들이 인격과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거룩해졌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실제적으로도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²⁶⁴⁾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화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을 때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드시는 목적을 정하신(엡 1:4) 것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만물을 예정 창조 섭리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성화는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성도들은 일생의 성화 과정을 통해 거룩과 의, 선과 사랑, 진실 등의 도덕성이 자라가는 것이다.²⁶⁵⁾

레 11:45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9:2).

엡 1:4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화는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자기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닮아 가는 것이다.

263) L. Berkhof, 「별쿱 조직신학 구원론」, 248-249.

264) *Ibid.*

265) *Ibid.*, 248.

엠편 4:22-24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 3: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살전 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벧전 1:15, 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을 원형으로 한 그 형상을 덧입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분량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맡길 수가 있다. 우리가 변화를 받은 것만큼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2)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성화는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다.²⁶⁶⁾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니 그 사역에 의하여 중생할 때에 부여된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어 거룩한 수련이 진행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되었고(중생) 은혜로 구원되고 있다(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며(살전 5:23; 히 13:20-21),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실(요 15:4; 갈 2:20; 4:19; 엠편 4:25)이며 내면에서 시작되는 사역이므로 사람의 일이 아니다(엠편 3:16; 골 1:11).

그러나 성화는 중생과 달리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고후 7:1; 골 3:5-14; 벧전 1:22).

이 하나님의 사역과 사람의 사역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성구는 빌 2:12 -13이다.

266)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34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화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사람이 순종한다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고 부분적으로 사람이 함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도 사역하시고 우리도 사역한다고는 말할 수 있다. 우리 편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신 결과이니 행함을 제외하는 소원도 아니요 소원을 제외한 행함도 아니라 소원과 행함이 함께 함이다.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다.²⁶⁷⁾

3) 성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중생된 자는 자라가게 되어 있다. 중생한 사람이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 한다. 중생과 성화는 출생과 성장의 관계로 말할 수 있다.²⁶⁸⁾ 성화는 중생에서 심겨진 새 생명의 원리를 정화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영혼의 모든 기능들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역이다.²⁶⁹⁾ 중생이 새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성화는 그 씨앗이 자라가는 과정이다. 자라가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한다.

엡 4:13, 1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벧전 2:21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267) J.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184.

268)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Judson, 1976), 871.

269) A. A. Hodge, *Outline of Theology* (Zondervans, 1977), 521.

하러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하나님의 충만을 모든 만물들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보자의 직책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으로 자라 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이다.

이 성화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며(엡 4: 22-24) 주님의 사활대속의 공로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엡 4:15) 것이다.

성화는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영혼은 죽음에서 완전케 되며 육체는 종말에 부활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가 없음을 가르친다(왕상 8:46; 잠 20:9; 롬 3:10; 약 3:2; 요일 1:8). 반면에 세상을 떠난 자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히 12:23), 흠이 없는 자들(계 14:5)이라고 말한다.²⁷⁰⁾

3)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중생, 회심 및 칭의는 단회적(單回的)이지만 성화는 중생과 회심에서 시작되어 일평생 계속되는 점진적 과정이다. 중생이 영적 출생이라면 성화는 영적 성장인 것이다. 육신적으로 출생 후에 점진적인 성장이 따르듯이 중생 후에 점진적 성화가 따른다. 성도의 생애는 성화를 위한 한 훈련 과정과 같다. 성화는 구원의 당연한 열매이므로 필연적이다. 육신의 출생에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은 육신의 성장이다. 영적으로도 그러하다. 성화는 반드시 중생, 회심, 칭의를 따른다. 성화의 단계는 다양할지라도 성화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

롬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히 12:14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270) 하문호, 「기초 교의신학 V 구원론」, 312.

못하리라.

그러나 J. Murray교수에 의하면, 성화의 개념을 전적으로 점진적인 과정의 성격으로만 설명하려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성화를 가리키는 가장 특징적인 용어들은 점진적인 성격의 것보다, 한순간의 결정적인 역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²⁷¹⁾

Murray 교수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결정적 성격을 띠고 있는 성화의 역사를 '결정적 성화'라고 불렀다. 이 Murray교수의 결정적 성화교리를 총신의 김광열 교수는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완전주의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극복하는 새로운 교리라고 평가하였다.²⁷²⁾

중생, 칭의, 양자 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는 영적 축복이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단번에 성취되고 적용되게 하는, 성화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단회적인 역사가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⁷³⁾

바울은 로마서 4, 5장에서 칭의의 은총을 입은 신자는 결정적으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은총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신자에게 주어지는 '죄에 대해 죽음'의 사건은 '죄의 몸이 멸함'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되는데(6:6) 죄의 몸이란 죄의 인도와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몸을 말하며,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힘으로서 그러한 죄의 몸은 이미 멸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힘으로서 그에 대한 죄의 통치는 이제 끝이 나고 그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져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13,19절).

사실상 12,13절에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바울의 권면은, 성화의 영

271) J.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2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277

272) 김광열,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218.

273) J.Murray교수가 “결정적 성화”의 개념으로 해석한 신약성경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롬 6:1이하; 고전1:2; 6:11; 엡5:25,26; 살후2:13,14; 벧전 2:24, 4:1,2, 요일3:6,9, 5:18 등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역에서의 이러한 결정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14절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는 죄의 통치가 이미 무력해졌음을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도 성화에 있어 이 결정적인 면을 말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화될 때 교회도 이미 성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칼빈은 히 10:14의 테텔레이오켄(teteleivwken)을 ‘온전케 하였다’ 대신에 ‘성결케 되었다’로 번역하는 편을 택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번의 헌제에서 온전한 성결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²⁷⁴⁾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성화 또는 성결을 말할 때 과거 또는 과거완료시제로 흔히 말하였다.²⁷⁵⁾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케 되었다.”고 하였다.²⁷⁶⁾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몸을 드리실 때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신 것이며”²⁷⁷⁾, “그 자신과 함께 성부께 우리를 바치신 것이다”²⁷⁸⁾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 허물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성결케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번에 성결케 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우리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⁷⁹⁾

물론 성화란 일반적으로 점진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므로 점진성을 무시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결케 된 것이 우리가 참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고 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계속적으로 이름으로 그의 죽음의 효력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²⁸⁰⁾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단번에 성결케 되었다

274) 「칼빈주석」, 히 10: 14.

275)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25.

276) 「칼빈주석」, 벰전 3: 18.

277) 「칼빈주석」, 요 17: 19.

278) Inst., 2:15:6.

279)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26.

280) Ibid., 27.

는 사실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그 성결이 나누어질 때 그것의 참된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이다.²⁸¹⁾

그러나 이렇게 성화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로 나눈다면 인간의 행위가 성화에 어떻게 개입이 되는가 구분이 필요하다. 성화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선행의 열매를 맺고 선행은 상급을 받기 때문이다. 양쪽 측면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성화가 시종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성도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²⁸²⁾ 신자들은 믿음으로 결정적인 성화를 자기 것으로 해야 될 뿐 아니라 점진적 성화가 그 목적인 온전한 거룩에 이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가 맺혀 천국의 상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4)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성화를 이룬다.

칼빈은 성화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육체에 있다고 하였다. 그의 육체는 모든 신성의 충만의 거처요,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끌어낼 수 있는 통로 또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²⁸³⁾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화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초대하여 교제를 나누게 하시되 우리가 그에게 연합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만일

281) Ibid.

282)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343.

283) 「칼빈주석」 요 6:5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하여 그의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두 번째 축복'을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었을 것이다.²⁸⁴⁾ 칼빈은 구원받는 방도를 정의함에 있어 '그리스도에 의해서'(by Christ)라기 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였다.²⁸⁵⁾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복음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보다 명료하고 요점적이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를 그 자신에 연합되게 하고 우리를 자기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끊을 수 없는 교제의 결속에 의하여 우리와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신비한 교통에 의하여 매일 점차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마침내 그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²⁸⁶⁾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신비한 연합(mystical union)의 본질과 실재를 칼빈은 복음의 신비 중 하나로 간주한다.²⁸⁷⁾ 그것은 자신들에게서 벗어나 사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참되고 실질적인 연합인 것이다. 그 연합을 방편으로 하여 우리는 그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본체가 되는 것이다.²⁸⁸⁾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총체적으로 혼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본질적으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신령한 연합인 것이다. 이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믿음을 떠나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이다.²⁸⁹⁾

이 연합은 또한 성례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성례는 믿음에 대하여 베풀어지는 것이며 우리를 이 연합에 참여케 하는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방편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 예식을 제정하셔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교회의 생활 속에서 효력이 있게 하고 이 연합이 우리의 칭의와 성화의 원천임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새겨두기 위함이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

284) 「칼빈주석」, 답전 1:9.

285) 「칼빈주석」, 롬 6:11,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32.

286) *Ibid.*

287) *Inst.* 3, 2, 24.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32.

288) *Inst.* 3, 1, 3.

289) 「칼빈주석」 히 5:9.

로 만져야 만족해하는 피조물인 까닭에 성찬을 우리 앞에 베풀어주신 것이다.²⁹⁰⁾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 따로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전달해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떡과 포도주와 같은 물질로 지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다.²⁹¹⁾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2)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룬다.

성화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령에게 돌려지고 있다 (롬 8:11; 15:16; 벰전 1:2).²⁹²⁾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다(요 15:4). 또 우리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화를 이루신다고 하셨다

빌 2:13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살전 5:23-24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히 13:20-21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290) 「칼빈주석」 시 51:9.

291) *Inst.* 4, 17, 1.

292) L. Berkhof, 「벌콕 조직신학 구원론」, 251.

성령께서는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중생시킨 신자들 속에 거하신다.

겔 36: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는 신자들 속에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행하게 도우신다.

요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파라클레토스, *paravklhto*", 옆에서 도와 주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성령의 계속적 충만함이 필요하다.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13-1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 5:1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엠펜 5: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3)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룬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과거적 단계이며, 성화는 구원의 현재적 단계이며, 영화(榮化)는 구원의 미래적 단계이다.

이 성화는 현재 이루어 가야 단계이다.

성화는 사람 편에서의 성실한 노력을 요구한다.²⁹³⁾ 물론 이것이 성화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 성령께로부터 나온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람에게에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신다. 중생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지만, 성화는 인간 편에서의 순종해야만 되는 능동적, 자발적, 협력적인 것이다.

이를 빌 2: 12에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ste, ajgaphtoiv mou, kaqw;" pavntote uJphkouvstate, mh; wJ" ejn th'/ parousiva/ mou movnon ajlla; nu'n pollw'/ ma'llon ejn th'/ ajpousiva/ mou, meta; foybou kai; trov mou th;n eJautw'n swthrivan katergavzesqe: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항상(pavntote) 말씀을 순종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이 말씀 순종(uJphkouvstate)을 통하여 자기의(eJautw'n) 구원을 이루어가라(swthrivan katergavzesqe)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구원을 받은 우리 각자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루라는 동사 카텔가젯테(katergavzesqe)는 카테르가조마이(katergavzoma)의 현재 중간태 명령법으로 계속

293) L. Berkhof, 「별쿱 조직신학 구원론」, 249.

이루어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이며 그 구원은 중간에 버림 받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데 왜 그런데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죄성 곧 옛 사람의 악성과 악습이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니 잘못하면 죄를 짓고 성화를 이루지 못할까하고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바울 같은 분도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롬 7:24)하였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자는 오죽하겠는가?

그는 고전 9:27에서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버림이 되다’는 말은 헬라어 아도키모스(*ajdovkimo*)로서 부정 접두사 *a*와 도키모스(*jdovkimo*)에서 유래했으며, 도키모스의 반대어이다. 헬라어 문헌에서 인격에 대해 사용되었으며 ‘검증을 받지 못한(*untested*)’,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가치 없는’ 뜻이다. 이 말은 원래 사용 가능한 동전이나 금속으로 쓸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아도키모스는 쓸 수 없거나 가치 없는 돈이나 금속을 가리킨다(잠 25:4 사 1:22). 형용사 아도키모스는 신약성경에서 처음부터 부당하게 보이는 것이란 의미에서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 즉 가짜라고 판명되어 거부된 것이란 의미에서 ‘가치 없는, 거절된, 거부된’이란 의미를 지닌다(롬 1:28 고전 9:27 고후 13:5 딤후 3:8 딤펠 1:16 히 6:8).²⁹⁴⁾

이것은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아서 불합격하거나 걸려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상급의 문제인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였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화의 열매인 선행에 대해 상급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염려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294) H. Haarbeck, Grundmann, TDNT. 2. 255-260.

안에서 우리 성화의 전체 과정을 주관하신다.²⁹⁵⁾ 즉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게 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그러므로 성화는 성도의 노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²⁹⁶⁾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더욱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중생 이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12-13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19절).

로마서 8:13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하였다.

살전 4:1-3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벧후 1:5-10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295)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332.

296) *Ibid.*, 333.

(4) 죽도록 충성함으로 성화를 이룬다.

우리의 행위구원은 죽도록 충성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이다(계 2:10). 충성은 자기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충성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는 것이다(눅10:27).

(5) 성경말씀에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간다.

딤후 3:15-17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골 1:28-29에는 복음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셨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6) 기도를 통해서 성화가 되어진다.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도움과 능력을 받는 합법적 수단이다. 성도는 무엇든지 구할 특권을 부여받았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기도에 힘써야 한다.

(7)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을 각자의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성화를 시키신다.

벧전 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

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 119: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수단들을 성실하게 사용함으로 점점 더 자라며 기록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며 변화된 것만큼 선행이 나타나게 되고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5. 선행과 상급

성화의 과실(果實)로서 선행이 있고 이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상급이 있다.²⁹⁷⁾ 그러나 이들 선행들은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으며 오염이나 결함 없이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선행은 필수적이다.²⁹⁸⁾ 선행과 상급에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선행의 의의

선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동시에 성화의 당연한 열매이다. 성경은 성화시키신 하나님이 그 열매인 선행을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딤후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7)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366-367.

298)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구원론」, 317.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롬 6:22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갈 5: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엡 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 2:10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는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이다.²⁹⁹⁾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 16장 1절에서 선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행이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성경 말씀의 보장 없이 단지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에 의하여 고안된 것은 선이 아니며, 또 혹은 단지 선의(善意)의 위장(偽裝)으로 선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이 고백서는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외식적인 행위는 선행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고백서 1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행들

299) *Ibid.*

은 생명 있는 신앙의 열매요, 증표이며 신자들이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나타내며,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에게 덕을 세우며 신앙 고백을 명예롭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결국은 그들이 성결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얻는 다는 것이다.

고백서 3절에서는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 외에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 감화에 의하여 그들이 그의 기쁘신 뜻을 원하게도 되고 행하게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없는 때에는 어떠한 책임이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듯이 태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리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듯이 일으키려고 부지런히 선행을 힘써야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선행은 신적 도덕률의 요구에 완전히 응답하여 행위언약의 조건 아래서 능히 영생의 상급을 얻을 만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³⁰⁰⁾ 첫 사람 아담의 범죄 한 이후 타락한 인생은 그 행한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사64:6)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후사로 열납 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화의 과실로서 신자의 행위는 새롭고 거룩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성경은 이를 선행이라 칭하였다.(행 9:36; 엡 2:1; 딤후 3:17; 딤후 2:14).³⁰¹⁾ 중생한 새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마 7:17,18; 12:33; 15:9; 롬 12:1; 고전 10:31; 골 3:17,23).³⁰²⁾

2) 선행의 중요성

300)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368-369.

301) 여기서 선행은 중생한 신자가 성화와 관련하여 행하는 신령적 의미의 선행을 말한다. 일반 적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세속적 의미에서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여 직관적으로 선하다고 칭할 만한 행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방 사람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고 할 수 있다(롬 2:14).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행은 아니다.

302)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367-369.

신자의 선행은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자의 본분을 말한다. 즉 중생, 신앙,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활을 하는 성화의 생활의 열매로서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선행이다(요 15:1-7).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이 선행을 요구하신다(롬 7:4; 8:12,13; 갈 6:2).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진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약 2:26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 하셨다.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나 몸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2:14)하셨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되었다고(약 2:22)하셨다.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다.

이 선행은 또한 신앙의 증거로서(약 2:14,17,20-22), 감사의 표현으로서(고전 6:20), 신앙의 확신을 위하여(벧후 1:5-1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15:8; 고전 10:31) 필요한 것이다.³⁰³⁾

3) 선행에 대한 상급

이러한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반석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통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다.

마 7:24-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303) *Ibid.*, 369.

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Pa" ou+'n o{sti" ajkouvei mou tou;" lovgou" touvtou" kai; poiei' aujtouv", oJmouiwhvsetai ajndri; fronivmw/, o{sti" wj/kodovmhsen aujtou' th;n oijkivan ejpi; th;n pevtran. kai; katevbh hJ broch; kai; hoiJ potamoi; kai; e[pneusan oiJ a[nemoi, kai; prosevpesan th'/ oijkiva/ ejkeivnh/, kai; oujk e[pesen: teqemelivwto ga:r ejpi; th;n pevtran. kai; pa" oJ ajkouvwn mou tou;" lovgou" touvtou" kai; mh; poiw'n aujtouv", oJmouiwhvsetai ajndri; mwrw'/, o{sti" wj/kodovmhsen aujtou' th;n oijkivan ejpi; th;n a[mmon: kai; katevbh hJ broch; kai; hoiJ potamoi; kai; e[pneusan oiJ a[nemoi, kai; prosevkoyan th'/ oijkiva/ ejkeivnh/, kai; e[pesen, kai; hhJ ptw'si" aujth" megavlh.

인간의 생애를 반석 위에 집을(th;n oijkivan ejpi; th;n pevtran) 짓는 것(wj/kodovmhsen)과 모래 위에 집(oijkivan ejpi; th;n a[mmon)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여기서 '짓는'의 '호코도메센'(wj/kodovmhsen)은 '짓다'의 오이코도메오(oijkodomevw)의 과거 동사이다. 이 말은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ajkouvei mou tou;" lovgou) 행하는(poiei') 자라고 말씀하셨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초를 반석위에 놓았기(teqemelivwto) 때문이다. 동사 '테데멜리오토'(teqemelivwto)는 '주초를 놓다'의 동사 데멜리오오(qemeliow)의 과거완료 수동태 동사로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으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것이 되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 순종한 믿음의 행위는 영생이 되어 순종한 사람의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mh; poiw'n) 인데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무너진다는 동사 에페센(e[pesen:)은 핏토(pivptw)는 건물의 붕괴(히 11:30; 수 6:5; 수 6:20 눅 13:4; 사 30:25), 실패로 끝나거나 무너져 내린 것(마 13:4-8; 15:27; 요 12:24)을 나타낸다. 불순종의 행위는 무너지고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다. 평생 동안 살아온 삶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이 별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우리는 이런 허무한 삶을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

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마 16:27), 우리는 다 각각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며(고후 5:10),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요 5:29)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³⁰⁴⁾

그런데 이 신자의 선행과 상급과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곧 상급에 대한 공로사상과 유 신앙론(唯 信仰論)이다.³⁰⁵⁾

상급에 대한 공로사상으로는 앞서 제3장 상급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서 살펴본 대로 유대주의와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이 있다. 이 공로사상은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가지며 이 공로에 대한 청구권으로 신자는 상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선행관 또는 상급관은 선행과 상급을 부인하는 유신앙론이다. 유 신앙론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율법의 적극적 요구를 이루어주셨으므로 신자는 이를 수행할 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결국 선행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된다. 이 유 신앙론의 주장은 성경적 교훈에 전혀 배치된 것이다. 형벌의 체계와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만이 신자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폐하여진 것이지 삶의 도덕적 법칙으로서의 율법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며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이 곧 상급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급과 신자의 선행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상급에 대한 잘못된 공로 사상이나 선행과 상급을 무시하는 유 신앙론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

304) 그 외에도 성경에는 보상에 대한 구절들이 다음과 같이 많이 있다. 출 20:5,6; 시 33:18,19; 34:37; 37:5,6; 84:12,13; 94:14; 잠 10: 6,17, 22, 27, 29; 12: 14; 13:13; 16:31; 19:16; 20:7; 23:18; 25:21, 22; 사 3:11; 26:7; 마 5:12; 6:1-4,16,20; 25:34-35; 눅 6:23,37,38; 롬 2:6; 고전 3:8 등...

305)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368-372.

제 6 장 천국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2)

제 1 절 천국상급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상급에 있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기억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성도가 지체로서 상호 교통하는 것이다. 이 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각 자가 받은 은사대로 몸 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 섬김의 실력이 상급인 것이다. 여기서 먼저 교회의 정의를 살펴보고 상급과 교회론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의 정의

1)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교회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고백하는 자들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마16:18).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회중'(카할)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신자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 "카할"이 사용된 본문을 살펴보면 이는 언약 체결과 갱신과 관련하여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카할은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³⁰⁶⁾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5장 1절에서 이 하나님 백성의 모임으로서 무형 교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1)택한 백성의 전체 수효이고, (2)

306) 김길성, 「개혁 교회론」(경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5.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인다.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일 것이다....

신앙고백서 25장 2절은 한 지역교회에 모이는 유형교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신약시대(복음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
(예컨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
님의 가족이다. 보통으로는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일정한 지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골 1:24).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
시다(골 1:18).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 사용되었다. 교회는 머리
와 몸(엡 4:4), 남편과 아내(엡 5:31-32), 양, 포도나무(요 15:1-7), 밭(고전 3:), 성전
(고전 3:16) 등으로 묘사되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5장 1절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고 있다.³⁰⁷⁾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교회의 비유이다.³⁰⁸⁾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러한 연합은 그리스도인들이

307) 에드먼드 P.클라우니, 「교회」, 오성일역 (서울: 참말(도) 1993), 95.

308) 밀라드 J.에릭슨,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33.

그리스도께 연합으로 하나의 '몸'이 되었음을 말한다.³⁰⁹⁾

구원의 전 과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수많은 언급들을 알 수 있다.³¹⁰⁾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며(골 1:18), 신자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 1:16). 그와 연합된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게 된다(골 2:19). 몸인 교회의 머리로서 그는 또한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한낱 집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생명의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일치시킬 수 있다.³¹¹⁾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신자들 상호간의 연결 관계를 말해준다.³¹²⁾ 고린도 전서 12:27에서 바울은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

성령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극적인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는데, 그때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삼천 명을 회개시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한 사람 한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내주하실 뿐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 안에 공동으로 내주해 계신다.³¹³⁾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3:16-17)" 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309)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회」, 96.

310) 밀라드 에릭슨, 「교회론」, 37.

311) Ibid. 36.

312) Ibid. 37.

313) Ibid. 40

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고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회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 또한 능력도 전달해 주신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요14:26),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16:13).

성령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만드신다. 그 이유는 옛 언약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였던 것과 똑같이, 새 언약 아래서는 신자들이 성령의 전이므로 그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이다(고전6:19-20).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가가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게 하신다.

고전 12장 4-27절에 성령의 은사가 나온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님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불필요한 지체가 없고 다 필요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교회는 세상적인 학식이나 수단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섬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 각 직분을 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4)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교회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상호 교통하는 공동체이다. 여기에 대해 신앙고백서 제 26장 1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은혜와 그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상호간도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기 받은 직능(職能)과 은사의 유익을 통용(通用)하게 되었으니만큼, 그들의 처지에서는 각기 받은 은사대로 공사간(公私間)에 서로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 피차 영육간 유익을 받도록 하는데 협력함이 된다.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 그의 지체된 모든 신자들은 그와 상의 영적인 교제를 가지게 된다(엡 3:16-19).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나 남편과 아내의 비유(엡 5:31-32)의 경우처럼 예수님과 신자들 및 예수님 안에서 신자 상호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 상호 교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룬 까닭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나눈다(고전 12:18, 25-30).³¹⁴⁾

314) 나용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04.

16세기 종교 개혁가들은 타락한 로마교회에 대항하여 내건 교회 개혁의 구호는 라틴어로 '콤무니오 상토룸'(Communio Sanctorum)이었다. 이는 성도의 교통(The Communion of Saints)이란 뜻이다.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교통이라고 정의하였다.³¹⁵⁾ 또한 칼빈은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하였고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안에서 함께 자라듯 성도들은 교회의 품 안에서 함께 양육받는다고 하였다.³¹⁶⁾

교통이란 말은 헬라어 'koinonia'에서 나온 것이며 'koinonia'는 '공동체'의 어원이다. 즉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 모임인 것이다. 교회의 본질로서 성도의 교통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 교제하는 모임을 말한다.³¹⁷⁾

성도의 교통은 성령의 코이노니아이며, 성령의 교제는 성령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케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령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이다.³¹⁸⁾

2. 상급의 교회론적 의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였다. 성도들은 이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도들 각 개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도들은 이 교회 생활한 결과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다. 각 개인으로서 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상급을 받는 것이다. 차이는 있어도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호 협력하고 도와주는 공동체의 지체인 것이다. 오히려 상대가

315) *Inst.* 4.1.3.

316) *Inst.* 4.1.4.

317)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56-57.

318) *Ibid.*

잘 섬겨주니까 더 기쁜 것이다.

1) 몸된 교회를 섬긴 결과에 대한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각자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대에서 주실 상급은 교회에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신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 사람의 준비한 것만큼 새로운 은사를 부여하여 주실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서 주님이 교회에 나누어주시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들은 교회의 그의 몸 된 교회의 각 지체들인 것이다. 그런데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 각 지체가 몸을 돕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수행해야 할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거니와 그 지체들이 각기 다른 제 기능을 성실하게 발휘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마련이다. 성도들의 올바른 은사의 사용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다양한 은사의 조화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이끈다.

천국도 교회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그 천국에서 서로 섬기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섬김의 실력은 지상의 교회에서 섬김의 쌓은 실력의 차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달란트 비유와 므나 비유를 하신 것이다. 충성한 분량만큼 실력이 자라 영원한 나라에서 더 잘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혹자는 신자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므로 하나님 나라에선 경쟁도 비교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나 업적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체들 간의 성숙을 위해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다고 한다. 주님의 평가는 다른 이와 비교하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절대 평가

라는 것이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이다.³¹⁹⁾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상급의 은혜성과 차등 상급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천국은 교회와 같이 다 주님의 지체들이 모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과 집이기에 자랑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로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다른 지체를 섬긴 결과만큼 성장하여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모든 지체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의 상급은 서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나 대우받으려 하거나 균립하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위화감이 생길 이유가 없고 본인은 쓰임 받음이 즐겁고 다른 지체는 도와주어서 즐거운 것이다.

지상에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교회생활을 통하여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천국은 교회와 같은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결과에 대한 상급

천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하는 큰 도성으로 즉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지내시며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씻어주신다. 이 도성은 악한 것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다. 밤도 없고 태양도 필요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 메시아 왕국에서 온 피조물이 새로 지어질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메시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 19 - 21장에 이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다.

319) 그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변화된 것을 자랑해야지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나 지도자, 학벌, 자식, 등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수준이라면 그는 아직 육에 속한 어린 아이라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공로 업적 충성 정도에 따라 상과 복에 차등이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인 공로주의, 성과주의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1-9).

신부인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기름준비는 자기 현실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인 교회는 자기를 단장하며 정결케 하여야 한다.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다. 옳은 행실로 단장하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제 2 절 천국상급에 대한 종말론적 고찰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은 일반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론이 있다.³²⁰⁾ 개인적 종말론은 개인이 죽어 천국에 가며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중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다룬다. 반면에 일반적 종말론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도래되고 죽은 부활하여 최종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룬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여러 면에서 개인적인 죽음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비밀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한 것이고 영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육체도 포함한 것이며 각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본 절에서는

320) 벌굽은 있어서, 개인적 종말론과 일반적 종말론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고, 개인적 종말론에서 서론, 육체적 죽음, 영생, 중간기 상태를 다루고 있고, 일반적 종말론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죽은 자의 부활, 최종심판, 최후 상태를 다루고 있다.

천국상급과 관련된 최후의 심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자들은 자기의 선행에 대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1. 최후의 심판

성경은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마 25:31-46; 요 5:27-29; 행 25:24; 롬 2:5-11; 히 9:27; 10:27; 벧후 3:7; 계 20:11-15).³²¹⁾ 사람이 죽으면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형벌을 받게 된다. 그 후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최종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심판대 앞에 소집될 것이다(살전 4:16-17).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계19:1-2).

최후의 심판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자의 운명은 이미 죽음의 순간에 결정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 죽음 직후에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며 불신앙 중에 죽은 사람은 즉시 고통의 처소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자들에게나 필요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후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후크마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³²²⁾

① 심판의 뚜렷한 중요 목적은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각 사람의 신앙과 행위와 삶이 나타나며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통하여 자기의 은혜를, 원수들을 징죄하는 일을 통해서는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게 될 것이다. ② 각 사람이 받게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도의 다소는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③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들이 영원토록 지내야 할 장소를 정해주신다. 새 땅이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든지.

321) L. Berkhof, 「벨랍 조직신학 제 7권 종말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9), 144.

322)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종말론」, 류호준 역(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357-359.

최후의 심판은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행위에 따라 상급과, 형벌을 주시며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심판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나타내는 공적이고 법적인 행위이다. 이 심판에서 성도와 천사들은 온전한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영원토록 그에게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33 장 「마지막 심판」 제1절에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시고, ①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② 그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 앞에 나타나 그들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 간에 보응을 받게 된다. ③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불의를 벌하시고 의를 상 주신 많은 사건들의 절정이다.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나타내는 공적이고 법적인 행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아무도 그에게 불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한다. 최후의 심판의 축복 중 하나는 성도와 천사들이 수백만의 사람 가운데 온전한 공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는 영원토록 그에게 찬송을 드리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심판 할 날자를 정하시고 심판자를 위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다.³²³⁾ 또 그 날에는 타락한 천사들과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들의 사상과 말과 행위를 고백하고,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불의를 벌하시고 의를 상 주신 많은 사건들의 절정이라는 것이다.³²⁴⁾

323) *Ibid.*, 148.

324)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신실한 자들을 포함해서 그에게 충성한 자들은 위험에서 건지고 복을 주신 반면에 때때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셨다. 그의 심판에는 홍수, 바벨탑에서의 흩어짐,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 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개인과 국가에 임한 심판 등이 포함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기적으로 확실하게 임했음을 상기시킨다.(벧후 2:9-10) 이에 아직 임한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킨다.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II*. 노진준 역(서울: 은성출판사, 1996),

이 최후의 심판은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큰 배도 이후에 임할 것이다.

요한은 계시록 20:1-6에서 천년왕국과 지상으로부터의 사단의 영향력 제거를 묘사한 후에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라고 말했다.(계20:7-8) 그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배도를 물리치신 후에(계 20: 9-10)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했다.³²⁵⁾

이 최후의 심판을 백 보좌 심판이라고 하며 이 때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는다.³²⁶⁾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롬 2:9-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우리가 다 받드시...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 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계2:23).

그 때에 범죄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정죄를 받아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을 기다리고 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458~59.

325)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계 20:1-6의 해석의 문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것인가 이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천년왕국이 여자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인가에 따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눈다. 전천년설은 다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같이 보는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눈다. 본고는 역사적 전 천년설을 지지한다.

326) 조지 E 래드,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119-122.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한 행위에 의해 상급을 받는 반면,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악행에 의해 영원한 저주에 처하는 형벌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 공심판(公審判)을 면제받은 사람들이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죄의 선언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5:24)

그 때의 심판자는 우리들의 구세주로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들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는 정죄함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³²⁷⁾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들 대신에 공의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이미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더불어 심판하는 존귀를 나누게 하기로 정하신 바로 그 분의 손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로서는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왕께서 그의 백성을 멸하실 수 없는 것이다. 머리가 자기의 지체를 흠어버리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³²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롬 8:1)

이 최후의 심판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심판 때까지 지키기 위해”(벧후 2:4)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고 했고, 유다는 “큰 날의 심판까지”(유 6절)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셨다고 했다. 이는 적어도 타락한 천사 혹은 마귀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 심판에 성도들도 협조자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³²⁹⁾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

327) 칼빈, 「칼빈 주석」, 존 칼빈성경주석 출판위원회역 (서울: 성서원, 1999), 살전 1:6-10 설교.

328) *Inst.* II. 16. 18.

329) L. Berkhof, 「뵐콕 조직신학 제 7권 종말론」, 148.

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고전6:2~3)

이 구절은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선언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상급 심판

신자에게 있어서 종말의 심판은 구원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실질적으로 확인받는 자리이다.³³⁰⁾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은 궁극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비록 칭의로 통하여 법정적으로 의인으로 선언되었지만 그의 남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심판대 앞에 드러내 놓은 마지막 형식적인 격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심판(私審判)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해 보상하는 상급 심판이다. 이 상급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석에 앉아 신자들에게 상급을 나누어주시는 심판이다.³³¹⁾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칭찬의 자리이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³³²⁾ 이 심판석을 베마(bh'ma, judgment seat)라 한다.³³³⁾

이 용어는 올림피아 경기 제전과 같은 고대 그리스 운동경기에서 심판을 보거나 시상식을 하는 자리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이 '베마'는 문자적으로 계단을 가리키며 계단에서 올라가는 높은 좌석을 가리킨다.³³⁴⁾ 이 좌석은 '재판석'을 뜻하게 된다.

330) 조지 E 래드,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112-116.

331) Joe L. Wall, 「그리스도인의 상급」(Going for the Gold), 김원주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37.

332) H. Epp, 13.

333) 이병철, 「헬한 완벽사전 I」(서울: 한국성서연구원, 1989), 659.

334) W. E. Vine, *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1966 ed,

롬 14:10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관해 말한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후 5:10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한다.³³⁵⁾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베마 심판은 죄의 결과를 묻는 형벌심판이 아니다. 이는 내세에 있을 가족 간의 평가 시간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심판에 의하여 그들의 순종과 신앙에 대하여 상을 주시게 위하여 오실 것이다³³⁶⁾.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는데 심판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되는 것이라면 이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래드는 이 행위는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것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에 드러나는 그 외형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³³⁷⁾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각 사람이 일생동안 자기가 행위한대로 심판을 받는다.

계20:12-13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각 사람이 받는 상급과

"Judgement-Seat."

335) 하문호, 「기초 교의신학 VII 종말론」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206.

336) 칼빈, 살전 1:6-10 설교.

337) 조지 E 래드,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109-110.

대우와 영광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준다.

계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입고 살 의복은 세마포 예복이라 하시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한 그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자기의 영광과 실력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의 자기 언행 심사는 흔적이 남아서 그것이 무궁세계에 가서 자기가 영원히 입고 사는 의복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행한 행위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나라는 불평할 것이 없는 나라이다.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믿음의 행위가 없는 자는 구원은 얻었지만 자기가 입고 살 세마포 의복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진자와 같이 탄식한다고 하였다. 잠깐 동안 지나가는 세상에서 행한 그 행위를 영원히 입고 다닐 것을 생각하면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고후5:1-3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바울은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갈 때 덧입게 될 하늘의 처소를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³³⁸⁾

계3:18

338) Charles Hodge, *An Exposition of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73), 106 -12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 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3. 심판의 범위

1) 행위(**pravssw**, 프랏소, **poievw**, 포이에오)에 대한 심판

심판은 먼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다.³³⁹⁾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심
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 이루어질 것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롬 2:6) 하였고 고린도후
서 5:10에 베마(심판대)라는 말을 사용하여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빌 4:9의 말씀에도 적용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
리라.

고전 9:17에는 올바른 행동은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는다는 관념이 분명하게 명시되
어 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
았노라.

요 5:29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이다. 인간의 일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³⁴⁰⁾ 인간은 인간들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 순종적인 태
도를 취하거나 불순종의 태도를 취한다(고전 10:31).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하

339) 하문호, 「기초 교의신학 VII 종말론」, 206.

340) F. Thiele; H. Seesem, Braun, *TDNT*. 632-640.

게 나타나 있다(마 5:36 마 20:12 이하; 21:31; 눅 12:17, 18; 16:3 ;17:9,10).

행위에 대한 상급심판은 마25:31-46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 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우리의 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제시해주는 본문이다.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오른편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입고 구원받아 천국가는 성도들이고 왼편에 염소 편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지옥가는 자들로 보여진다.

그러나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25:40)고 하시고 왼편에 있던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볼 때 이 땅에서 행한 구제와 봉사생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과 멸망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된다는 결론이 나오므로 이는 구원이 전적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행위를 근거해서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비 성경적 해석이다.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은 은혜로 주신 구원(딤후1:9)이요, 거저 주신 구원(엡1:4-6)이요, 선물로 주신 구원(엡2:8)이다.

반면에 하늘나라에서의 실력과 영광을 마련하는 성화 및 상급은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 택한 자들이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행위도 있고, 행위가 다 불타고 없어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이다(고전 3:15).

그러므로 양과 염소 비유에서 강조하는 진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백성의 삶을 강조하는 상급부문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마25:31) "자기 영광의 보좌"(qrovnou dovxxh" aujtou)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그 행한 일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이 날에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다.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25:40)고 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주님에게 하듯이 도와야 한다. 주님께 책망 받은 왼편에 있던 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 공양치 하였다고 하였다(25:44). "공양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오

(diakonevw)라는 말인데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이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재림 시에 주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시는 잣대이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봉사생활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에서의 봉사생활로 심판의 기준을 삼고 있지만 인간의 선행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에베소서 2:8-9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두 가지로 진행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심판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심판이다.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공심판과 천국에서 상급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심판이다. 이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된 봉사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내용에 관한 사심판 곧 상급 심판인 것이다.

모든 종류의 봉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편에 있던 사람들도 봉사생활을 하였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신 것(마25:45)을 볼 때 그들의 봉사생활은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님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봉사행위 자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태도와 중심을 보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은 자신의 이익과 보상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행하는 사랑의 봉사여야 한다. 주님을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달란트를 재능, 돈, 학문, 사회적인 위치, 시간 등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소외된 자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본문에서 오른 편 곧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을 행한 행위 하나하나가 곧바로 주님을 직접 대접한 것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다. 그런데 이웃을 도우는 것이 육신적인 도움도 있지만 심령의 도움이 더 중요하며 그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 구원을 위한 육신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이 복음 역사에 희생된 것만이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다.

2) 일(공력)에 대한 심판

신자가 행한 결과가 공력이 되어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고전 3: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

eJkavstou to; e[rgon fanero;n genhvsetai: hJ ga;r hJmavra dhlwvsei, o{ti ejn puri; ajpokaluvptetai kai; eJkavstou to; e[rgon oJpoi'ovn ejstin, to; pu'r aujto; dokimavsei.

그 날에 각 사람(e{kasto")은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온 행위(e[rgon)가 다 드러난다(fanero;n). 즉 마지막 날에 자기가 살아온 행위에 대해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불로(ejn puri;)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불이 각 사람의 행위를 시험한다는 것이다(dokimavsei).

여기서 각 사람을 말하는 형용사 헤카토스(e{kasto", each, every)는 각 개인을 말하며 모든 사람이 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공력을 뜻하는 단어 ‘에르곤’(e[rgon 일, 행위, work)은 에르고(e[rgw: 일하다)에서 유래했으며, ‘일, 행위’ work를 의미한다.³⁴¹⁾ 이 단어는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을 나타낸다. 이 단어들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일하는 온갖 종류의 일들, 건축, 그리고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나온다. 이 단어들은 또한 사회적인 임무나 도덕적인 임무로서의 일도 나타낸다. 우리가 일생동안 살아온 이력을 다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에르곤’이 인격화되어 딤편 5:24-25에서 “죄와 선행이 드러난다.”고 하였으며 계 14:13에서 주안에서 죽은 자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선행은 마지막 날에 다 보고 되며(딤편 6:18; 마 6:20; 눅 12:33) 그 일(행위)에

341) R.Heiligent, Bertram, TDNT .635-655.

만드시 심판이 따르는 것이다(롬 2:6; 고후 11:15; 벰전 1:17; 계 2:23 등).

또 불을 나타내는 명사 푸르(pu'r)는 문자적 의미로 '태우는 것', '뜨겁게 하는 불'이다.³⁴²⁾

마지막 심판의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공력 가치 및 질을 밝힐 것이다. 건축에 사용된 재료의 '성질, 즉 어떠한 것'임을 불이 시험하듯이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공력의 질이 낮으면 불타버릴 것이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렘 5:14; 요 12:48)³⁴³⁾.

고전 3:15에서 바울은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질 사람을 가리켜 말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 단지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 간신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롬 12:2; 엡 5:10; 빌 1:10; 살전 5:21; 요일 4:1).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그들 자신의 신임(accreditation)에 대한 시험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살펴야한다).³⁴⁴⁾

342) 이 불은 최후 심판의 상징이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 3:10; 눅 3:9 마 7:19), 쪽정이(마 3:12 눅 3:17), 가라지들(마 13:40),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의 가지(요 15:6)를 불사르는 것이다. 눅 9:54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영접치 않은 사마리아 고을에 불을 내리도록 자신들에게 허용해주시기를 원했다. 눅 17:29은 창 19:24을 상기시킨다.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살후 1:7에서 예수님은 불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불이다. 히 12:29에서 불은 심판의 불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벰후 3:7에서 홍수가 처음 세상을 뒤덮었던 것과 같이 최후의 심판은 불로 하실 것을 말씀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 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벰전 1:7에서 잠 17:3의 시험의 불이 고난에서 희망과 신앙을 지키는 것에 적용되고 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계 3:18에서 참된 부요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F. Lang, TDNT.

343) 조영엽, 「구원론 종말-내세론」(서울: 도서출판 미스바, 2004), 459.

344) '시험할 것이니라'(도키마세이, dokimavsei)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험으로 입증하다, 인정하다'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거나(test) 입증해야 한다. 고후 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본문의 불은 개인의 공력을 시험하는 데에 사용될 것인데 이는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불타는 집, 마지막 심판, 불에 의한 시험의 이미지는 함께 연결된다.

고전 3: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ei[tino" to; e[rgon mevnei' o} ejpoikodovmhsen, misqo:n lhvmyeta

여기서 ‘그대로 있다’의 동사 메노(mevnw)는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는 뜻이다. 즉 믿음의 행위는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심판을 통과하여 그대로 남아서 그 사람의 실력과 영광이 되는 것이다.

‘세운’의 동사 에포이코도메오(ejpoikodomevw)는 에피(ejpiv, 위에, 에)와 오이코도메오(oijkodomevw, 집을 짓다)에서 유래했으며, ‘~위에 건축하다, ~위에 세우다(짓다)’를 의미한다.

믿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엡 2:20; 골 2:7). 이제 이미 닦아 놓은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가 문제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재료로 세울 것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을 재료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과 말씀 안에서 행한 믿음의 행위는 금은 보석이라 할 수 있고 자기중심으로 산 행위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 할 것이다.

고전 3: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니라. 갈 6: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임할 때,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고전 11:28). 또 주님은 눅 12:56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하셨다. 여기서 ‘도키마조’는 ‘시험으로 입증하다’는 의미에서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질적 현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표징들은 감지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시험하여 분별하기를 요구하신다. W. Grundmann, TDNT, 2, 255-260.

ei[tino" to: e[rgon katakavhvsetai, zhmiwqhvsetai, aujto;" de: swqhvsetai, ou{tw" de: wJ" dia; purov".

동사 카타카에세타이(*katakavhvsetai*) 동사 카타카이오(*katakaivw*)의 미래 수동태로서 카다(*kata*v)와 카이오(*kaivw*, 불을 붙이다, 타다, 태우다)에서 유래했고 '불살라버리다, 불로 태워버리다'를 의미한다.³⁴⁵⁾

동사 '제미오테세타이'(*zhmiwqhvsetai*)는 동사 '제미오오'(*zhmiovw*)의 미래 수동태로서 손해나 손실을 입다. '벌받다'를 의미한다. 마지막 심판 날에 '벌'을 받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건축을 할 때 조심해서 건축해야 한다. 건축된 것이 하나님에 심판하실 때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정죄 받아 멸망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택한 자라면 구원은 얻는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에 얻은 것과 같이 그는 심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재료를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건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도 재료가 잘못되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만다. 불로 모든 것을 태울 때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론 것들만 타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정화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모든 공력을 불로 밝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공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다 불타고 없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은 얻지 못할 가운데에 구원 얻은 것과 같이 심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

345) 이는 심판의 상징으로서 마 3:12 병행구절 눅 3:17에서 "쭉정어"를, 마 13:30, 마 13:40에서 "가라지"를 고전 3:15에서 "공력"을, 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묘사에서, 계 8:7(3회) 땅과 수목의 3분의 1과 모든 푸른 풀(벤후 3:10)을, "바벨론의 음녀"의 멸망에 대해(계 17:16 계 18:8), 히 13:11(레 16:27)에서 속죄의 날에 희생 동물의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 행 19:19에 따르면 에베소 사람들이 오만 드라크마 어치의 마술 책을 불사르면서 개종한다. 이병철, 「헬.한 완벽사전」(III), 356

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력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구원은 얻지만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상급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3) 말에 대한 심판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남을 판단하면 그대로 자기가 판단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마 7:1-5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 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를 분명하게 하셨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 36 -37).

우리가 남에게 공홀을 보이면 우리도 심판 때에 공홀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13).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에서 공홀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씀하셨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공홀은 헬라어로 ‘엘레오스’(e[leo")로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에 대해 사용되었다.³⁴⁶⁾ 이 공홀이 없는(**ajnevleo**", 아넬레오스) 사람 곧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은 공홀 없는 심판을 받고 만다. 공홀은 심판(**krivsi**")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말며 대신에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딤후 2:23-25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찌니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말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또 다루기 힘든 것인가 야고보 기자는 이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더구나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약 3:1-10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제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346) 마 9:13; 23:23에서 이 단어는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친절을 나타낸다. 70인 역본의 "자비를 베풀다"라는 표현이 눅 10:37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들에 대해 사용된다. 약 2:13에서 자비에 대한 요구는 우리의 자비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참조: 마 18:33). 유대교와 비교해 볼 때, 신약성경에서의 새로운 특징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 진다는 것이다. 약 3:17에서 '엘레오스'는 비록 동정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인 자애(love)를 포괄한다. 이 자비는 또한 일시적인 안녕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녕에 대한 관심을 의미할 수도 있다(유 1:22). H. Essen, Bultman, TDNT. 477-487.

사람이 자기 속에서 악을 품고 말을 함으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악한 말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더욱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악독이 가득한 말로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이는 독이 들어 있는 것이다. 자기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웃을 저주하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 반면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나 클지 모른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주님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심판한다고 하였다.

유 14-16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는 원망 불평하거나 자기 기분 감정대로 남에게 함부로 말한 것을 다 심판받는다. 이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삼가 조심하여 자타에 손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타의 구원에 유익한 말만 하여야 한다.

4) 생각과 마음의 동기에 대한 심판

모든 말과 행동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의 생각과 동기가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사상과 마음의 동기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³⁴⁷⁾

고린도전서 3- 4장에 서 바울은 마음의 동기가 궁극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에 해당하는 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 같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베마 심판의 과정을 진술한 뒤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사상과 마음의 동기들을 심판하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³⁴⁸⁾

347) Joe. L. Wall, 「그리스도인의 상급」, 116.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 5).

w{ste mh; pro; kairou' ti krivnete, e{w" a]n e[lqh/ oJ kuvrio", o}" kai; fwtivsei ta; krupta; tou' skovtou" kai; fanerwvsei ta;" boula;" tw'n kardiw'n: kai; tovte oJ e[paino" genhvsetai eJkavstw/ ajpo; tou' qeou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에 어두움에 감추인(**kruptov**, 크립토스)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감추인'이란 '숨은'(hidden), '비밀의'(secret)의 뜻의 형용사 크립토스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의 모습이다.³⁴⁹⁾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경건에 반대하여 이 사실을 강조하셨다.

도래하는 심판자는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것을 나타내실 것이다. 롬 2:16에서도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 3:4)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생활은 그들이 값비싼 외적인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감추인 것으로 우리 마음의 뜻이 있다. 마음의 뜻(**ta;" boula;" tw'n kardiw'n:**)은 마음에 있는 의지(will), 결심(resolve), 의도(목적, purpose), 계획(plan)들을 말한다.³⁵⁰⁾ 불레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에서 나온 결의를 함축한다. 하나님의 뜻은 엡 1:4-5의 선택과 예정을 포괄하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으며 교회에 구원의 실재로서 부여된 전 은혜를 움직인다.

베마 심판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동기들이 다 밝혀진다고 한 것이다. 바울은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심과 계획까지 다 살피신다고 하였다.

348) *Ibid.*

349) A. Oepke, *TDNT*, 3, 958.

350) G. Schrenk, *TDNT*, 2, 629-630.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드러낸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 -13).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추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 안에 감추어있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 12:2)라고 하셨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셨다(계2:2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주의 사랑 안에서의 교통과 주님과 가졌던 은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들이 다 알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품고 있었던 욕망과 남을 미워하던 생각들도 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 주께서 오시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실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배후에 있는 본연의 마음의 동기들이 모두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 때 각 사람은 주께로부터 보상(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³⁵¹⁾

제 7 장 천국상급에 대한 윤리적 고찰

천국상급은 신자의 성화의 열매인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이다. 그런데 이 선행의 배경에는 기독교 윤리에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삶의 방향을 제

351) Joe. L. Wall, 「그리스도인의 상급」, 117.

시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인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 윤리의 기초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 기독교 윤리와 관련한 상급을 살펴보자.

제 1 절 기독교 윤리(ethic)의 기초

윤리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올바른 행위 원리들을 말하며 습관이나 관습을 가리키는 헬라어 ἠθικός(엡소스)에서 나왔다.³⁵²⁾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참된 윤리적 개념과 기준을 기대할 수 없다. 참된 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중생된 신자들에게서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이것을 기독교 윤리의 기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에 늘 몰두하였다.³⁵³⁾ 칼빈은 기독교강요 3권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de vita hominis christian i)³⁵⁴⁾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윤리학적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윤리에 대한 칼빈의 서술은 그의 십계명 해설에서 잘 나타난다. 칼빈은 펠라기우스가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주장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을 위해 율법 준수를 주장한 기존의 잘못된 견해들을 벗어나서 그의 윤리학의 기초로서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다.³⁵⁵⁾ 십계명에 대한 설명은 칼빈의

352) 윤리 문제는 고대로부터 철학의 주요한 세 가지 주제들인 존재, 지식, 선종의 하나인 선(善)의 문제로서 연구되어 왔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선의 목적이 개인의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보았다.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인류 전체의 유익과 즐거움이라고 보았다. 근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인 칸트는 비 목적론적 입장에서 양심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을 윤리의 근거와 기준으로 삼았다. 현대 실존주의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것을 선이라고 본다. 실용주의는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선이라고 본다. 분석철학에서는 선을 사람의 욕구와 별개의 것이며 오직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김영철, "윤리학," 『철학대사전』, (서울: 학원사, 1976), 857-860; Gordon H. Clark, "History of Ethics," *Baker's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220-221.

353) 신복윤, "칼빈의 윤리관," 『신학지남』, 1996, 가을, 36, 3, 44.

354)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2, eds., Guili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Brunsvigae: C. A. Schwetschke, 1864), 501.

355) Gordon H. Clark, "Calvinistic Ethics," *Bak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Carl F. H. Hen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기독교 강요(2,8,1-59), 교리문답(질문 132-233),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대한 설교에 나타난다.

칼빈은 철학자들의 윤리학에 대하여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적 윤리를 주장한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본성을 윤리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칼빈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윤리관³⁵⁶⁾을 배격하고, 오히려 인간의 부패성과 나약성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적 윤리의 특성을 보여준다.

칼빈에 따르면 윤리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 율법의 제 3의 용법,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전적인 타락, 종말론, 기록, 섭리론 등등에서 보여진다. 따라서 그의 윤리학은 신학적 윤리학으로 말할 수 있다. 칼빈의 윤리학의 목적은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리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주장한 교리가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³⁵⁷⁾

즉 하나님의 뜻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가르침을 받아야 함을 보여준다.

칼빈에 있어서 신학적 윤리학의 동기는 하나님의 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삶의 준칙을 정하라는 것이다. 그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³⁵⁸⁾ 여기서 칼빈의 신학

356) 윤리와 관련하여 칼빈이 철학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 칼빈은 철학자들은 올바른 것과 존경할 만한 것들에 제한을 두고 개인의 의무와 많은 덕목을 이끌어낸다고 한다. 칼빈은 삶의 가르침에 관하여 철학적 윤리(*philosophiam moralem*)을 말할 때 한마디로 인간이 본성대로 살라는 것이라고 한다. 즉 인본주의적인 윤리이다. 시세로는 인간의 자연적인 존엄성(*hominis naturalem dignitatem*)을 강조했다지만, 칼빈은 이런 인간의 존엄성은 한계가 있기에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변화를 주지 못하며 심령이 새로워지지 못함을 말한다. 칼빈은 철학자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생명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성만을 사람 안에 있는 지배 원리로 설정하고 이성의 소리만을 따르라고 한다고 한다. 그들은 인생행로를 오직 이성에게만 맡긴다고 보았다. Ibid. 501-506.

357) 신복윤, "칼빈의 윤리관," 44

적 윤리학은 하나님의 소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소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한 소명이 아닌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의 기록함 곧 성화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칼빈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면을 중요시한 Charles M. Swezey는 신학적 윤리학은 하나님의 활동적인 힘과 임재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규칙에 대해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라 하였다.³⁵⁹⁾

명신홍 박사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생활을 아는 궁극적 교훈을 찾게 된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적 윤리학은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그의 계시를 진리의 궁극적 권위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³⁶⁰⁾

김영한 교수는 말씀을 윤리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침 안에서 양심의 자유로운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개혁신학의 윤리를 말하였다.³⁶¹⁾

따라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신 성경을 그 근거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간의 참된 행위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기준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인 것이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최종적, 절대적 권위를 지닌다.³⁶²⁾

성경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358)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2, 502.

359) "Theological Ethics," Encyclopedia of the Reformed Faith, Ed. Donald K. McKi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360) 명신홍, 개혁과 윤리학(서울:신망에 출판사, 1971), 13.

361) 김영한, "복음주의 신학과 현대 기독교 윤리: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 복음주의 신학과 기독교 윤리, 제 32차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서울: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1998), 12.

362) 근래에 세속사회의 윤리적 상대주의 혹은 상황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절대적 윤리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조셉 플레처, 에밀 부룬너, 라인홀드 니이버, 존 로빈슨). 또 어떤 이들은 윤리적 절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특수 상황에서 두 가지의 윤리적 규범들이 충돌할 경우 더 작은 악이나 더 나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성경의 윤리 규범이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모든 상황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를 밝히 계시하셨다.

신 5:32-33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道)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長久)하리라.

딤후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법칙임을 분명히 한다.

성경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현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하였다(1:2).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도덕법인 십계명이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도로 십계명을 주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율법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 세운 아담에게 행위 언약의 의미로 한 가지 법을 주셨다는 것이다.

2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도덕율인 율법은 아담의 범죄 후에도 의(義)의 완전한 규범으로 존속하였으며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록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 주신 십계명인데,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 다음 여섯 가지는 인간에게 대하여 우리의 행할 도덕이라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대 요리문답 98문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도덕법이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었고 그에 의해 두 돌판에 쓰여졌고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인간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2:37).

대요리 문답 102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은 처음 네 계명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은 처음 네 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97문에서도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주는 특별한 유익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비록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따라서 그 율법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그 일반적 용도 외에, 도덕법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법을 다 지키시고 그 저주를 견디셨으므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케 하고, 그들의 순종의 법칙으로서 그 법을 따르기를 더 많이 조심함으로써 그 감사를 표시하는 데 유익이 있다.

신자들에게는 행위언약으로서 의롭게 해 주거나 정죄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법으로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고백서 19장 6절에서도 신자는 행위언약 아래에 속하지 않으므로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 함이 되거나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신에 신자들에게 율법의 역할은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은 제지시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고백서는 이 율법 순종의 선행이 인간의 공로가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

(意志)를 설득시켜서 그로 하여금 자의(自意)로 순종하도록까지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된 신자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요구를 자유로이 또는 기쁘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행위들 혹은 의식들도 있다. 이것을 ‘아디아포라’(ἀδιάφορα)라 한다.³⁶³) 바울은 식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도 식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므로 버릴 것이 없다고 하였다.

딤펴전 4:3-5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나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 양심에 맡기고 있다.

고전 8:12-13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로마서 14:15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363) 교회 역사상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는 로마 천주교회의 전통적 예배 형식들 가운데서 성경에 금지되지 않았고 또 복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들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17세기에 오락의 문제에 대하여 오락이 그 자체로는 선이나 악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선이나 악이 되게 한다고 가르쳤다. Richard A. Muller,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Baker, 1985), 25- 26; Robert D. Preus, "Adiaphora," *Baker's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1973), 8-9.

제 2 절 기독교 윤리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새로운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윤리적인 삶이란 단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다.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4:7-8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후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도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우리의 바른 믿음과 바른 행위를 다 포함한다.

제 3 절 기독교 윤리와 선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행을 요구하신다.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대 요리문답 91문은 이 선행의 요구를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였고 아담의 후손된 인류는 다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순종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신 4:40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롬 6:17- 18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구약 시대의 경건한 의인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다.

창 6: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 22:12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출 40:16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민 14:24

오직 내 종 갈렘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예수께서는 친히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셨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신다.

롬 5:19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빌 2:6-8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 5:8 -9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하는 것이다.

제 4 절 기독교 윤리의 내용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경건이라는 할 수 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하면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딤후 4:7, 8).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다음 각 분야에서 살펴보자.

1. 예배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연의 임무인 예배에 힘써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 예배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1)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일차적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회중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여야 한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전 12: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며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교회는 모여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한다. 마귀는 교회의 모임을 방해하고 폐하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히 10: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 예배의 요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엄숙하고 질서 있게 드러져야 한다. 예배의 순서는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요리문답 110문은 예배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그들에게 여러 세대에 공예배의 요소들은 찬송, 기도, 설교 혹은 강론, 헌금 등이다. 고린도전서 14: 26,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사도행전 2: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히브리서 13:15,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고린도전서 16:1, 2,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利, 이익)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빌립보서 4:18,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요리문답은 예배의 요소로 찬송, 기도, 설교, 헌금의 순서를 들고 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다.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말씀과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3) 예배의 방법

십계명 중 제 2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대 요리문답 제 108문은 이렇게 2 계명에서 요구하는 바른 예배를 서술하고 있다.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준행하고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 읽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듣는 것, 성례들을 거행하고 받는 것, 교회 정치와 권징, 교회의 목회와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서원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지위와 부르심에 따라서 그것과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윤리적 삶이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예배는 거짓 예배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제사장이시므로 그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엡 5:20; 골 3:17; 히 13:15).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힘입지 않고서 드러지는 예배는 다 인본주의요, 윤리 종교에 불과하다.

대 요리문답 제 109문은 잘못된 예배로서 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승인하는 모든 것, 하나님 즉 삼위의 전체든지 그 중 어느 하나든지 간에, 내적으로 우리 마음으로도 혹은 외적으로 어떤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도 표현하는 것, 그것을 경배하거나, 혹은 그것 안에서나 그것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 거짓된 신에 대한 모든 표현과, 그것들에 대한 모든 경배나 그것들에 속하는 섬김, 우리 자신에게서 발명되고 채택되었든지, 혹은 비록 고대성(古代性), 관습, 헌신, 선의(善意),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이름 아래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전통에 의해서 받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부패시키거나 그것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는 모든 미신적 고안물들 성직 매매 신성 모독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대이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한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제사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제사일 뿐이다.

롬 12: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 13:15-16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4) 예배생활에 대한 상급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이다. 이 땅에서 예배생활을 잘 한 만큼 천국에서도 예배생활을 잘하게 될 것이다.

계 4:10-11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 5: 11-14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 7:9, 10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14:1, 3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 . .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救贖)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국에서는 모든 만물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 땅에서 예배생활을 잘 한만큼 천국에서 예배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자의 기도에도 대해서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2. 주일성수

기독교 윤리 중에 주일 성수가 중요한 부분이다. 기독교인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모든 믿음생활의 기본인 것이다.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1) 주일의 유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복 주시는 날로 제정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 사 계명에서 안식일을 성수할 것을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규례를 따라 하나님 섬기는 날로 안식 후 첫 날인 주일을 제정하시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 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사도행전 20:7에 보면, 드로아의 성도들은 안식일 후 첫날 곧 주일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 또 고린도전서 16:2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에게 매 주일 첫날 곧 주일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헌금하라고 교훈하였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16문에서는 구약의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며 신약의 안식일 곧 그리스도의 날은 첫째 날 곧 주일이며 둘 다 온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제사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지정하신 시간, 특히 칠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시작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주간의 일곱째 날이었고 그 후부터는 그 첫째 날이며 세상 끝 날까지 계속 그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불리운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참된 안식을 예표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참 안식을 주셨다(마 11:28).

구약 안식일의 의식적(儀式的)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골 2:16-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꾀민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의 날로서 구약 안식일의 도덕적 요소는 지속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일을 공적 모임의 날로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온전하며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주일을 지켜야 한다.

칼빈은 안식일 계명이 의식법이지만 그 안에 도덕법적 의미도 있다고 보았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말하자면 그는 안식일의 참된 성취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인 날들의 준수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³⁶⁴⁾

그러나 그는 비록 안식일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으나 교회의 공적 모임과 휴식을 위한 필요성은 오늘날도 유효하며 따라서 신약교회는 열심히 주일을 공적 모임의 날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⁶⁵⁾

1618-19년의 개혁교회의 정통적 도르트 대회는 제4계명의 의식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4계명에는 의식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가 있다. 의식적 요소는 창조 이후 제7일의 휴식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그 날의 엄격한 준수이었다. 도덕적 요소는 어떤 특정한 날이 종교를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위해 종교와 그것의 거룩한 명상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휴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엄숙히 성별되어야 한다. 그 날은 사도들의 시대 이후 원시 카톨릭 교회에 의해 이미 준수되어 왔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구약의 안식일의 의식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위한 도덕법적 요소로 인해 지금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공적 예배의 모임을 위해 주일에 모여야 한다.

364) *Inst.* 2. 8. 31.

365) *Inst.* 2. 8. 32-34.

2) 주일성수의 방법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성도는 이제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되었다. 주일은 구약 안식일의 성취이지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다. 따라서 주일 지키는 법과 안식일 지키는 법이 일치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원리에 같은 것이다. 육신의 사업과 노동을 중단하고 온 종일 안식하고 하나님께 모여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주일 지키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만큼 은혜로 실행되어야 한다.”³⁶⁶⁾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온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장로교 헌법 예배모범 제1장에는 주일 성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다.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요리문답 117문은 안식일 혹은 주일을 지키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안식일 혹은 주일은, 단지 언제나 최악된 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날들에 합법적인 세상적 직업들과 오락들로부터도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하며 (부득이함과 공휴일의 일들에 사용되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김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 날의 의무들을 위하여 더 자유롭고 적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우리의 세상일을 배치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주일은 안식일과 같이 세상의 모든 일을 쉬고 오락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

366)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리새식 율법주의의 번쇄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취급되는 것이다. 이 문제로 서로 비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도 신약성경은 가르친다(롬 14:5-6; 골 2:16). 박윤선, 『구약주석』 시가서 제4권, 163.

배의 날로 지키며 온 종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리문답 118문은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지킬 뿐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가족이나 종업원들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더욱 특별히 가장들과 기타 뒷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까닭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통솔 아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지켜지는지 보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때때로 그들 자신의 일들로 저들을 방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 가족이 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해야 한다.

출 20: 10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관장하는 사업체와 직원들을 주일에 다 쉬게 해야 한다.

또한 주일에는 세속적인 오락을 중단해야 한다.

사 58:13,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일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사먹는 일 등도 피해야 한다. 장로교 예배모범은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고 하였다.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예배로 모이는 것이다. 주일에 드리는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장로교 예배모범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옳으며..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를 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교회의 공적 예배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주일 성수가 식어지면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며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타락한 사회이다.³⁶⁷⁾

3) 주일성수에 대한 상급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요 구원이루는 가장 복된 날이다. 일주일 동안의 모든 축복의 종자를 받는 날이다. 주일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만큼 일주일동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짝이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 이 자기 현실에서 주일에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거룩한 삶과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거룩한 삶과 행위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주일을 잘 지키지 않고 교회생활과 믿음 생활에 힘쓰지 않은 사람은 구원은 얻되 상급이 없는 불 가운데 얻은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전 3:15).

367) 청교도 신학자 존 라일은 말하기를, “영국 기독교의 변성과 부패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의 보존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 . . 당신의 안식일을 제거해 보라. 그러면 당신의 종교는 곧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 규칙으로, 사람의 걸음은 안식일 없는 데(No Sabbath)로부터 하나님 없는 데(No God)로 나아간다”고 하였다. John C. Ryle, *Knots Untied*, pp. 236, 243.

3. 가정 윤리

기독교 윤리 중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가정 윤리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은 많은 부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차적으로 세우신 기관이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것이다. 가정 윤리는 부모공경에 대한 윤리와 부부윤리가 있다.

1) 부모 공경에 대한 윤리와 상급

기독교 윤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부모에 대한 효도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자식 된 자로서 당연한 도리이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십계명 중 5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 첫째 계명이다. 이는 요리문답 123문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123문: 제5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것이다.

엡 6:1에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였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 말씀은 또한 육신의 부모 위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다.

효도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잠 23:22

너 낳은 아버지께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엡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또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골 3:20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한 효도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딤후 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님께 대한 보답은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으로 양 면에 다 신경 써야 한다. 연로한 부모의 의식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여야 한다.

그런데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에 대한 계명은 부모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대표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혈육의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기관을 존중히 여길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는 요리문답 124문과 125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124문: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125문: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

답: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다.

부모공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에 대한 심판과 순종한 자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출 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 20:9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 21:18-21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반대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잘 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약속하셨다. 이것은 요리문답 133문에 잘 나와 있다.

133문: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도록 부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5계명에 부가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 땅에서 장수와 번영의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굳이 이 세상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땅에서 만이라면 불효자도 오래 사는 자도 많고 부자도 많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세에 영원히 해당되는 말씀이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상급이 크다는 약속으로 받아 드려야 한다.

2) 부부윤리와 상급

부부의 윤리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다. 부부에 대한 교훈은 성경 에베소서 5장 22-33절에 나온다.

(1) 부부의 질서와 의무

부부윤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질서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부부관계에 있어 과거의 유교적인 남존여비의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서구의 수평적 평등관계로 전환되어 가면서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 이혼율도 급격히 상승하여 세계 어느 나라 못지 않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바로 정립해야 한다.

성경에는 먼저 아내의 의무를 말해주고 있다.

엡 5:22-24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골 3: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딤후 2:4-5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과 같이 생각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

해야 한다. 아내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보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현숙한 여인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 잠 31:10 -31에는 현숙한 여인이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밤이 새기 전에 부지런히 일어나며, 궁핍한 자를 위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핀다고 말한다.

여인의 단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딤편 2: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뺨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벧전 3:3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외적 단장보다 내면적 단장에 힘써야 한다. 세상의 아름다움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자기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잠 31:30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내면적 가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여인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해산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할 때 이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자기의 영광과 상급을 마련하는 것이다.

딤편 2: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였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남편의 아내사랑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성경은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 24: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남편은 또한 아내에게 정신적 평안과 기쁨을 주어야 한다. 남편은 따뜻한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구타하거나 학대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골 3: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부지런히 하여 가정의 경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편 128:2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서는 부지런한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2) 부부의 성(性) 윤리

부부의 성(性)은 더럽거나 죄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창 2:24-25). 성경은 부부의 성을 즐기라고 하였다.

잠 5:18-19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전 9: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성경에서 부부관계 외의 성 행위는 음란 혹은 간음으로 정죄하지만, 부부 간의 성 관계는 정당하며 오히려 음행을 피하는 방편으로서 적절하게 권장된다.

고전 7:2-5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의 성을 억제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은 성적 욕구의 합법적 해소 수단이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첫째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사랑은 둘째이므로, 성도가 너무 부부의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적 생활이나 봉사 생활에 지장을 가져서는 안된다. 과도한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 6:12-13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3) 이혼, 재혼,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말 2: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나 성경은 음행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마 5: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마 19:6, 9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의 연고로 이혼하였거나 배우자와 사별하였을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5절은 이를 밝히고 있다.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은, 결혼 전에 발견될 때, 순결한 편에서 약혼을 취소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 결혼 후 간음의 경우에는, 순결한 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이혼 후, 범죄한 편이 죽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혼과 재혼은 사사로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부부가 별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합법적 이혼이 아닌 경우, 부득이 별거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고전 7:10-11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4) 부부의 윤리에서의 상급

성경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배우자와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 이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이 되며 자기의 상급을 마련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아내에 대하여 엡 5:22-24절 말씀을 보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럴 때 남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최후의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인가!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남편을 대해야 할 것이다.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또 아내가 거룩하고 티나 주름잡힌 것이 없이 흠없는 자가 되도록 아내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고 하셨다. 이렇게 아내의 구원에 힘쓰는 것이 자기 구원에 힘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부 서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

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찌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 25-32).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 구원이론 결과에 떠나 주님은 영원히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다. 부부사이의 하나 됨으로 이룬 그 구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실력과 영광이 결정되게 될 것이다. 벵전 3:1-7에도 부부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벵전 3:1).

남편은 아내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되니 아내로서는 이것이 가족 구원이고 자기의 전도의 열매요 자기의 상급이 되는 것이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벵전 3:7).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이는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부는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함께 받을 평생의 동역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자기 가정에서 이 천국의 구원과 상급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4. 사회윤리

기독교 윤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Joseph Fletcher의 상황윤리³⁶⁸의 영향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혼돈 속에서 참된 기독교적인 윤리

의 표준과 판단을 잃어가고 있다. 상황윤리와 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은 더욱더 복잡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으며, 생명공학의 발달과 사용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한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의 삶의 문제를 명료하게 다루는 올바른 기독교 윤리의 지침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1) 문화명령 수행으로서의 사회윤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절대 주권에 의해 날마다 다스리고 계신다.³⁶⁹⁾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인간에게 그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위임명령을 하셨다(창 1:28).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한다. 우리의 사회적 삶은 이 명령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화명령 수행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칼빈은 마태복음의 25장 20절의 주해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유용하게 사용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 장사를 한 사람이며, 이 상거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요를 전달하며 서로 교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⁷⁰⁾ 칼빈의 경제관은 단순히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profit-oriented) 세속주의적 경제학과는 근본적으로 그 출발점과 목적을 달리한다. 칼빈이 말한 상거래의 목적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serve-oriented)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숭고한 계명이 자리 잡고 있다.³⁷¹⁾ 구원받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유기체적 결속이라는 사회적 개념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368) Joseph Fletcher,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66).

369) *Inst*, I, xvi, 1.

370) 「칼빈주석」 마. 25.20

371) W. Venter, "Calvin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Institutes*"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roceedings of the Second South African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Potchestroom, South Africa: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266.

물질에 있어서의 나눔과 직업에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측면을 더욱 더 부각시킨다. 이 봉사의 실력을 연마함으로 천국에서 섬김과 봉사의 실력있는 자가 되는 상급을 마련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회 윤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커다란 신학적 틀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지닌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은 물질세계와 관계된 하나님의 창조명령수행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적 사명이 기초가 되나, 그 수행자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을 자신의 탐욕으로 이용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부정의가 초래되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중에는 3권 10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은 바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정황 속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 3권은 구원론을 다루는 부분이며 여기서 신앙, 중생에 대해 먼저 취급하고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루는 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자기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였다. 10장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내세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물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로 향하여 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는 한에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생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핵심으로서 자기 부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말한다. 기독교강요 3권 7장 처음에서 칼빈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한다(*nostrum non sumus, sed Domini*).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능력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³⁷²⁾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증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적인 존재

372) Joannis Calvinus Opera Selecta, eds, Peter Barth and Wilhelm Niesel, vol. 1(Munchen:Kaser Verlag, 1962-52), 363-4,

의 동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³⁷³⁾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gloriam Dei*)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상대로 살며,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사회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다.³⁷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3) 물질에 대한 사회윤리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부를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정직하게 노동하고 모든 악을 버려야 한다. 적게 가진 자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양식을 만족함으로 먹어야 한다.

빈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부요와 가난 모두 우리의 신앙을 증거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³⁷⁵⁾ 물질적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으나,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을 위해 나누기 위함이지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다.³⁷⁶⁾ 칼빈은 자선을 강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대사들로 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려보기위해 하나님께서 보낸 사신들이다.(*God's procureurs or receveurs*)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그들 인간들에게 우리의 자선금을 주지만, 실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계산하고 계신다. 마치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준 그 물질들이 하나님의 손위에 놓인 것처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선행위는 단순히 율법적인 자세로 행해져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한 따뜻한 마음, 형제에 대한 사랑을 수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의 몸같이 하나로 결속 되어있으므로,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물질도

373) *Ibid.*

374) C. Gregg Singer, "Calvin and the social Order,"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228.

375) 「칼빈주석」 시편 41:1절

376) 「칼빈주석」 고후 8:13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³⁷⁷⁾

칼빈은 소유의 일시성과 상대성을 강조하며 고전 7:30-31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칼빈이 소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물질들에 대해 내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³⁷⁸⁾

물질의 소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여야 한다.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서 칼빈은 현세생활에서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여 즐겨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는 금욕주의와 방종을 모두 견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지 않는 소비를 하도록 가르쳤다.³⁷⁹⁾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갈망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늘나라로 가고 있는 성도의 순례의 길에 방해되지 않고 돕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 너무 집착함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 과도한 물욕을 절제하며 풍부이나 빈핍이나 어디에서든 지족하였던 사도바울과 같이 하라는 것이다(빌 4:12).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

377) 칼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난한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한 배려를 몸소 가르치고 실천하였다. 그 당시 제네바에 모자라는 식량으로 말미암아 일부 부유층의 독점과 투기를 신랄히 비판했으며 강단에서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착취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부정을 정죄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결코 혁명을 용납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갚아주실 것을 가르쳤다.

378) *Inst*, III, x, 4.

379)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다. 칼빈은 즐기기 위한 소비를 금하지 않는다. 우리의 입맛을 주신 것은 맛을 즐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모두 우리의 오관으로 느끼고 누리도록 창조된 것이다. 지나친 금욕주의는 이러한 창조원리를 거스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또한 이 세상 것들을 지나치게 탐하는 방종도 금하고 있다. 이 세상 것들은 본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우리의 육욕에 따라 세상적인 것들에 폭빠져서 하나님 명상에 걸림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다. 소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지 않는 양심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이다. 그런 영역에 범조문을 세워 속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바른 성경적 원리 안에서 자유임을 명심해야한다.

에 대해 책임성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눅 16:2 “네 보던 일을 셈하라”는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소비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경영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때 그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4) 노동과 직업 및 임금에 대한 사회윤리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정한 신성한 것이다.³⁸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칼빈은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사회의 공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귀하게 생각했다. 하나의 직업의 고귀성은 그것이 인간사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삶의 방식보다 더 하나님에게 칭찬 받을 만한 일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³⁸¹⁾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사회에 대한 봉사가 곧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연결된다. 그는 로마교의 성속분리의 이분법적 윤리관에 반대하여 인간생활의 사회영역을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직업의 평등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아무리 미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수행 능력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실력으로 수행해야 한다. 직업이란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도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도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보상이라 함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에게 그 존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순한 순종만이 있을 뿐 아무 보상을 요구

380) 「칼빈주석」 창 3:17

381) 「칼빈주석」 마 25:24

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지, 우리의 일의 가치 때문이 아니다.”³⁸²⁾

임금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그것을 없
애면 안된다.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해 부여하신 것을 전달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가로
채거나 줄이는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용자 입
장에서도 임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³⁸³⁾
칼빈은 고용자가 임금을 줄 때 기준은 그리스도인들로서 황금률과 사랑의 계명
에 따라 후하게 정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적인 제정 액보다
더 많이 주어야 할뿐만이 아니라 피고용자에게 인격적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
다는 것이다. 임금책정에 있어서 미리 합의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며 외부인의
중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³⁸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와 생명을 인
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상의 보수인 것이다.³⁸⁵⁾ 신자들은 직업과 노동의 현
장에서 임금에만 연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야 할 것이다.

5. 생명윤리

기독교 윤리에서 생명윤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
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오늘날 임신
중절, 낙태의 문제, 자살 등 인명경시 풍조와 과학의 발달과 함께 복제인간, 배

382) 「칼빈주석」 눅 17:7

383) 칼빈은 노동자로부터 정당한 지불을 빼앗는 고용자들을 종종 “흡혈귀
(bloodsucking)”라고 불렀다. “인간의 노동력은 가지고 투기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고,
인간의 땀이요 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
를 기대할 수 없고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칼빈주석」 신 2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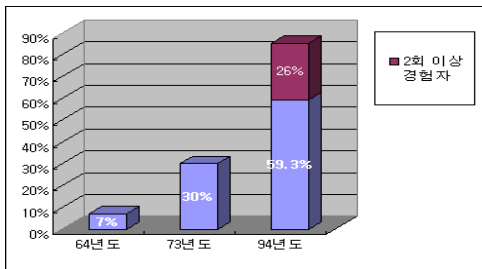
384) 실제로 칼빈은 그의 제네바의 동역 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급
료를 올려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또한 노사분규에 중재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
당시(1559) 제네바는 리용과 파리를 휩쓸었던 파업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졌고 경제는 회복되었으며 생산은 증대되었다.

385) 앙드레 비엘러,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음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5), 91.

아줄기세포 등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현대의 바벨탑을 만드는 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

1) 낙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낙태이다. 낙태는 대단히 큰 사회악이다. 낙태로 죽어가는 어린 생명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 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한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1994년 갤럽 조사를 기준). 낙태 건수는 놀랄만한 속도로 증가했다. 한 해 150만 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 가는 것이다.



1998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5-44세 기혼 여성의 44퍼센트가 한번 이상 낙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⁸⁶⁾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70%) 상황에 따라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70%)고 하는 이중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감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는 증거이다.³⁸⁷⁾

그동안 정부가 대가족협회를 통하여 인구조절의 한 방법으로서 낙태를 적극적으로 방임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비판받아야 한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

386) 조선일보, 2001. 11. 17, 21쪽.

387)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 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이것은 성적 부도덕과 더불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악이다. 실제 태아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또 전체 낙태 건 수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이들 중 85%가 10대이다. 이는 그만큼 사회 전반에 성적 문란이 가득차 있다는 증거이다.

화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³⁸⁸⁾

우리는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³⁸⁹⁾ 또 부득이하여 태어난 사생아가 있어도 이를 사회가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³⁹⁰⁾ 사회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양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이라는 불우한 사건으로 인해 생겨난 아이를 살생하지 말고 우리의 아이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낙태의 문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한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1980년 합법적으로 행해진 낙태는 150만 명이었고 그 중 79%는 미혼자들에 의한 것이고 30%는 청소년들에 의한 것이며 심지어 1%는 15세 이하의 경우이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낙태를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초 낙태를 합법화한 미국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는 낙태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며 여성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1986년 미합중국 장로교회(PCUSA) 총회도 낙태를 지지하였다.³⁹¹⁾ 미국

388) 현행법 자체가 문제시하고 있는 낙태를 사회공기(公器)인 가족협회가 무시해 온 것이다. 가족협회는 임신, 출산, 육아, 피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함께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널리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사람을 죽이는 낙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임을 통해 계획된 임신을 유도할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89)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입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390) 기형아나 장애아를 보육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 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 잘못 출생된 아이들이라도 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391) Religious News Service, 18 June 1986.

연합그리스도의 교회(UCC)도 공식적으로 낙태를 지지한다.³⁹²⁾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낙태하는데 대해 목회자들이 묵인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 혹은 인공 임신중절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범하는 죄, 즉 살인죄이다. 출산 이전의 인간 태아도 인간인 것이다.³⁹³⁾ 그러므로 성경은 낙태를 살인으로 보고 있다.

출 21:22-25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 . . 갚을지니라.

만일 조산된 아기가 죽었으면 살인죄가 적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태아는 인간 생명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유전학적으로도, 수정란은 정상적 인간의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³⁹⁴⁾ 의학적으로도, 인간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 시작된다.³⁹⁵⁾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의학

392) *Calvary Contender*, 1 January 1999.

393) 성경은 태아를 ‘아이’로 부른다. 누가복음 1: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또 성경은 태아를 가리킬 때 인칭대명사를 사용한다. 예레미야 1: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출생하기 전에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다. 갈라디아서 1:15,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394)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는 각각 23개씩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임신이 된 수정란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 이것은 정상적 성인의 염색체 수와 같다고 한다. 가이슬러, 『기독교윤리학』, 189.

395) 임신 3주째면 벌써 심장 근육이 움직이고 머리, 팔, 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40일에서 42일이면 뇌파가 감지되고, 2개월이면 코, 눈, 귀, 발가락이 나타나며, 심장이 뛰며 혈액이 흐르고 뼈가 형성되고 모든 육체 기관들이 존재하며 활동한다고 한다. 3개월이면 걷는질하고 주먹을 쥐고 혀를 움직이며 손가락을 빨 수 있고 육체적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4개월이면 몸무게는 6배로 늘어나 출산시 몸무게의 약 2분의 1이 되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5개월이면 피부, 머리털, 손톱이 생기고 꿈을 꿀 수 있고 공기가 존재한다면 울 수 있고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한다. 가이슬러, 190-191.

적으로 낙태 혹은 인공 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없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은 태아 살해이기 때문이다. 낙태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낙태가 보편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성윤리에 대한 무지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윤리 교육이 사회 전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나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무책임하게 성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덕 순결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순결교육을 시키고 순결서약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므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성전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며 영원히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2) 산아제한

오늘날 산아제한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산아제한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 4.5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이제 1.16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는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일본보다 낮은 것은 물론 독일, 영국, 스페인 등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밑도는 수치다. 2020년 인구가 본격 감소하고 2026년에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다는 예측을 들어, 15년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SBS가 컨설팅업체 매킨지와 함께 예상한 '미래'는 처참할 정도다. '불과 20년 뒤면 1명이 벌여 1명을 부양하는 인구피라미드의 대역전이 발생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붕괴되고 의료체계도 견뎌내지 못한다. 개인은 소득의 50% 가까이 공제당하고 따라서 가정도 해체 위험이 커진다.³⁹⁶⁾

과잉인구를 염려하여 산아제한을 하려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인 것

396) 환경비즈니스, 2005. 12. 11.

이다.³⁹⁷⁾ 또한 인간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결혼을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자녀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인구감소라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산아제한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에덴동산에 사람을 두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창 1:28). 홍수심판 후에 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결혼의 선물로 축복의 열매로 주셨다. 따라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는 것은 축복이다.

시 127:3-5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자녀가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산아제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며 신앙으로 양육하여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원히 하늘의 상급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배아 줄기세포의 문제와 인간 복제의 문제

오늘날 과학은 인간복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것

397) 왈스 프루반은 진술하기를, 루터는 산아제한을 동성애와 같다고 말했고 칼빈은 그것을 미래의 인격들에 대한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도르트 회의는 피임이 낙태와 동일한 것이라고 진술한 성경주석을 출간했고 웨슬리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Charles D. Provan, "The Bible's View of Birth Control," *Christian News*, 29 February 1988, 1, 11-14.

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간복제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과학의 남용을 막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인간 복제란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생명 복제 기술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 복제는 수정란의 자궁 착상 전까지의 전배아의 복제와 개체 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배아 복제는 배아줄기 세포이다.

(1) 배아줄기세포의 문제

2005년 5월20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와 함께 치료용 배아줄기세포³⁹⁸⁾ 배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³⁹⁹⁾ 난치병을 앓고 있는

398) 줄기세포 연구는 유전자 연구와 함께 21세기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 몸에는 210여 가지의 세포가 있는데 처음에는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이 된다. 배아의 발달단계에서 특정 부분의 세포들을 분리, 배양하면 이론적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종류의 세포든지 생산할 수 있다. 많은 질병들이 세포의 기능이 망가져 생기는 것이다. 세포가 망가져 기능을 못할 때는 제 기능을 하는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넣어주면 된다.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용의 세포, 조직을 만들어 내면 해결이 된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척수손상,뇌졸중,화상,심장질환,당뇨병 등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배아줄기 세포가 모든 난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질병 치료를 위한 방법의 하나, 가능성의 하나일 뿐이다.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는 없다. 또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아직 가능하지 않다. 배아복제줄기세포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질병 치료에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줄기세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5년 밖에 안됐는데 환자들은 벌써 치료법이 상용화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줄기세포 시술이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치료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배아줄기 세포의 경우 이제 겨우 동물실험이 시작된 단계일 뿐이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외국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에 실패했다는 보고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마치 줄기세포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지고 있다. 박재현(외과 전문의,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총무), “난치병 치료와 줄기세포연구”, 성산생명 의료윤리 연구회, 사랑의교회 생명윤리선교회, 2005, 4, 25 발표된 글.

환자의 체세포에서 핵을 채취해 이를 인간 난자에 주입해 인간배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배아줄기 세포 실험은 생명윤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실험에는 185개의 난자에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인간배아를 만든 후 여기에서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다고 한다.⁴⁰⁰⁾ 말하자면 185명의 인간배아를 만들어 얼마간 자라게 한 후 여기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고 그 인간배아들은 폐기처분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되고 폐기처분된 185명의 인간배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 인간배아들은 자궁에 착상되어 영양분만 공급 받으면 우리와 같은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인간 생명이며 한 인간으로 모든 유전정보를 지닌 독립적 개체인 셈이다. 사람은 이러한 인간배아 상태를 거쳐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⁴⁰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나 양이나 똑같이 얼마든지 실험하고 복제하고 실험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에서 복제양이 나왔을 때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금지된 법이 없으므로 윤리를 무시하고 배아 복제를 만든 것이다. 윤리적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연구는 제대로 인정받기 힘든 것이다.

배아복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4일 전의 배아는 장기가 분화되기 전의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며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⁴⁰²⁾ 그러나 1살 된 아이와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에 차이가 없듯이 수정 후 14일 이전과 14일 이후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 배아는 모래 한 알의 3분의1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식도 없고 느낌도 없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399) 이러한 황우석 교수의 발표는 지금 진위논란으로 서울대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고 서울대 조사 위원회는 2005년 12월 23일 중간발표를 통해 황우석 교수가 발표한 science 논문은 심각한 조작이 있었음을 밝혔다.

400)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난자를 사용하였고 실제 줄기세포는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음을 밝혔다.

401) 박상은, “황우석교수 줄기세포 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일보, 2005, 5, 25.

402) 노영상,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기독교인의 책임윤리”, 국민일보, 2005, 7, 28.

또 자궁에 전 착상되기 전 단계를 배아라 하고 착상된 배아를 태아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단지 점진적인 성장이 있을 뿐이며 어떤 명확한 구분선이 없다. 성경에는 출산 전 태아와 출산 후 아기에 대한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착상 전 태아와 착상 후 태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성경은 어머니 배 속에 잉태된 태아를 인간 존재로 간주한다.

창 25:22

아이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시 139:13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시 139:16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렘 1:4-5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갈 1:15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따라서 기독교 입장에서는 수정 순간부터를 인간 생명의 시작이라고 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도 나약한 인간배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태중의 인간배아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사벳은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다. 예수님은 10개월이나 마리아의 태중에서 인간배아와 태아로 지내셨다. 따라서 인간 배아도 천하보다 귀한 인간생명인 것이다.

물론 황 교수 등은 배아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배아를 가지고 연구하며 실험하고 그로부터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려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아

직까지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병을 치료한 일은 없다. 따라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만 가지고 수많은 인간 배아들을 파괴하는 실험을 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연구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계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배아의 생명을 파괴해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을 다른 사람의 잠재적인 치료 가능성 때문에 희생시키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인간을 나이에 따라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공동대표 강영안 김동호 김일수)은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인간의 생명 파괴 행위로 규정, 정부에 연구 지원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생명 가치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기본법 개정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기윤실 전재중 집행위원장은 “선진국은 배아 실험을 법으로 금했고 유엔도 올해 초 복제 배아 실험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며 “우리도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윤리적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생명의 존엄과 권리에 합의를 세계의 정신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기윤실은 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⁴⁰³⁾

403)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05년 9월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배아도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김일수(법대) 교수는 우리나라를 “착상 이전의 배아에 대해 임의대로 처분해도 법적 제재를 하지 않는 생명 경시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윤리보다 난치병 예방, 치료법 개발에 무게를 뒀다”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관계부처 장관, 생명과학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3분의 2를 차지해 생명윤리적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누가회 박상은(샘안양병원장) 생명윤리위원장은 “배아는 모든 유전정보가 담겨져 있는 인간 생명이므로 배아복제는 생명 창조에 해당된다”며 “이는 하나님의 역할을 침범할 뿐 아니라 생명을 필요에 따라 수단화하는 상황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대 길원평(물리학) 교수는 “온전한 DNA를 갖춘 생명체인 배아 줄기세포보다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처럼 거부 반응이나 암발생의 부작용이 없으며 이미 임상실험을 통해 상당한 연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회자를 위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배아 줄기세포 연구 감시팀 발족 및 생명윤리 캠페인도 실시하며 황우석 교

배아복제 연구가 곧 줄기세포연구의 전부는 아니다. 줄기세포는 배아만 아니라 탯줄의 혈액, 태반, 그리고 우리의 몸 여러 곳에서도 구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골수나 피부에서 분리한 성체줄기세포이거나 태아의 탯줄에서 분리해낸 제대혈 줄기세포도 있다. 난치병을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인간배아를 복제한 후 이를 파헤쳐 줄기세포를 추출하지 않아도 인간배아가 아닌 성체줄기세포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윤리적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효과를 보는 임상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보다 좋은 치료법 개발의 희망이 실제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것보다 더욱 빠르고 크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많이 진전된 임상 실험에 근거한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난치병 환자들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치중, 더 좋은 줄기세포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학은 인간 생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과학이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누릴 권한은 있으나 생명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 생명의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 생명(창 1:27)은 환자이든지 인간배아이든지 누구도 해쳐서는 안될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존재이다.

(2) 개체복제의 문제

배아줄기세포의 문제는 인간 개체 복제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개 복제를 하였다고 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1996년 복제 양 돌리의 탄생으로 시작된 동물 복제는 소 돼지 원숭이 토끼에 이어 미국에서 고양이도 복제됨으로써 애완동물 복제의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순천대

수의 연구를 공식 인정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공개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2005, 9, 15

공일근 교수가 2004년 8월 고양이 복제에 성공한 가운데 이제 황 박사가 개 복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 복제는 동물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인간복제로 이어질 파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물 복제를 계속하다 보면 인간 개체 복제의 길로 나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인간 배아를 복제한 것이 사실상 인간 복제 시도인 것이다.⁴⁰⁴⁾

개체복제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아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초기단계에서 멈추게 하여야 한다. 배아 복제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크게 위배하는 인간 복제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복제인간에 대한 과학적 메커니즘의 핵심은 체세포 복제 기술이다. 정상적인 생명 탄생 과정은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 세포가 분화,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등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수정 과정 없이 곧바로 수정란에서부터, 그것도 원하는 유전자를 분화시키는 이른바 체세포 복제 기술의 활용이 최근 가능해졌다.

예컨대 난치병 치료를 위해 환자의 체세포 핵을 미리 준비한 난자의 핵 속에 집어넣어 그것을 분화시키면 그 세포는 마치 수정란이 분화해 태아로 발전하는 과정처럼 자라게 된다. 아직까지 이런 체세포 복제 기술로 태어나 신생아 등을 복제했다는 보고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로 복제인간이 출현할 수 있는 시기를 50여년 이후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 기술로 복제된 양이나 돼지, 말, 쥐, 고양이, 산양 등 동물에 비해 인간복제는 그만큼 까다롭다는 의미다.

복제인간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정상적인 수정 과정에 의한 태어나 신생아와 똑같은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인간도 정상적인 인간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영적 문제나 근원적 존귀함에 있어서 정상과정을 통해 탄생한 인간과 차이가 없으며 영혼의 존재 또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인간 복제는 출산보다 제조의 개념에 가까운 것이다. 복제된 인간은 부모도 없을 것이며, 원본 인간과의 구별의 어려움으로 그 개체성 혹은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비인간화의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⁴⁰⁵⁾

404) 이승구, “중착역은 ‘인간복제’가 아닐까”, 국민일보, 2005, 8, 4.

따라서 복제인간은 당초 하나님의 형상(창 1:27)으로 창조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한 행위인 것이다(창 11:5~9).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까지 우리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의 방법과 방향에 대해 우리가 신중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든 존재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책임 있는 윤리를 보여 주어야 한다.⁴⁰⁵⁾ 따라서 생명공학이나 유전공학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창조주의 설계와 목적과 그 분의 의도에 맞게 자연과 생명 공동체에 대하여 좀 더 책임 있는 윤리 의식을 가지고 두려움과 경외 속에서 자신들의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고후 2:16).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경시하지 않도록 생명존중의 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배아도 소중한 생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리는 과학의 활동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계 2:10).

제 8 장 천국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전 장에서 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하였는바 이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 상급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제 상급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자. 이 장에서는 먼저 상급의 수여자와 수혜자를 분명히 한다. 상

405) 기독교신문, 1998. 1. 14, 16쪽; 크리스찬신문, 1998. 1. 26 쪽.

406) 김영환, "생명복제와 개혁신앙", 『생명복제와 개혁신앙』, 22.

급의 수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특히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나누어 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또한 상급을 받는 수혜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다음에 상급의 원리를 다룬다. 상급의 대응성의 원리 은혜성의 원리, 경건성의 원리를 다룬다.

그 다음에는 상급의 동기와 목적, 상급의 등급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것이다. 성경에 구체적인 차등 상급이 있음을 설명하고 성경에 나오는 차등 상급의 내용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급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통하여 천국 상급에 대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고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다.

제 1 절 천국 상급의 수여자와 수혜자

1. 상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여하에 따라 상벌을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형벌 심판을 면제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절대로 형벌 심판은 받지 않는다. 신자에게는 상급의 심판대만 있는 것이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고전 4: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룻 2:12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 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상급은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보상이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여야 한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음생활을 힘썼던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11:24-26)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 8:17)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의인의 삶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잠 11:18).

2. 상급의 분배자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을 위임하신 것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요 5: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구별하지 않는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요 5:27; 행 10:42; 딤후 4:1,8; 벰전 4:5).

내가 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5:24)

그리스도는 심판주로서 신자들에게 상급을 나누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빌 2:9-11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이제 구속주로서 심판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다. 통치자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archgōv", ruler)이며 70인 역본에서 약 35회 나오고 주로 로쉬('머리, 정상, 우두머리, 장' 등)의 역어로 사용되었다(민 25:4; 삿 5:2; 5:15; 대상 8:28; 느 11:16 이하 등).⁴⁰⁷⁾

명사 아르케고스는 신약성경에서 4회 나오며,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만 사용되었다. 아르케고스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행 5:31에서 그리스도는 지도자, 통치자로서 아르케고스이다.

407) J.H.Thayer; Walter Bauer G.Oelling; H.Bietenhard, TDNT 3, 342.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아르케고스 곧 **임금**(과 구주)을 삼으셨다.

행 3:15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아르케고스이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창시자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요 1:4). 히 2:10에서 그리스도는 특히 창시자로서 아르케고스이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의 선구자요, 창시자이다(히 5:10; 6:20).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사역과 형상이 인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다.

히 12:2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목적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단지 구원의 창시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자이시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로서, 그리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 그의 믿음을 실천하시고 인간의 죄의 장벽을 극복하신 첫 본보기로서 우리의 믿음의 아르케고스이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 3:24)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최후의 심판 때에 신자들의 충성한 정도에 따라 상급을 분배하여 주실 것이다.

마 16: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3. 상급을 받는 교회

우리 신자들은 지상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하며 이웃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최후의 심판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교회의 지체된 신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것이다. 신부된 교회의 신자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가 베푸는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부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결혼함으로 신랑이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지듯 그리스도와 결합된 성도의 모든 면을 완전히 신랑되신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밤중에 찾아온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함으로 등불을 켜고 신랑을 영접하고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밤중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인 교회는 신랑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실력은 다 다를 것이다(마 25: 21, 23).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내주해 계시며 성령과 진리로 감동시켜 주시며 인도해 주실 때에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얼마나 충성을

하였는지 평소에 성령과 진리에 결합된 행위는 의인으로 의로운 행위로 통과함으로 영원히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의로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계 19:7-8). 현실에서 이 실력을 길러서 앞으로 신랑되신 주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세마포 예복을 입고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장에 이 혼인잔치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계 19:7-8).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할 신부들은 성도들인데 그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는데 그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옳은 행실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몸을 정결케 하고 신랑을 간절히 기다린다. 의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신자들이 그의 삶을 정결케 하고 주 앞에서 의롭게 살며 영혼 구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여 한다.

제 2 절 천국상급의 원리

상을 얻는 데는 반드시 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 경주자가 규칙을 어긴다면 아무런 상이 없고 실격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경주와 같다. 규칙에 따라 경주를 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달리기 선수가 상을 얻으려면 향방 없는 것같이 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바로 달려가야 한다. 또 권투 선수가 경기할 때 허공을 향해 치지 않고 목표물을 바로 정해서 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죄악의 요소를 모두 버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 9: 25-27).

상급의 원리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대응성(equivalence)의 원리

신자의 충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상급을 분배하여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순종에 대응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대응성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면에서 상급의 은혜성도 있지만 순종에 대해 주시는 상급의 대응성을 배제하면 상급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리델보스(Ridderbos)는 이 대응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사람이 행한 것과 그가 받을 것 사이에 깨뜨릴 수 없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다(마 24:45이하; 25:14-30; 25:31-46; 12:36,37).⁴⁰⁸⁾

상급에 있어서 이 대응성의 원리는 상급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이 대응성의 원리는 마 25장 14-30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잘 나타나 있다.

408) H.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Translated by H. de Jongste. Edited by Raymond O. Zorn(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62), 226.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충성한 신자들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주님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신 다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ejpi; ojlivga hpistov", ejpi; pollw'n se katasthvsu:)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사역을 상급으로 맡겨주셨다(마 25: 21,23).

여기서 ‘작은 일’은 명사 ‘올리고스’(ojlivgo"v)로서 양 또는 규모에 대해 ‘적은, 작은’ 수를 말하거나 시간에 대해 ‘짧은’ 시간(행 14:28 계 12:12)을 말할 때 사용된다.⁴⁰⁹⁾ 부사적으로는 시간에 대해, ‘잠시, 잠깐’(막 6:31 벘전 1:6 벘전 5:10 계 17:10), 공간에 대해, ‘약간, 더(앞으로)’(막 1:19 눅 5:3)를 말할 때 쓰여 졌다. 반면 큰 것을 의미할 때 형용사 폴뤼스(poluv")는 다수 무리에 대해, ‘많은, 수많은, 큰’ 분량, 무게, 힘, 강도, 크기 또는 행위, 감정, 상태에 대해, ‘많은, 큰, 강한, 강렬한, 넓은’ 시간에 대해 ‘많은, 긴, 오랜’, ‘많은 것’을 의미한다.⁴¹⁰⁾ 또 맡긴다는 뜻인 카디스테미(kaqivsthmi)는 ‘인도하다’, ‘임명하다’, ‘지명하다’, ‘책임을 지우다’는 의미이다.⁴¹¹⁾ 행 6:3에서 집사들에 대해, 딤후 1:5에서 장로들에 대해 직무나 지위에 임명하거나 책임을 지운다는 의미로 나타낸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맡겨 주신 것인데 ‘작은 일’이라 하였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에 비하면 하루 밤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으로서 시간적으로도 지극히 짧고 변하는 것들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셨다. ‘많은 것’이란 영원한 것, 불변의 것, 완전의 것, 생명의 것, 거룩하고 의로운 것 깨끗한 것, 영광과 존귀가 가득찬 것을 말한다.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에서도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

눅 16: 10 -12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

409) Walter Bauer; J. H. Thayer, Seesemann, TDNT. 5. 171-173.

410) Ibid.

411) S.Wibbing; J.H.Thayer; A.Oepke, TDNT. 3, 440-444.

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질 것이며 진정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 하였다.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들은 영원한 내 것이 되고 참된 내 것이 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각자의 분량에 맞게 사명과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충성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더 크고 많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더구나 우리의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인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충성에 비교도지 않을 정도로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하시니 그저 황공할 따름일 것이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있는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갈 6:7-10).

2. 은혜성(gratuity)의 원리

앞에서 충성에 따라 보상해주신다는 상급의 대응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신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나 주님은 천국에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면에서 대응성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충성한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인데 주시는 상급은 충성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이라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올리고스', *ojlivgo*^v)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매우 크고(폴뤼스, *poluv*^v)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상급에 있어 은혜성의 원리라고 한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가 받는 적은 고난은 장차 주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심는 것은 썩을 것이 육된 것이고 약한 것이며 육의 것이지만 앞으로 주님이 주실 상급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강한 것이며 신령한 몸인 것이다.

고전 15장 42-44절에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것으로(ejn fqora) 심어야(speivretai) 썩지 아니할 것으로(ejn ajfqarsiva) 다시 산다(ejgeivretai). 육된 것을 심어야(ejn ajtimiva) 영광스런 것으로(ejn dovxh)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ejn ajsqeneiva) 심어야 강한 것으로(ejn dunavmei)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sw'ma yucikovn) 신령한 몸으로(sw'ma pneumatikovn)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4)고 하였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Eij e[stin sw'ma yucikovn) 또한 신령한 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e[stin kai; pneumatikovn).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현재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기 전에 입고 있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이 상급의 은혜성은 상급에 있어 공로사상을 배제한다. 신자의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천국의 상급으로 보상하신다고 하여 인간의 행위에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상에서의 상은 공로에 기초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경에서의 상은 인간에게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우하신다'고 하니까 인간의 선행에 대하여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 이 공로교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고 초대교회에 부분적으로 있어 오다가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서 받

전시킨 사상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 상급은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와 선행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선행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전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에게서 나온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께서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5:5).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 많이 고난을 당했고 역사상 아마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종이였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고전 15:10). 그는 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하였다.

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환상 중에서,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말했다(계 4:10, 11).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셨고 또 주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마땅히 받을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 11:36).

인간의 행위가 공로적 행위가 되려면 행위 자체 안에 내재한 가치와 존귀 때문에 공의에 의해 상받을 만한 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행위에 이러한 내재적 가치와 존귀를 가진 자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이다.⁴¹²⁾ 설사 인간이 그런 가치있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시지

412) L. Berkhof, 「벌콕 조직신학 구원론」, 266.

않는다.

투레틴(Turretin)은 행위가 어느 정도 공로적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갖추어 야 한다고 말하였다.

- 1)그 행위가 빛 곧 행위자가 이행할 본분 아래 있는 것이 될 것.
- 2)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일 것, 즉 우리 자신의 자연적 정력에 의해 성과 되는 것일 것.
- 3)그것이 완전할 것.
- 4)그것이 공로로 받는 상과 동치일 것.
- 5)상은 이 같은 행동에 응당한 공의의 것일 것이다.⁴¹³⁾

찰스 핫지(Charles. Hodge)는 이러한 조건들로 볼 때 피조물 편의 공의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 하였다⁴¹⁴⁾. 그는 행위와 보상은 둘 다 동일한 은혜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라 하였다. 은혜언약은 마음속에 은혜의 주입과 생활에서의 이 은혜의 수행 그리고 그와 같이 수행된 그 은혜의 보상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은혜중의 모든 것이며 은혜를 위한 은혜이며 다음과 같은 보상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제시된 은혜에 첨가된 은혜라 하였다. 즉 그것이 부지런한 순종에 대한 합리적 동기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하늘의 은사와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들과 관련하여 하늘의 보상이 지상에서의 순종에서 주어진 은혜와 은혜스럽게 비례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의에 의해 인간이 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성화와 선행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공로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해야 한다(눅 17:10). 이것이 '무익한 종의 믿음'이다. 성경은 신자가 받는 구원이나 상급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413) Turretin, *Institutio Theologiae*, L. XV II, Quaestio 5. Edinburgh, 1847.

414)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3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72-73);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2, 243.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롬 5:15-18; 6:23; 엡 2:8-10; 딤후 1:9; 딤텔 3: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진술한다.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도 공로를 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기는커녕, 그들이 의무상 해야 할 만큼에도 미치지 못한다(16장 4절).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나 선행은 상을 위한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한행실들과 내세의 영광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으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릴 처지가 못 되며, 또한 그것으로써 우리의 최악의 빛을 속상(贖償)할 수도 없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이행한 것뿐이고,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16장 5절).

그들의 선에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행한 것이면 받으시고 갚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실 상은 오직 그의 은혜 일 뿐이다(16장 6절)

따라서 신자의 선행에는 결코 공로가 있을 수 없다. 신자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당연히 자기의 의무를 한 것이요, 자기는 무익한 종일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자가 하는 선행 자체도 자기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성령의 인도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겔 36: 26,27; 요 15:5,6; 고전 15:10; 고후 3:5; 빌 2:13). 더구나 신자가 선행이 아무리 많아도 부분적인 순종에 불과하며(사 64:6; 약 3:2) 최선의 행위를 하였다 해도 금생에서는 불완전한 채로 남는다.

그리고 신자의 행위는 죄로 더러워지고 많은 연약과 흠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견디어 낼 수 없다(시 130:3; 143:2; 사 64:6; 롬 7:15,18; 갈 5:17). 그뿐 아니라 신자의 선행은 영광의 영원한 상에 비하면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현세적이고 불완전한 순종은 결코 영원 적이고 완전한 상을 받을 만한 공로가 되지 못한다. 또한 신자의 행위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도 자기의 죄의 빛을 갚지도 못한다(롬 3:20; 4:24,26; 8:18; 엡 2:8,9; 딤텔 3:5-7).⁴¹⁵⁾

415) L. Berkhof, 「벌콥 조직신학 구원론」, 267.

한편 로마 카톨릭에서는 앞서 고찰한 대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가진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트렌트 회의에서 이를 확증하였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상급을 자기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하였다. 상급의 은혜성은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마 20:1-16)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포도원 일군을 불러 일을 시킬 때에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제 11시)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지불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비유를 차등 상급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늦게 오나 일찍 오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차등이 없고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비유는 동등 상급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동등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다.⁴¹⁶⁾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면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동시에 상급론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상급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나중에 와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과 동등한 품삯을 받자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한 것이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때 와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의 입장은 단호하다.

마 20:13-14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만 그것은 원래 계약할 때 주기로 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이다. 한 데

416) 포도원 품꾼비유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살펴본 제 3장 상급에 대한 역사적 고찰 부분의 제 5절 최근 개혁주의자들의 상급관 중 상급무시경향에 대한 비판 글에 나온다.

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데 웬 불평이냐는 것이다. 뒤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주인의 뜻이요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그렇게 정한 것인데 주인의 선한 뜻을 왜곡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구원은 일찍 믿으나 늦게 믿으나 동일하게 구원을 주는 것이므로 먼저 믿은 사람이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이러한 감사는 상급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상급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충성에 대해 상급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런 상받을 자격이 없지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공로 지향적 질문에 대해 천국에는 상급이 있을 것임을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며 (19: 28) 자기희생에 대한 특별 상급을 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19:29)고 차등 상급을 언급하신 후에 곧 이어 공로사상에 대한 경고로 포도원 품꾼비유를 통하여 상급평가는 의롭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특권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차등 상급이 분명히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행위에 대한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경건의 원리

상급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경건의 원리이다. 경건의 헬라 원어는 '유세베이아'(eujsevbeia)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경외함)을 의미한다.⁴¹⁷⁾

417)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신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신들에게 대한 적절한 태도로써 '경건 piety'이란 의미를 지닌다. 철학자들은 신들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참된 경건으로 보았다. 플라투타르크에게 있어서 미신과 구별되는 참 경건은 신들이 보기에 선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예배는 신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위대하고 고상한 것에 대한 존경을 의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전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6: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급에 있어서 경건의 원리는 어떤 선행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 상급이 된다는 것이다.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경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행 3:16)이며 내생에 뿐만 아니라 이생에서도 유익한 것이다(딤후 4:8).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딤후 3:16).

그리스도인의 경건(유세베이아)은 도덕적인 것이나 외면적인 예배가 아니며 영

미한다. 이 때에 경건은 무조건적인 인격적 위탁이 아니라, 순수하고 숭고한 신성의 세계에 대한 경외, 제의적인 예배 그리고 질서에 대한 존경으로서의 덕인 것이다. 이 유세베이아는 70인역에서 58회 나오며, 구약 정경에서 야레(두려워하다)와 야레 예호와(여호와를 두려워하다)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정경에서 '경외함'(잠 1:7; 사 33:6), "여호와를 경외함"(사 11:2)이란 의미를 나타낸다. '유세베이아'는 신약성경에서 15회, 사도행전, 목회서신, 베드로후서에만 나온다. '유세베이아'는 거짓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는 생활 방식과는 대조적으로, 건전한 가르침과 조화되는 경건이다(딤후 6:3; 딤후 1:1).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공로에 의한 의와는 다른 것이다(딤후 4:7; 6:5; 딤후 3:5). 거짓 교사들도 일종의 '유세베이아'를 취하지만 그들의 삶은 경건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그들은 이득을 얻기 위해 경건을 이용한다. 그들은 참된 경건의 유익을 놓쳐버리고 만다. W.Gunther; J.H.Thayer; W.Foerster, 4,576.

지주의적 금욕주의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근거한 것이다(딤후전 3:16).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이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할 때 명예심이나 자기표현을 위하여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다.⁴¹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선행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선행은 결코 상급을 받지 못한다.

마 6: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동기를 가지고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4-16절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선행을 보일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선행의 동기가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셨다. 사람의 칭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 대신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로 선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마 6:1의 말씀과 5:16의 말씀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둘 다 경건의 목적을 하나님의 상급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이다.⁴¹⁹⁾ 천국의 규범 하에 있는 의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받드

418) 박윤선, 「신약주석 공관복음(상)」, 203.

419) D. A. Carson, 「엑스포지스터스 성경주석 공관복음」,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5), 203.

시 보이도록 드러나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신자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고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신상수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하도록 주의하셨다(마 6:2-18).

따라서 신자들은 사람의 영광과 명예를 탐내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헌신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려 할 때 벌써 그 사람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마 6:1 이하).

신자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을 정죄하는 정죄의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여야 한다.

즉 세상에서 이미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았으므로 하늘나라에서 다시 받을 상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부끄러운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경건의 기준에 따라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상급 대신에 형벌의 심판하시겠다고 경고를 하고 계신다.

롬 1:18 - 20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벧후 3: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2:5-6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1:15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딤후 2:16 - 18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경건의 목적이 아닌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하는 일은 결단코 상급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공로사상이나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또한 상을 얻지 못한다. 자기는 주의 피에 팔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주장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아무 공로가 없는 죄인이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 오직 충성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무익한 종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제 3절 천국상급의 동기와 목적

상급을 향한 선행의 동기는 과연 옳은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상급 이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여기서는 상급의 동기와 목적을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1. 천국상급의 동기

예수님은 신상수훈에서 천국의 상급을 제자들에게 권면 하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상급관은 복음서 전체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상급의 동기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열한 것으로 보아 상급의 동기를 부인하는 인본주의 사상들이 있다. 이 사상들을 비판하고 바른 상급의 동기를 제시해본다.

1) 상급의 동기를 부인하는 배경

(1) 윤리적 이유

상급의 동기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칸트의 이상주의 윤리관과 이에 영향 받은 신학적 사고 때문이다. 칸트의 이상주의 윤리관은 “선은 선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다른 목적을 위해 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²⁰⁾ 이러한 영향으로 신학계에서는 상급을 바라보고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커다란 윤리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한다.⁴²¹⁾

상급의 동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순수한 윤리적 동기에 의해서 해야지 상급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⁴²²⁾ 이 사상의 극단은 모든 선은 선 자체를 위해야지 어떠한 상급도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무신론적 윤리이다. 이것은 공리주의, 실용주의, 행복주의에 대한 도덕적 생활의 절대성을 방어하는 것이다. 상의 가능성을 잊어버림으로만이 사람은 윤리적 규범을 그것의 절대적 순수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선행을 위한 동기는 다른 아무데서 추구하지 말고 오직 도덕적 무상명령 자체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급개념 뿐 아니라 모든 거룩한 신적인 의지를 기초로 한 윤리적인 고려가 무너지는 것이다.⁴²³⁾ 선행에 대한 동기는 도덕 자체의 명령에서만 추구한다는 사상은 고상한 무신론적 윤리인 것이다.

C. S. 루이스는 신약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420) 권성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 교훈"(I), 28.

421) I .H. Marshall, *The Challenge of the New Testament Ethics*(London: Macmillan,1946), 201—202.

422) Berkower, *Studies in Dogmatics: Faith and Justification*, 117.

423) E. Traeltsch, *Atheistische Ethik*, Vol. II, of *Gesamelte Schriften*, 1922, 33.

것은 자기 부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상급을 바라기 위함이라 하였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바라는 욕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칸트와 스토아학과와 같은 철학자들의 생각이라고 하였다.⁴²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순 윤리적 견해들보다 매우 다른 태도를 취한다. 성경은 성경에서 약속된 상급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율법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앞이니 ..”(골 3:23,24) 하였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고 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며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 6:10)”고 하였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고 하였다. 따라서 믿음으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카톨릭의 공로사상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윤리지상주의가 아니다. 성경은 동기 없는 윤리의 냉담함을 가르치지 않는다.⁴²⁵⁾

오히려 주님의 상급을 거부하고 의무 자체를 위해 선행한다는 생각이 불순한 것이다. 왜냐하면 “덕 자체를 위해 덕을 행한다.”는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 하는 상급에 대한 일체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미덕을 자랑하려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기주의적인功利주의(utilitarianism)를 주장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개인적인 행동을 고려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 이를 희생시키면서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천국의 상급을 동기로 제시하셨지만 이는 타인과 분리된 자기중심의

424) C. S. Lewis, *The Weight of Glory* (New York: Macmillan, 1980), 17-18.

425) Berkower, *Studies in Dogmatics: Faith and Justification*, 118.

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타인들과 보다 나은 관계를 갖는 면에서 제시하신 것이다. 즉 공리주의와 행복주의는 그것이 집단주의건 개인주의건 순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이익에 기초하고 있으나 예수님이 제시하신 상급교훈은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자기부정과 자기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반 율법주의적 견해

상급의 동기를 반대한 주장으로 반 율법주의 견해가 있다. 반율법주의 자들은 선행과 상급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율법의 적극적 요구를 응답하셨으므로 신자는 그것을 수행할 의무를 면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롬 6:14 말씀에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아래 있다”는 말씀을 오해한데 비롯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형벌의 체계와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율법은 폐지되었지만 성화를 위한 율법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⁴²⁶⁾

또한 반 율법주의자들은 주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기쁨과 자원함으로 헌신해야지 상급이 동기가 되어 순종하면 법에 매이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백성으로, 법과 규율로 통제 받는 구약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 아래 매여 억지로 일하는 것은 상과 벌에 연연하며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다. 크고 작은 상에 연연하며 일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그 힘이 동기가 되어 우리를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면 경쟁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신약의 법이고, 이것이 은혜로 구원 받은 자녀의 도리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욕망은 다 악한 것이다(약 3:14 -16). 탐욕, 미움, 부도덕한 욕구, 혹은

426)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372.

분노에서 하는 행동도 모두 악한 것이다(엡 4:17-5:5).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다. 상급은 믿음의 동기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상급을 바라는 것이 믿음에 의한 정당한 동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히 11장 26절에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모세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인가? 바울도 빌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쫓아가노라” 하였는데 바울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다.

마음의 동기에 관한 문제는 실제 적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주요한 질문과 문제점을 불러 온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는 상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마 7:7-11),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다(요 3:16).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순수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상급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선행하는 것도 매우 순수한 것이다.

(3) 실존주의 신학의 영향

상급동기를 부인하는 또 다른 사고의 예를 볼트만과 본캄의 실존주의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실존주의에 바탕을 둔 신정통주의자이므로 상급을 실존주의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상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과는 거리가 멀다.

볼트만(R. Bultmann)은 상급을 ‘자기 굴복을 통한 자기실현’으로 정의하였다.⁴²⁷⁾ 이것은 인간 자율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급개념은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평가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다.

본캄(G. Bornkamm)도 볼트만과 같이 상급동기를 부인하였다.⁴²⁸⁾ 그는 예수님이 상급을 행동의 동기로 삼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마 6:3)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상급동기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인간에게서 받는 칭찬이나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구분하지 못한 발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인간의 행동의 동기에 분명히 드러내셨다(마 6:1). 예수님은 인간의 자기 평가를 통한 상급기대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지만(마 20:1-6)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으로 상급을 바라보도록 동기를 부여하셨던 것이다.

2) 상급의 정당한 동기

지금까지 상급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상주의 윤리관과 이 이상주의 윤리관을 비판하며 상급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급의 동기를 부인하는 실존주의적 상급관의 잘못된 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상급에 대한 바른 동기는 무엇인가? 이를 알기 위해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자.

(1)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

신자에 대한 상급을 일반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이 크게 생각지 않는 것은 상급에 대한 정당한 동기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다. 상급의 동기는 실제로 즐거운 주제이며 경건한 생활을 격려하는 자극제가 된다.⁴²⁹⁾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욕구이다. 세상의 권력이나 소유, 쾌락의 욕구는 저질스러운 것이지만 상급은 신앙인에게 있어 올바른 동기인 것이

427) 권성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 교훈"(IV), 「신학지남」 55권 216호 (1998), 63.

428) *Ibid.*, 64.

429) Wilber Smith, "Inheritance and Reward in Heaven", *Eternity*, March 1977, 79.

다.⁴³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관해서 믿을 수 있는 기초는 첫째 그 분이 계시다는 것과 둘째 그 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히 11:6). 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상급에 대한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정당한 동기인 것이다.

예수님은 선행의 결과를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권고하심으로 상급의 정당한 동기를 강조하셨다. 인간에게는 은밀한 가운데서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진다(마 6:1, 4, 6, 18). 즉 하나님 아버지는 선행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 보시며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 다 살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하셨다(눅 14:13). 그러면 저희들은 갚을 것이 없어 갚아주지 못하니 자신에게 도리어 복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다(눅 4:14). 이 얼마나 주님의 자상한 배려인가?

이렇게 상급에 대한 약속과 지극히 큰 상급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진장한 보화를 바라볼 수 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상주심’을 바라봄이었다(히 11:26). 바울도 일평생 충성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고전 9:24-27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430) Randy Alcorn, 「상급받는 그리스도인」,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4), 140-141.

딤편후 4:6-8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모든 신자들에게 상급을 동기로 삼으라고 권면하였다(갈 6:9-10; 딤편전 6:17-19). 종들도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이다(엡 6:7-8). 이렇게 바울은 상급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동기임을 강조한 것이다.

17세기 청교도 목사 번연은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어 천로역정을 쓴 존 번연도 상급의 동기를 강조하였다.

상이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우리는 기쁨에 겨워 그것을 기억해야 하며 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는 것을 절대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⁴³¹⁾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 데도 상급의 동기가 비열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다.

(2) 신본주의적인 상급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선행을 하는 이기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 과시 주의를 경고하시고⁴³²⁾ 하나님은 상주신다는 신본주의의 상급의 정당한 동기를 제시해주셨다.

431) John Bunyan, "Paul's Departure and Crown," www.johnbunyan.org/text/bun-paul.txt.

432)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수님은 "ajpevcousin to:n misqo:n aujtw'n."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심으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마 6:2, 5, 16). 그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상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이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이다. 즉 인간의 상급과 하나님의 상급은 상호 배타적이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육신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잠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다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타인에게나 하나님에게 자기상급을 주장하기 위해 인간의 업적을 측정하고자 하는 일체의 생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화를 겨냥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상급동기를 경계하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그가 하시도록 허락해드린 일에 따라 우리에게 상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수고하고 일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임무를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마치 우리 스스로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사용하신 것뿐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자기중심의 인본주의의 상급동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주의의 상급동기를 가져야 한다.

(3)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신앙은 우리의 거룩한 삶에 강한 동기가 된다.⁴³³⁾

433)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란 개념을 희석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부추기는 세 가지 강한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 첫째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고(요 3:1-16) 그의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고전 6:19) 사실을 되풀이하여 가르친다. 진실한 신자는 모두 내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살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을 근거로 값없이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롬 12:1,2).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도와 교정에 반발할 경우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두려워하게 된다(히 12:3 -17). 셋째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께 우리의 생애에 대해 셈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활방식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치는, 정신이 번쩍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상급과 베마(심판대)를 '그리스도인 생활'의 많은 진리와 결부시켜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실을 실증한다.

상급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은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사를 결정할 때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조월(Joe L. Wall)은 상급의 정당한 동기로 다음의 내용들을 제시하였다.⁴³⁴⁾

① 우리가 계속해서 경주의 푯대를 바라보고, 주 예수 앞이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목표를 바르게 잡을 것이다(빌 3: 8 -14).

② 우리가 상급의 교리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청지기적의 바른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마 6:1-4, 19-21).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다면, 우리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딤후 4: 6-8).

③ 우리가 복음 전도와 제자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우리는 가장 고귀한 영원한 상급 가운데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다(살전 2: 1-20).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때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④ 베마에서 예수께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영적이고 더 실천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은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려는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요일 2:28-33).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벧후1:5-11).

⑤ 베마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산에 미치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요일 1:9, 2 28).

⑥ 영원한 상급과 기업을 물려받을 약속을 기대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려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히 11:6, 39 - 46, 12: 17). 고난에 직면하여 끈기 있는 신앙을 발휘할 때, 우리는 큰 상급을 얻을 것이다(약 1 12; 계 2 10).

⑦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볼 때, 성령으로 행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갈 5:16-6: 9).

⑧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에 관한 많은 말씀은 무리를 격려하고 많은 위로를 준다.

㉞ 사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을 때 무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

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Joe L., Wall, 22-25.

434) Joe. L. Wall, 「그리스도인의 상급」, 23-24.

도의 변호에 대한 약속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요 14:1-3; 살후 1 :4-10).

㉔ 비난을 들을 때, 최후에 예수께서 모든 사실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선언하시리라는 진리는 더할 수 없는 격려가 된다(롬14 : 1-13).

2. 상급의 목적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신자가 상급을 받을 공로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만 있지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눅 17:10)고 고백할 것뿐이다. 그러나 주님은 충성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상급을 주시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신자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각양의 현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연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까지 주시라고 약속하셨다. 주께서는 이 복을 '상', '보수', '보상'이라고 부르신다(마 5:12; 6:1 이하).⁴³⁵⁾ 이는 행위의 공로를 고려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받을 불행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소망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다.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미래의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현재의 시련을 참고이길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벧전 4:12-13).

2)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격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죽도록 충성하여야 한다. 주님

435) *Inst.* III. 18. 4.

께서는 이 충성을 격려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위해 상급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모세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였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

모세는 궁중에서 자라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은 장래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하신 것이다.

바울도 우리의 충성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9-10).

우리가 장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3) 천국에서 상을 분배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천국에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앓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 3:21)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꺾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꺾박을 감당하고 고난을 참고 승리한 자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딤후 2:12)

이렇게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분배해주셔서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똑같이 한 므나를 받았지만 열므나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므나 밖에 남기지 못한 종들의 비유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볼 수 있다(눅 19:11-27). 열 므나를 남긴 사람은 열 고을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 9 장 천국상급의 등급과 그 내용

이제 천국 상급에는 등급이 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제 1 절 천국상급의 등급

상급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지만 상급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 순종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상급에 그 등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성도의 선행과 봉사에 따라 은혜로 내려주실 상(賞)은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차등 상급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 나타난 차등 상급의 예를

살펴보고 이 상급과 영생과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차등 상급에 대한 성경의 증언

성경은 상급에 등급이 있음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 나는 너의 방패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 15:1 하반절)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창 15:2)라고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인 축복임을 아브라함은 이해하였다.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전 약속대로(창 12: 1-3) 구체적으로 후손을 상급(선물)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창 15:4,5),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15:6). 여기서 상급을 나타내는 명사 사칼(**rk;c;**; 70인 역에서는 미스도스, **misqov**"로 번역됨)은 아브라함의 진실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⁴³⁶⁾ 즉 언약의 진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차등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면에서 상급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호와 상급으로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신상수훈에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란 구절(마 5:19)을 통해 차등 상급을 말씀하셨다.⁴³⁷⁾ 또 마 5:12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oJ **misqo;** uJmw'n polu;" ejn toi" oujranoi":)고 하심으로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기서 상이 크다는 말은 헬라어로 큰 상급(폴뤼스 미스도스, **polu;" misqo;**)으로 이는 곧 차등 상급을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차등 상급에 대한 성구는 또한 예수님의 신상수훈의 맥을 구성한다. 곧 팔복교

436) 권성수,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 연구(I)", 신학지남, 제55권 215호(1988 년): 21.

437) *Ibid.*, 19-27.

훈(마 5: 3-12), 구약과의 관계 교훈(5: 17-20), 살인 및 간음 금지(5: 21-32), 구제, 기도, 금식교훈과 천국의 보상 개념(6장)에서 차등 상급을 나타내준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보상원리나, 기도응답 약속, 좁은 문과 넓은 문, 양과 이리,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반석과 모래 등에서 차등 상급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할 때 '선지자의 상', '제자의 상', '의인의 상'을 말씀하시며 차등 상급을 언급하셨다(마 10:40-42).

또한 천국에 대한 다섯 가지 비유를 통해서 차등 상급을 말씀하셨다. 즉 노아 홍수와 주님의 재림과의 비교(마 24:14-30),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24:45-51), 열 처녀 비유(25:31-46)에서 차등 상급이 나타난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므나 비유(눅 19:21-27)에서도 차등 상급의 개념이 드러난다.

누가복음 19:16, 17,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므나 비유는 지상에서의 충성의 정도에 따라 내세에서 누릴 권세와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상급의 차등에 근거한 것이다.

바울서신의 여러 부분에도 잘 나타난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8). '우리가 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5:10).

2. 영생과 상급의 구별

신자가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로 누구나 받아 누리는 영생권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화와 선행을 이룬 사람이 그의 은혜로 받는 상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영생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상급은 차등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혼동하는 신학자들이 많다.

영생권과 상급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개혁주의 내에도 많이 있다. 그것은 요한 계시록 2장 7절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말씀과 2장 10절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온 것 같다. 그들은 이 본문에서 '이기는 자'와 '충성한 자'가 받을 상급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이나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했는데 이 생명은 신자라면 누구나 받는 것이니 '상급은 곧 영생권'이며 신자는 다 '동일상급'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³⁸⁾

물론 영생도 하나의 상급이라 할 수 있다. 영생이란 바로 영원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 외에 더 큰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은사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마 10:20)고 하였고 바울 사도도 신앙적 삶의 마지막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고 했으며(롬 6:22)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노라'(딤후 1:16)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는 어떤 보상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생의 삶을 최대의 목표로 살아야 하겠다.

그러나 영생은 누구나 받는 것이니까 차등 상급이 없고 동등상급만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큰 오류이다. 왜냐 하면 이기는 것이나 충성하는 일은 누구나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의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또 충성의 정도도 각각 다르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준다고 하였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하셨다. 만약 차등 상급에 대한 성구가 없고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동등상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많은 성경구절에서 차등 상급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생명'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한다. 생명은 누구나 다 받지만 생명을 누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지 않은가? 주를 위해 충성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보다 훨씬 더 좋고 또 영원히 계속되는 귀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충성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도 충성하고 승리한 신자가 누리는 생명의 풍

438) 그들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기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요 17: 2-3의 주님의 대표적인 기도에서 영생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곧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성한 열매들이 그 정도에 있어서 다 다를 것이다. 이 내용은 신자가 받을 상급의 내용 부분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8장에서는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는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신자의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여 차등 상급을 언급하였지만 곧 이어 2절에서 “보상은 기업이다.”⁴³⁹⁾라고 하여 천국에서 받는 기업과 유업의 상을 동일시하면서 이것을 영생권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이 상급과 영생권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천국의 차등 상급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의 근거와 관련한 로마 카톨릭의 공로사상에 대항하기 위한 강조적인 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또 칼빈이 말한 영생권은 다른 부수적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인 영생의 정도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음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칼빈이 그의 강요 제 3권 25장 부활 장에서는 차등 상급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생 자체와 영생에 따르는 특별상인 존영과 영광과 쾌락 곧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다.⁴⁴⁰⁾ 즉 영생은 신앙으로 그리 수도의 의를 전가 받아 칭의 됨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받는 특별한 선물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이다.

지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 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을 영생권과 구별하여 차등 상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천국 상급의 내용

사람들이 차등 상급을 부인하는 것은 천국상급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이다. 이제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성경에 천

439) *Inst.* III. 18. 2.

440) A. Kuyper, *E. Voto*, II, 374-375.

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성경은 다른 많은 상급들을 묘사하고 있고, 또 종종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상들 가운데 상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진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인지 혹은 그 면류관들은 왕관 보다 훨씬 좋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전서 9: 25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든지 그것은 분명히 실제적인 것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가르친다.

영원한 상급의 실재에 시선을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서 상급을 가리키는 신약 성경의 다양한 용어들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늘의 보물(qhsaurov" ejn oujranw'/)

성경에 천국상급을 하늘의 보물로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보물에 대해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19-20).

여기서 보물은 헬라어로 '테사우로스'(qhsaurov") 로서 '보물 상자'(마 2:11), '금고', '곳간', '창고'(마 13:52) 등을 뜻한다.⁴⁴¹⁾

눅 12:33 -34에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낚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441) 유대교에서 자선과 같은 선행들은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보물, 장차 올 세상에 보상으로 쌓아둔 보화인 반면에 그 이자는 이 세상에서도 향유된다고 하였다(토빗 4:8이하; 에스드라하 6:5이하; 7:77).

마태복음의 대귀법과 동의어 반복은 히브리식이다. 이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다.⁴⁴²⁾

마 13:44은 천국을 발견한 자의 기쁨을 묘사한 말씀이다. 이 본문에서 '테사우로스'는 문자적으로 '보물(화)'을 의미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가 그 밭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되기까지 사실상 그 보화를 캐내지 않고 있다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 사고 난 후에 보화를 캐낸 것이다.⁴⁴³⁾ 이것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라도 천국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마 19:21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제시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병행구, 막 10:21; 눅 18:22).

하늘에 보화를 쌓는 길을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고후 4:7과 골 2:3에서 '테사우로스'는 기독교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7).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골 2:3).

442) Hauck., TDNT, 3, 137.

443) 랍비 교훈에 의하면, 만일 일군이 일을 하는 중에 보화를 캐내었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속한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신자들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골 3:3). 우리는 진정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 생활에 힘쓸 때에 하늘에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다.

히 11:26에서 모세의 믿음을 말할 때 보화 개념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이다(히 11:27).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이었던 궤방, 능욕, 또는 오명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운명인 궤방을 예상하는 것이다. 믿음의 행위는 물질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에 비추어 고난을 택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예수님이 ‘보물’이라는 하신 말씀은 ‘상급’과 동의어로 사용하셨을 것이다.⁴⁴⁴ 하늘의 보물의 약속은 신앙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도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소에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다.

바울도 빌 3:7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런 바울은 하늘의 보물을 얻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한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고후9:6).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만큼 우리의 보화가 영원한 나라에 쌓여 더욱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벧후 1:11).

우리는 연보를 통하여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적게 심는 자는 천국에서 적게 거두고 이 땅에서 많이 심는 자는 천국에서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수입은 연보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 계속 심을 있도록 씨와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추수는 천국에서 하는 것이다. 씨는 계속 연보로 심어라는 것이요. 양식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농부가 씨를 심어야지 가을에 추수하지 씨

444) Joe L. Wall, 「그리스도인의 상급」, 98.

를 심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연보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고후 9: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나 연보의 문제는 량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렙돈 넣는 것을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기 때문이다(막 12:41-44; 눅 21: 1-4). 그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연보할 때 주의할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셨다.

고후 9:7-8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하심이라

바울은 딤후 6:17-19에서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어주어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마련하라고 권하고 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둠으로 헛수고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유포(klchronomiva)

하늘의 상급으로 유업이 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유업은 신자가 누구나 받는 유업이 있고 특별한 상급으로 받는 유업이 있다.

1) 유업의 의미

동사 클레로노메오는 히브리어 야라쉬(상속하다, 점유하다, 붙들다, 소유하다)와 그 파생어 예룻샤(소유, 유산, 기업, 상속), 그리고 나할(상속하다, 소유하다)과 그 파생어들(상속, 유산, 상속재산, 소유, 기업)의 역어로 사용되었다. 동사 클레로노메오는 신약성경에서 18회 나오며, '상속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 갈 4:30이하에서 '클레로노메오'는 자녀들이 '유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단순히 행위에 의한 구원과 믿음에 의한 구원 사이의 조화될 수 없는 충돌을 극적인 예화를 들어 설명한다. 믿음으로 진정한 아들이 된 자는 모든 것의 상속자이다 (갈 3:23-4:11; 롬 4:13이하).

히 1:4에서 클레로노메오는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상속하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난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2) '클레로노메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들을 받는 것에 대해 사용되었다.

마 5:5에서 땅을 받는 것을 표현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축복 선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나란히 제시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체되었음을 암

시하였다. 마 25:34 고전 6:9이하; 고전 15:50a; 갈 5:21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을 포괄한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기업으로 약속된 다른 대상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마 19:29 눅 18:18 딤후 3:7에서는 "영생", 히 1:14에서는 "구원", 고전 15:50에서는 "썩지 아니할 것", 벧전 1:4에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하늘에 간직한 것, 히 12:17 벧전 3:9에서는 "복", 히 6:12 히 10:36에서는 "약속", 그리고 계 21:7에서는 "이 것들"이 기업으로 약속된 것들이다. 이 약속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히 6:12). 이 약속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참조: 히 6:20). 그 분은 아들이자 후사이시다(히 1:4). 예수님 자신이 상속자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인 까닭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 기업을 상속할 수 없다. 여기에는 실천적인 복종(참조: 히 11:8)이 포함되고, 오래 참는 것이 요구된다(히 6:12).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갈 5:21 고전 15:50 하반 절).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의 이러한 관계에는 타인에 대한 사랑도 포함된다는 것, 그 타인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마 25:31-마 25:46 참조: 눅 10:25-눅 10:37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종함으로써만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마 19:29 막 10:29 참조: 눅 18:29).

예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 상호간에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벧전 3:7).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벧전 3:9).⁴⁴⁵⁾

2) 모든 신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유업

모든 신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업이 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속하신 신자들에게 법적으로 의롭다하는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칭의와 성화를

445) Foerster TDNT, 3, 781-785.

이런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케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약속 받았다(벧전 1: 3-4). 여기서 기업은 헬라 원어로 클레로노미아(klhronomiva)이며 이는 상속 재산이나 유산을 말하며 상속자를 의미하는 클레로노모스(klhronovmo")에서 유래되었다.

모든 신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에 영화의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등을 상속받을 것이다. 모든 신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을 누릴 것이며 사랑하는 동료 신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복들을 받게 되는 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게 받는 축복이다.

3) 특별한 상급으로 받는 유업

천국의 복은 이러한 기본적인 상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복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약속들이 있음을 주장하고, 또 장차 상속하게 될 유업이 실제로 있다는 확신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사는 복된 신자들은 장차 주께서 주실 풍성한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심으로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다(마 5:5). 이것은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다. 온유하다(prau?", 프라위스)는 것은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인정) 많은'의 의미가 있다. 벧전 3:4에서 프라위스는 기독교 사랑의 구체적 표현인 미덕의 목록에 나온다.⁴⁴⁶⁾

446) 일반 헬라어의 용법에 따르면, 프라위스 곧 온유한 자는 본능과 충동, 격동 등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이다. 이 단어의 통상적 용법은 인간에 대한 태도, 특히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의 성향 및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온유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신약성경 히브리 역본에서 마 5:3에 "가난한 자"와 여기에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다같이 아니이다. 이것은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시는 '가난한, 억압받는,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 낮은, 겸손한'을 뜻이다. 따라서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타자, 곧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나의 자세의 표현이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란

그리고 '유업으로 받는다'는 동사 클레로노메오(klhonev)는 70인 역본의 신 4:1; 16:20 및 시 68:36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소유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 또는 상속받는 것이다. 신명기 기자에게 복종과 의로움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축복선언에 나오는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 축복선언은 가나안 정복 이전의 이스라엘처럼, 자기 것이라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땅의 통치의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한다. 결국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의 큰 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온전한 유업은 현세에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장차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케 하시지만 그 전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와 함께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영광도 함께 받는다고 말

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권리를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풍성한 유업을 수탈당했다(욥 24:4; 사 32:7; 시 7:14). 여호와께서는 권리 없는 자들의 하나님인 까닭에 동료 인간들에게서는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구원하신다(시 34:2; 149:4; 욥36:15; 사 29:19).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의 인하여 기뻐한다(시37:11). 민 12:3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하였다. 온유는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 중 하나이다.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린다.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부터 깊은 곤궁과 곤란 속에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얻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슥 2:3; 3:12; 사 41:17; 49:13; 66:2). 이 프라워스는 메시아에게 주어진 영광의 칭호로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물을 타셨을 때 그 길은 가난한 자와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프라워스는 마 11:29 마 21:5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온유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표시이다. 정치적 메시아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메시아 왕으로 예측하지 않는 형태로 자기를 모든 시대에서 어긋나게 처신하셨다. 즉 투구와 갑옷을 입고 군마를 타고 무장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상에서의 주님의 사역은 힘이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구원을 가져오는 왕의 사역이었다(슥 9:9). 그는 십자가로 통치하고 통치 방법은 온유이다. F. Hauck/Schulz, TDNT, 6, 645.

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자녀이므로 하늘나라를 다 상속받지만 주와 함께 고난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광의 정도도 다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유업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유업이다. 바울은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유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eij de; tevkna, kai; klhronovmoi: klhronovmoi me;n qeou', sugklhronovmoi de; Cristou', ei[per sumpavscomen i{na kai; sundoxasqw'men.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tevkna)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한 후사(klhronovmoi me;n qeou')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상속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었다. 여기서 '후사'는 헬라 원어로 성클레로노모스'(sugklhronovmo")로 공동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는 가 받는 유업은 동참하지 않은 자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니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 6: 9 - 10).

갈라디아서 5:21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온다. 혹자는 이 구절을 불신자를 묘사한다고 해석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습관적으로 이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라도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니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 당하게 될 것은 아니고 천국에서 유업으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신자로 영원한 유업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그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다(행 20:32). '그 은혜의 말씀'은 성경말씀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시며(롬 8: 29),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하였다(골 1:18). '맏아들'이란 말은 그 가족의 유업을 이을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 자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였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영원한 유업을 누리는 것 이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별한 복을 누린다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상속자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인 까닭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이 기업을 상속할 수 없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 지극히 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빌 3:10).

골 3:23 - 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eijdovte" o{ti ajpo; kurivou ajpolhvmyesqe th;n ajntapovdosin th" klhronomiva". tw'/ kurivw/ Cristw'/ douleuvete: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히브리서에서도 그 유업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다. 히브리서 6:12 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마련된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진보를 나타내야 할 것을 권하면서 유업의 약속을 제시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klhronomevw)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 6: 12).

금생에서 믿음과 인내로써 사는 사람들이 내생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였다(약 1:12).

베드로는 핍박하는 자에 대한 신자의 바른 태도를 말하며 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을 제시하였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3: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런 사람이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 불신 남편에게 핍박받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행위를 통해 본을 보여 남편을 구원하라고 하였다.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하였다(벧전 3: 1-7).

고난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 가운데 특별한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자 중에 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인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현재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하는 기간이다.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이요, 이 세상의 자기 현실인 것이다. 땅 위에 있는 기업들을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기업을 마련하는 것이 된다.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주신 기업을 의심 없이 자기 것으로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칭찬과 영접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 비유로 나와 있음)를 보면 하나님의 칭찬이 상급으로 나타나 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씩 맡겼다. 여기서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초림(初臨)하여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선물로 구속, 중생시키시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 또 주님은 그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우리 신자들을 계속하여 성화 시키시며 선행을 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 상급을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447)

주인이 오랜 후에 회계하러 돌아와서 종들을 심판하였다. 그 때 모든 종들은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대한 결산보고를 주인에게 하여야 한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하였다. 각 각 배를 남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각

447)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계 할 새”라고 하였다. 주님이 구름타고 오실 때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즉시로 장사해서 배나 이익을 남겼다. 이는 예수님의 이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인도대로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은 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엄격하신 분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안한 데에서 모으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 두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받은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세상 생활 속에 파묻어 버리고 세상일에만 분주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 때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다섯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고 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산 그 생활 입술로만 믿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제 주장대로 말한 것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의 언행심사의 행한 것에 대해 주님으로 더불어 회계하는 때가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과 뜻을 살피는 분이시다.

자가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롬 14:12)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심판 날에 주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달란트 남긴 자와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인은 “잘하였도다.” (유, **Eu**) “착하고 충성 된 종아”(dou'le ajgaqe; kai; piste)하고 칭찬하였다(마 25:21).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잘 관리하여 배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이다.

마24: 45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준 자에게 주님의 칭찬이 상급으로 주어졌다.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였을 때 주님이 영원히 칭찬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인정받고 그분 앞에 설 때에 “잘 하였다.” 이 말씀 한 마디 듣는 것이 온 우주를 주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인정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이 분에게 “착하다. 잘 했다. 충성되다.” 칭찬받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칭찬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받는 것이며 그 칭찬은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심판 날에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눅 12: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시인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는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늘과 땅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알지 못하심이 없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대 주재이신 그 분이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베드로는 장차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또 하나의 특별한 상인 주님의 환대를 소개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무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베후 1:10 -11).

dio; ma'llon, ajdelfoiv, spoudavsate bebaivan uJmw'n th;n klh'sin kai; ejklogh;n poiei'sqai:tau'ta ga:r poiou'nte" ouj mh; ptaivshtev potou{tw" ga:r plousivw" ejpicorhghqhvsetai uJmi'n hJ ei[sodo" eij" th;n aijwvnion basileivan tou' kurivou hJmw'n kai; swth'ro" jIhsou' Cristou

이 구절에 나오는 '들어 감'(entrance)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소도스(ei[sodo")이다. 이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입구'(entrance)를 의미하지만 '환대'(reception) 혹은 '환영'(welcome)을 뜻하기도 한다. 또 이 환영을 '넉넉히 주신다'고 하였다. 여기서 '넉넉한'(abundant)은 헬라어로 '플뤼시오스'(plousivw",wealth)로서 '풍부하게'(richly) 혹은 '가득하게'(in full measure) 등의 뜻이다.⁴⁴⁸⁾ 이는 우리가 장차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때 무리 주 곧 구주께서 우리를 풍부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영접하실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⁴⁴⁹⁾

이 말씀은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환영식을 연상케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군 천사들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환영하시고 영접해주실 것이다. 그 때에

448) W.Michaelis, Hauck, Kasch, TDNT. 318-332.

449) Joe L., Wall, 「그리스도인의 상급」, 108-109.

충성한 제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하고 칭찬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칭지기 비유’에서도 이 땅위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없어질 재물인 ‘불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를 사귀면 주님이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눅 16:9).

물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으니(마 25:40)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고(마 10:42)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초대 교회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스테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며 스테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 주님을 바라본 스테반은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었겠는가?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때 (행 7:55-5).

우리 주님은 심지어 ‘깨어 있는 종’에게 수종 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눅 12:37).

예수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왕이 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 때에도 충성한 자에게 수종을 들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황공한 일인지 모를 것이다.

4.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즐거움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충성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상급을 허락하셨다. 천국은 잔치와 같은 축제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또 즐거움은 주의 영광스러운 현현이 제공하는 넘치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다.

충성한 자들은 주님의 즐거운 그 즐거움에 영원히 같이 동참해 가지고서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우주나 영계를 차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차지하고 만족하면 그 이상이 없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ei[selqe eij" th:n cara:n tou' kurivou sou).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한다.

여기서 '참여하다'는 단어는 '에이셀코마이'(eijsevrcomai)로서 신약성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행 3:8; 눅 1:9; 계 15:8)이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의 모임에 들어오는 것(고전 14:23-고전 14:24)을 말할 때 사용되며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만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계 21:27).⁴⁵⁰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문을 열어둘 때 그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히 3:20).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혼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즐거움'을 말하는 단어 카라(cara)는 '기쁨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주께서 누리는 지복의 상태에 동참하게 됨을 말한다. 이 즐거움은 희열 또는 잔치를 뜻하는 것으로 완성된 천국에서의 메시아 잔치로 해석된다. 이는 열 처녀 비유에서의 천국잔치로 볼 수 있다. 물론 신자들은 다 메시아의 완성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참석한 사람의 즐거움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 종들의 충성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은혜롭게 매겨질 상급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서 누리는 구속의 기쁨과 은혜가 사람마다 차이가 날 것이다. 즉 충성된 자로서 인정된 사람은 주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험에서의 참음과 인내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히 12:2).

5.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

450) 이병철, 「헬한 완벽사전 II」(서울: 한국성서연구원, 1989), 333.

상급의 내용 중에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온다. 이는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한대로 하늘에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2-27절에 나오는 므나 비유에서는 충성한 결과에 대해서 천국의 기업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상급내용이 나타나 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를 떠나면서 열 명의 종들을 불러 각각 한 므나씩 나누어 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 왕위를 받아가자고 돌아왔을 때 그는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이익금을 남겼는지 종들을 불렀다. 첫째 종이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다고 보고할 때 주인이 그에게 이르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하였을 때 작은 것은 ‘엘라퀴스토스’(εἰλακίστος)로서 이는 엘라퀴스(εἰλακίς: 작은, 적은)의 최상급이며, 이는 크기, 지위, 양, 수가 ‘가장 작은’, ‘가장 적은’, 또는 ‘매우 적은’, ‘매우 작은’을 의미한다(눅 16:10; 19:17; 약 3:4).⁴⁵¹⁾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열 고을의 권세’(εἰξουσῖαν ἐ[κ]ων εἰπᾶντων δεύκα πολεῶν)는 열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말한다.

여기서 ‘권세’를 의미하는 명사 엑수시아(εἰξουσῖα)는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 ‘ability’를 의미한다.⁴⁵²⁾

451) Walter Bauer; J. H. Thayer. TDNT. II. 677. 이병철 성경원어사전.

452) 이 단어는 보다 높은 사법기관이 허락한 ‘권리’(right), ‘권세’(authority), ‘승인’(permission) 등 정부나 여러 가지 사회관계에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엑수시아’는 어떤 잠재적 힘이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 혹은 자연적인 힘들에 의거하며, 무의식적 행동들, 강한 행위들 그리고 자연 현상들 안에서 드러나는 뒤나미스(δυνάμις)라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법률, 정치, 사회, 혹은 도덕적 사건들의 영역 안에서 발휘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Plato, Definitiones 415b). 이 말은 늘 특별한 지위나 명령과 함께 사용되므로 마음대로 처분하는 왕권이나 부권 혹은 조각권이나, 관리들 혹은 사자들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그 말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받아들이거나 행하는데 필요한 도덕적 자유를 의미한다(Plato, Definitiones 412d). 따라서 그 말은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이지, 자연적인 힘이라는 의미로는 사용될 수 없다. 이 엑수시아는 70인역본에서 법적인 의미에서 ‘권리, 권력’을 나타내며, 율법

가자들이 '엑수시아'를 그리스도의 사역, 우주적인 힘의 구조에 따르는 새로운 질서와 신자들에게 부여된 권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엑수시아)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 소이다"(요 17:2) 하셨고 마지막 날의 심판권을 부여받아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 5:27) 하셨다. 예수님의 권세는 강제적인 지배에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해 종이 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 받으시고(단 7:14; 마 28:18)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하셨다(행 1:6-8).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부여받는다(요 1:12).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은 심판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게 될 것이다. 이 권세는 이 땅에서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한 자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자들에게 영원히 주어질 것이다.

또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에서 고을은 폴리스(**povli**)로 성읍, 도시(city), 도시국가(city-state)를 의미한다.⁴⁵³ 첫째로 성읍을 의미하고 다음으로 그 성읍으로부터 통

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다니엘과 마카베오서에서 이 단어는 왕이나 하나님의 힘을 가리킨다. 70인역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엑수시아를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를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주권의 개념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하나님의 개념을 우수하게 표현해주는 용어로 소개하고 있다(단 4:14). 명사 엑수시아는 신약성경에서 108회 나오며,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고린도 전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엑수시아는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명령권' the power to give orders(마 8:9, 병행구 눅 7:8 눅 19:17 눅 20:20)을,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재판권' jurisdiction(눅 23:7)을, 그리고 복수로서는 '공직자' officials, '당국자' authorities(눅 12:11 딤후 3:1)를 의미한다. 롬 13:3의 "관원들(아르콘테스, archontes)"와 마찬가지로 1절의 "위에 있는 권세들(엑수시아이스 히페레쿠사이스)"은 국가의 공직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W. Foerster, *TDNT*, 2, 562-563.

453) 폴리스는 거룩한 성으로 지상의 예루살렘을 지칭할 수도 있고 하늘의 도성을 지칭할 수 있다. 지상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였고(마 23:37) 예수님도 죽인(계 11:8 눅13:33) 곳으로 멸망할 것이지만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예루살렘 곧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다. 율법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도시에 속한다(갈 4:26). 족장들은 이 새로운 도성을 알고 있으며 이 도성을 영원히 존속할 유일한 도성으로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추구하였다(히 11:10, 16). 이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세상에 있는 성들은 모두 일시적인 장막에 불과하다. 오직 멀리서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땅에서 외인들과 순례자들로서 믿음으로 살았다(히 11:14,

치를 받는 보다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도성을 고대한다(히 13:14; 계3:12; 22:4).

이 도성은 참된 실체로서, 하늘에 존재한다. 계 21장에서 이 도성은 신부처럼 기뻐하고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것의 이름을 지니는 자들의 완성된 공동체이다(계 3:12).

주님께서는 열 므나를 남긴 자에게 열 고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열개의 성읍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섯 므나를 남긴 자에게는 다섯 고을의 권세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좋은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렸다. 이 좋은 하나의 성도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비유에서 종 열이 각각 동등한 기회를 받았으나 충성한 결과에 따라 받을 권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영토 분배를 받는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주실 영역과 범위와 위치가 달라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는 가지만 그 나라에 가서 아무런 권세를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사랑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도 이기는 자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JO nikw'n, dwvsw aujtw'/kaqivsai met j ejmou' ejn tw'/ qrovnw/ mou, wJ' kajgw; ejnivkhsa kai; ejkavqisa meta; tou' patrov" mou ejn tw'/ qrovnw/ aujtou'.

여기서 이기는 자(JO nikw'n)의 '이기다'(be victorius)의 동사 니카오(nikavw)는 니케(nivkh, 승리)에서 유래했으며, '이기다', '패배시키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전쟁이나 싸움에 있어서 승리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28회 나오며,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마귀 세력들을 승리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눅 11:22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

16).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 이 도시를 세우셨다. 이 도성은 시온 산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이다(히 11:10, 16, 12:22 이하). 이 도성은 이 땅에서도 영구한 도성을 소유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기다린다. H. Strathmann, TDNT, 6, 534-535.

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마 12:29; 막 3:27)는 말씀이 나온다. 요 16:33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다. 이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약한 자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이 승리에 참여하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계 17:14에서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의 승리를 언급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는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보좌 피로 구속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에 속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현실에서 언제나 승리하려면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진실은 구별하고 구별하여 하나가 되는 참을 구하는 것이다. 자기 현실에서 성령과 진리와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입고 살 때에 진실한 자가 되어 마귀에게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계 2:7, 11, 17; 2:26; 3:5, 12, 21). 이 승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될 것이다(계 21:7). 이 승리는 종말론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이미 승리하셨고(계 3:21; 12:11),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승리에 참여하므로 스스로 세상을 이기시는 위치에 놓여 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이다(요일 5:4이하).⁴⁵⁴⁾

이렇게 승리자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보좌'(寶座)를 말하는 명사 '드로노스'(qrovno)는 '왕좌'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62회 나오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사 66:1) 그 곁에 있는 메시아 왕의 보좌가 있다(행 2:30).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드로노스 독세스)에 앉아서서 만국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히 1:3; 8:1; 10:12; 12:2).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하나님과 나란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⁴⁵⁵⁾

454) O. Bauernfeind. TDNT, 4, 944 -945.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앉으시는 그 보좌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계 3:21; 마 19:28). 그 왕은 이기는 신자들에게도 그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주신다(계 3:21).

‘앉게 하여 주겠다’(kaqivsai)는 ‘앉다’, ‘앉히다’를 뜻하는 동사 카디조(kaqivzw)의 과거 능동 부정사로서 특별한 구별이나 영예를 나타낸다.

또한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은 열 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다(마 19: 27-28).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tm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영한 보좌’ 곁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영원한 권세를 힘입어 세상 만물을 영원히 심판하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권세를 얻었다.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고전 6:3).

oujk oi[date o[ti ajggevlou" krinou'men, mhvtige biwtikav_

여기서 ‘판단하다’는 동사 ‘크리노’(krivnw)는 ‘구별하다, 선택하다, 평가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의 뜻이 있다. 이는 히브리어 샤파트(‘재판하다, 다스리다’)를 번역한 것이다. ‘판단하다’ 보다는 ‘다스리다’를 의미할 때도 있다(마 19:28).

또 복음 진리 안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할 권세도 있으며(요20:23)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할 권세도 있다. 성도의 통치권은 이처럼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왕적인 심판권은 현세에서가 아니라 미래에 온전히 받을 심판권이다. 주님께서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28절)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455) O. Schmitz, TDNT, 3, 160 -166.

성도에게 언약하신 열 두 보좌 왕권이 온전히 수여될 것이다. 지금은 꺾박의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막10:30; 고전 4:13).

계 4:4의 24장로들의 보좌는 하늘에서 다스리는 권세들의 자리이다.⁴⁵⁶⁾ ‘프레스비테로스’(presbuvtero)는 요한계시록의 환상들 중에 12회 언급되는데, 항상 24인이 한 그룹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 있다. 이곳에서 이들은 고귀한 천국 직분을 맡은 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으며, 만국에서 온 수많은 순교자들로 기술되어 있다(계 7:9-17). 그들은 대표자들이며(계 4:4; 7:11; 14:3), 예배를 대표한다(계 4:10; 5:6, 8, 11, 14; 11:16; 19:4).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며(계 4:10 이하; 계 5:6 이하; 계 11:16 이하) 또한 이 찬양들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계 14:3).⁴⁵⁷⁾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권세이므로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진다고 하였다(계 4:9, 10).

딤후 2: 12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을 말씀하셨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서 ‘함께 왕노릇하다’는 단어인 쉼바실류오(sumbasileuvw)는 ‘함께 다스리다’(reign with)는 뜻이며 쉼(suvn, ~와 함께)과 바실류오(basileuvw, 왕노릇 하다, 통치하다)의 합성어이다. 이 동사 쉼바실류오는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본문에서만 나온다.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주와 함께 고난 받는 자의 영원한 상급을 다스리는 권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이 다스리는 상급을 말씀하셨다.

456) G. Bornkamm, TDNT, 6, 668.

457) 이 환상들이 지상 교회에서의 장로들의 직분에 대응하는 천국 직분이다. 24라는 숫자와 보좌 주위에 있는 무리는 천문학적 개념을 반영한다. 이 형상과 숫자는 유대 제사장들(대하 24:7 이하), 또는 성전 찬양대(대하 25:9 이하)를 가리키는 24개조의 지도자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계 2:25-27).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ejxousivan ejpi; tw'n ejqnw'n)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⁴⁵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 받았다(마 28:18).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만국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기는 자가 이 권세를 많이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권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또 이 권세는 신자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권세이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계 20:4).

신자들은 앞으로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ejbasivleusan meta; tou' Cristou' civlia e[th)고 하였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며 그 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이다.

458) 여기서 '만국'을 뜻하는 명사 에드노스(e[qno)는 에도스(e[qo", 관습)에서 파생했으며, 따라서 여러 관습으로 인하여 함께 모인 '집단', '씨족'을 의미하며, '군중', '백성', '무리', '국민', '민족'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순교자들과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한 승리자들이 살아나서 앞으로 왕 노릇한다고 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다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겠지만 특별히 순교자와 현실에서 승리한 자들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왕 노릇하다'는 동사 '바실류오'(basileuvw)는 바실류스(basileuv", 왕)에서 유래했으며 '왕이 되다, 왕의 권력을 행사하다, 통치하다'(reign)를 의미한다.⁴⁵⁹⁾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함께(계 5:10)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계 20:4, 6) 세세토록(계 22:5)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실력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6. 영광의 차이

천국의 차등 상급에는 성경에서 영광의 차등을 강조하고 있다.

영광을 의미하는 헬라어 독사(dovxa)는 히브리어 '카보드'를 번역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의견'을 의미하는 도케오(dokevw.)에서 유래하였다. 그 기본 의미는 내가 가지는 의견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가지는 의견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광은 좋은 평판, 명성, 칭찬, 빛, 광채, 영화 등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입힌 자에게 감사하여 찬송하는 것을 말한다.⁴⁶⁰⁾

구약에서 히브리어 카보드는 견해, 의견'(전 10:1),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사 24:7이 하; 사 29:3; 사 42:8),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사 2:10; 사 2:19; 사 2:21; 출 33:22; 시 102:15) 등을 의미한다.

466) 동사 '바실류오'는 신약성경에서 21회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눅 1:33)와 하나님에게(고전 15:25)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계 11:15).

460) 독사는 인간 또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며, '화려, 장대, 탁월' 등을 나타낸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즉 그것들의 자원, 부, 그들 도성들의 장대함과 위대함, 그것들의 비옥한 땅, 그것들의 많은 인구(마 4:8 눅 4:6), "땅의 왕들의 영광"(계 21:24), "만국의 영광"(계 21:26), 왕의 영광, 찬란한 의복 등(마 6:29 눅 12:27), "육체의 영광"(벧전 1:24), "직분의 영광"(고후 3:8 - 고후 3:11), "여자는 남자의 영광"(고전 11:7), "땅에 속한 자의 영광"(고전 15:40), "해, 달, 별의 영광"(고전 15:41)을 나타낸다. G.Kittel, TDNT, 2, 232 -593.

신약성경의 용법 명사 독사는 신약성경에서 167회 나오며, 한글개역 성경은 한번 '광채'로 번역하고, 모두 '영광'으로 번역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실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로 고백하거나(행 12:23; 롬 4:20; 계 16:9) 찬양하는 것(눅 2:14; 눅 19:38; 롬 11:36; 롬 16:27; 엡 3:21; 빌 4:20; 딤후 1:17; 계 4:9; 계 7:22 등)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독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된다.⁴⁶¹⁾ 성경은 천사들의 영광도 표현한다.⁴⁶²⁾

이 독사는 또한 신자가 받을 영광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벧전 5:4; 고전 5:10; 살전 2:12; 살후 2:14; 고후 4:17; 딤후 2:10). 이 영광을 누리려는 것이 신자의 목적인 것이다(롬 5:2).⁴⁶³⁾

461)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다(딤후 3:16).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다(행 7:55). 베드로전서에서 그의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벧전 1:11)과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벧전 1:21)에 대해 말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이시다(고전 2:8 약 2:1) 종말론적인 소망(참조: 사 40:5)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이다(딤후 2:13; 벧전 4:13; 5:1 막 13:26 등). 이 언급들의 대부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재림(parousia)과 관계되어 있다(막 8:38 막 10:37 막 13:26과 병행구, 마 19:28 마 25:31). 누가복음에서 독사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변모 기사에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독사의 계시(눅 2:9)는 천사들의 출현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그의 오심을 지적한다. 요 17:5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독사"를 언급한다. 요한복음에서, 오직 믿음으로 또한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요 1:14 요 2:11 요 11:40). 그리스도의 이 독사는 본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요 7:39 참조: 요 12:23; 13:13; 16:14; 17:1, 5의 기도). 영광으로 들어간 것은 십자가에서이다(요 13:31). 여기에서 하나님의 독사가 고백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신자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 수난의 빛에서이다.

462) 겔 9:3 등에서 그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유대교에서처럼 천사가 영광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히 9:5은 영광의 그룹에 대해 언급한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계 18:1은 천사의 영광에 대해 언급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천사들을 '독사이'라고 부른다. 유 1:8에서는 "영광", 벧후 2:10에서는 영광있는 자들'로 번역했다.

463) 미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역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롬 8:29-30; 고전 2:7). 성령께서 이 영광의 보증이 되신다(엡 3:16; 벧전 4:14). 고후 3:7이하에서 이것이 분명해진다. 여기에서 모세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새롭고 더 큰 영광과 대조시키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어떻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영광에서 종말론적인 완전한 영광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롬 8:18, 21).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골 3:4; 롬 8:17).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골 1:27).

부활 때에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모된다(빌 3:21).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골3:4).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4).

우리 신자가 영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성령과 진리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온전히 변화를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며 자신도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중생을 받고 앞으로 몸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 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영화).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삶을 산 것만큼 부활 할 때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부활체의 몸은 다 영화롭게 되지만 부활체의 기능은 사람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 이것은 복음의 사역에 의해 실행된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고전 4:6). 이와 마찬가지로, 요 17장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며(요 17:24), 그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며(요 17:10),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다(요 17:22)고 언급되어 있다.

고린도 전서 15장 41 - 42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a[llh dovxa hJlivou, kai; a[llh dovxa selhvnh", kai; a[llh dovxa ajstevrwn: ajsth:r ga:r ajstevro" diafevrei ejn dovXH/. ou{tw" kai; hJ ajnavstasi" tw'n nekrw'n.

부활체의 영광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⁴⁶⁴⁾ 본문에서 부활체의 영광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하늘에 빛을 비추는 행성인 해(헬리오스, h{lio"), 달(셀레네, selhvnh), 별(아스테르, ajsthr)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부활체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르다'는 형용사 '알로스'(a[llo", other)는 오직 둘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헤테로스(e{tero")와는 달리 여러 개, 많이 있을 때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알로스'는 신약성경에서 약 155회 나오며,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이 '알로스'는 내적으로 질적 차이를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⁴⁶⁵⁾

알로스는 종류상 상이함과 같은 종류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⁴⁶⁶⁾ 이와 같

464) 물론 부활체의 영광의 차이를 부활 후의 누리게 될 영광의 차이로 보지 않고 현재의 몸과 부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의 몸의 차이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주요 논점은 질적인 차이에 있다기 보다는 다양성의 차이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자를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강요 제 3권 25장 부활장에서 신자들이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의 차이를 말하였다.

465) 막 12:32에서 '알로스'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묘사한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고전 3:11에서 알로스는 터 곧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묘사한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예수는 없는 것이다. 바울이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유일무이한 것이다(고후 1:13; 11:4; 갈 1:7) 고후 1:13에서 '알로스'는 두 서신의 내용의 동일성을 묘사한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F. Buchsel; F. Selter; C. Brown, 이병철 성경원어사전.

466) 해(헬리오스, h{lio")는 종말론의 영광스러운 면을 묘사하는 데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오고 있는 도시로 묘사된다. 그 도시는 해의 비춤이 필요 없는 그러한 광휘의 도시

이 성도들의 받을 상급들도 상이함을 말씀하는 것이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ou{tw" kai; hJ ajnavstasi" tw'n nekrw'n) 한 것은 부활체의 영광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주는 것이다.

여기 후토스(ou+'to")는 '이런 방식으로'(in this manner), '이렇게' (thus)를 의미한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르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것이다.⁴⁶⁷⁾

성경은 하늘에 속한 형체들의 크기와 모양, 색상들과 미(美)가 각각 상이함같이 또한 땅에 속한 형체들의 크기와 모양 색상들과 미가 각각 상이함같이 성도들이 받을 상급도 상이함을 말씀하고 있다.⁴⁶⁸⁾

천국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은 그들이 세상에서 살 때의 정절과 주님과 연합 및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봉사에 대한 헌신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다.

라는 것이다(계 21:23). 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계 22:5)고 하였다. 지금은 해가 비취므로 지구가 밝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해보다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취신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헬리오스라는 말을 경우에 따라서는 영광을 의미하는 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심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 신약성경에서 계시의 두드러짐, 성취 그리고 예기된 종말이라는 말에 부여된 헬리오스의 상징적 표은 특히 중요시된다. 달(셀레네, selhvnh)은 해만큼 밝은 빛을 발하지 못해도 일정한 궤도에서 운행하는 위상의 주기, 기울고 차는 현상, 조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방인들의 신화와 종교에서 달은 해보다 훨씬 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종말에 계 21:23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기 때문에 달의 비취이 쓸데없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별(아스테르, ajsthvr)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창 1:16),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의 영광을 선포한다(시 19:1; 사 40:26). 별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전 15:41).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각각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성경은 또한 신자들이 하늘에서 별을 상급으로 받는다고 하였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계 2:28). 별은 또한 일곱 교회의 사자의 상징으로 나온다(계 1:16; 계 1:20; 계 3:1). 이병철, 『성경원어사전』, (서울: 브니엘출판사), 1985.

467) 메튜헨리, 고린도서, 244.

468) 조영엽, 「구원론 종말-내세론」, 458.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하였다.

성도들이 죽는 날까지 힘쓰는 것은 이 영광 마련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가?

고전 15장 42-44절에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speivretai ejn fqora/, ejgeivretai ejn ajfqarsiva/: speivretai ejn ajtimiva/, ejgeivretai ejn dovxh/: speivretai ejn ajsqeneiva/, ejgeivretai ejn dunavmei:speivretai sw'ma yucikovn, ejgeivretai sw'ma pneumatikovn Eij e[stin sw'ma yucikovn, e[stin kai; pneumatikovn.

썩을 것으로(ejn fqora) 심어야(speivretai) 썩지 아니할 것으로(ejn ajfqarsiva) 다시 산다(ejgeivretai). 육된 것을 심어야(ejn ajtimiva) 영광스런 것으로(ejn dovxh)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ejn ajsqeneiva) 심어야 강한 것으로(ejn dunavmei)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어야(sw'ma yucikovn) 신령한 몸으로(sw'ma pneumatikovn)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4)고 하였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Eij e[stin sw'ma yucikovn) 또한 신령한 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e[stin kai; pneumatikovn).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현재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기 전에 입고 있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고후 5:4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oiJ o[nte" ejn tw'/ skhvnei) 구원을 이루기를 짐진 것같이 탄식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신자의 지상에서의 몸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막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장막에 있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천상의 몸은 영원한 집이 될 것이다. 고후 5:1-7 전체에 걸쳐 이 ‘스케노스라’는 개념은 바울의 사고를 가장 잘 드러내는 위치에 혹은 그 부근에 자리 잡고 있다. 바울의 사고에 있어서 ‘스케노스’는 썩을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의 덧없음과 절망적인 한계(고후 5:2 고후 5:4, 6)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접적 임재(고후 5:6-8)라는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순례를 암시한다. 부활의 몸과 견주어 볼 때 썩을 몸은 인간의 영이나 성령을 담는 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통스럽게 직시하였다.

“짐 진 것같이 탄식한다”고(*stenavzomen barouvmenoi*) 했는데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롬 8:23에서도 나오는 ‘스테나조’로 어떤 것을 갈망하여 탄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고후 5:2 고후 5:4에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구원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다.

벗고자 함이 아니고(*ouj qevlomen ejkduvsasqai*) 덧입기를 원한다고(*ajll j ejpenduvsasqai*) 했다. 덧입는다는 말은 에펜뒤오마이(*ejpenduvomai*)로 에피(*ejpiv*, 위에, 에)와 엔뒤오(*ejnduvw*, 옷을 입다)에서 유래하였다. 바울은 이제 낡은 존재 위에 옷옷과 같이 하늘의 존재를 덧입을 것에 관하여 말한다.⁴⁶⁹⁾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속히 벗어나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현실에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탄식하며 천국의 것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다.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 가겠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이 영광의 차등은 고린도전서 3장 13-15절에 나타난 ‘공력에 따라 받는 상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 날에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즉 신자가 구원을 입고 천국에 가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과 만물들에게 칭찬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다.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구원에는 또한 현재 고난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롬 8:17-18).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

469) *Ibid.*

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하였다(고후4: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7).

이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것 이기주의나 사욕적인 자기 영광이 아니다. 영광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며 또한 온전케 된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랑의 도이며 봉사의 도이며 영생의 도인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영광의 수입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자의 생활이요 주님도 이 영광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7. 면류관(스테파노스, stevfano")

성도가 받을 상급을 성경은 또한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다.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스테파노스(stevfano")는 면류관,왕관을 의미하며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주에 자주 비유한다(고전 9:24-26; 갈 2:2; 갈 5:7; 빌 2:16; 빌 3:12-14; 약 1:12; 계 2:10). 딤후 2:5은 일반적인 규칙을 명확히 표명한다. 그리고 다른 비유들도 사용된다. 딤후 2:3과 딤후 2:4의 군사, 딤후 2:5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아드레오), 딤후 2:6의 농부의 비유이다. 경기자에 대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법대로 경기해야 한다. '법대로'는(노미모스 novmimo")에서 유래했으며, 합법적으로,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를 의미한다. 아드레오(ajqlevw)는 아드로스(a[qlo": 경기, 투쟁)에서 유래했으며, '경기나 다툼, 싸움에 참가하다, 다투다'를 의미한다.

1) 생명의 면류관(stevfanon th" zwh")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물론 신자는 누구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그 누림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여기서 '생명'(조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신자들의 생명을 나타낸다(롬 6:4).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사망인 것이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이다(엡 4:18).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며(딤후 1:1),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요일 5:12), 곧 영생을(요 6:40; 요 6:47) 소유하였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요 5:24; 요일 3:14). 영생은 바로 현재로 가져오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과 인격에 굳게 닦을 내리고 있다(요 17:3). 이 영생을 지금 이곳에서 소유하는 신자들은, 사망과 심판을 벗어났음을 깨닫게 된다(요 5:24; 11:25). 왜냐하면 영생은 그 안에 영원의 씨앗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요 4:14; 6:27; 12:25).⁴⁷⁰⁾

'조에'는 또한 종말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한다(요 3:15; 눅 18:30; 막 19:29). 종말의 생명나무(계 2:7; 22:2, 14, 19), 생명의 면류관(계 2:10), 생명수(계 7:17; 21:6; 22:1)를 말할 때 사용되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스테파노스 테스 조에스, **stevfanon th" zwh"**)로서,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선물이다. 이 땅의 면류관은 썩어지고 없어질 면류관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인 것이다.

(1) 이 면류관은 시험을 참는 자와 충성한 신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Makavrio" ajnh:r o}" uJpomevnei peirasmovn, o{ti dovkimo" genovmeno" lhvmyetai to;n stevfanon th" zwh", o}n ejphggevlatō toi" ajgapw'sin aujtovn.

시험을 참고 견디며(uJpomevnei peirasmovn) 여기서 합격하여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dovkimo") 사람이 받게 될 상급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다.⁴⁷¹⁾

470) R. Bultmann, *TDNT*, 2, 863 -866.

471) 조영엽, 「구원론 종말-내세론」, 461.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동사 '휘포메노'(uJpomevnrw)는 전치사 휘포(uJpov, ~에 의하여, ~아래)와 메노(mevnrw, 남다, 머물다)에서 유래했으며, 살아남다, 머물다, 기다리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게 있다' '견디다, 참다, 버티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긴장되고 끈기 있고 참을성 있는 기대를 표현한다(욥 3:9 시 37:7 욥 32:4).

예수님께서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3; 막 13:13)고 말씀하심으로 구원에 있어 인내가 필수적임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자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아울러 수많은 환난에 대해 예고하셨다(막 13:13). 이러한 가혹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마 24:10 이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신하며 미워할 것이라고 언급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미혹되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내에 대한 경고가, 열두 제자에 대한 선교 명령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마 10:22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진다. 여기에서도 역시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을 것을 예고하셨고 종말론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바울서신에서도 인내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롬 12:12에서 "환난 중에 참으라"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고전 13:7에서는 "사랑은 ... 모든 것을 참으며 ..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사랑의 인내를 말하고 있다. 택한 자들은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딤후 2:10).

또한 인내는 장차 "왕 노릇"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딤후 2:12).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1 이하).

히브리서 기자는 지속적 인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히 10:32, 34).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됨의 증거이니 참아야 한다(히 12:7).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참으라(히 12:1-3; 살후 3:5).

약 5:11에서는 욥의 예를 들어 말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

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참조: 욥 1:21이하; 욥 2:10).

벧전 2:20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과 법률상의 범죄(crime)로 인해 받는 형벌에 대한 인내를 상호 대조시키고 있다. 후자의 인내에는 칭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은 형벌을 받으면 안 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자기 현실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며 시험을 참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dovkimo") 한다. 자기 시험을 통과할 때에 주님께 합격을 받은 다음에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받은 것이다(창 22: 16-18).

(2)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givnou pisto;" a[cri qanavtou, kai; dwvsw soi to;n stefanon th" zwh'".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givnou pisto;" a[cri qanavtou)에서 충성은 형용사 피스토스(pisto;")로서 '신뢰하는, 신용하는'을 의미하며, 무기의 정확성이나 기술, 사람의 신용, 복종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히브리어 아만(진실하다, 의지할만하다, 신실하다)의 역어로 사용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민 12:7), '신실한'(왕상 22:14)을 의미한다.

이 충성은 자기 전부를 다 해야 하는 것이다.

마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oJ de; e[fh aujtw'/: jAgaphvsei" kuvrion to;n qeovn sou ejn o{lh/ th/ kardiva/ sou kai; ejn

o{lh/ th/ yuch' sou kai; ejn o{lh/ th/ dianoiva/ sou.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마음 전체(ejn o{lh/ th/ kardiva)와 목숨 전체(ejn o{lh/ th/ yuch')와 뜻 전체(ejn o{lh/ th/ dianoiva)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충성은 자기를 다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직분, 은사, 각종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전부를 다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다.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다. 자기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셨다. 우리를 위해 자신이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자기 맡은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썩지 않을 면류관(stevfanon a[faqarton)

면류관과 형용사 '아프다르토스'(썩지 아니할, a[faqarto")로 수식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바울이 세상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썩을 면류관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받을 면류관을 말해주는 것이다. 형용사 아프다르토스(a[faqarto")는 부정접두사 a와 프데이로(fqeivrw)에서 유래했으며, '부패하지 않는, 불멸의, 죽지 않는, 망하지 않는'을 의미한다. 인간의 추구하는 목표들도 결국은 썩어질 것이다. 썩을 면류관을 얻는 것도 모든 일에 절제하거든 썩지 아니할 것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은 더욱 더 절제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없어지지 않는 보혈(벧전 1:18)과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과(벧전 1:23)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았고 죽은 자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고전 15:52).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령과 진리와 예수님의 대속과 연결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고전 9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25).

pa'" de; oJ ajgwnizovmeno", pavnta ejgkrateuvetai, ejkei'noi me;n oui{na fqarto;n stevfanon lavbwsin, hJmei'" de; a[fqarton.

(1)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기는 방법은 목표를 위하여 힘쓰는 자기 절제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다투다'(fight)는 동사 아고니조마이(ajgwnivzomai) '경쟁하다', '운동경기에서 경쟁하다'(고전 9:25), '적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요 18: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딤후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딤후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분투는 절제 즉 일시적인 목적의 폐기(고전 9:27)를 요구한다. 이것은 고행 생활이 아니라 강건한 훈련이다(딤후 4:5).

(2)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절제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절제를 의미하는 동사 엔크라투오마이(ejgkrateuvomai, exercise self-control)는 '자기를 지배(제어)하다, 자제하다, 그만두다, 삼가다'를 의미한다. 신약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2회 나온다.

고전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전 7: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서 이 단어는 성적인 "자제"를 의미한다. 이는 정욕 자체를 금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인생은 경기와 같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누리다 죽을 때에 없어질 썩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

3) 기쁨의 면류관(cara; stevfanov")

면류관 비유는 바울에 의해 또 다른 방식에서 사용된다. 그는 공동체를 그가 주님 앞에 설 때 쓰는 면류관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빌 4:1).

{Wste, ajdelfoiv mou ajgaphtoiv; kai; ejpipovqhtoi, cara; kai; stevfanov" mou, ou{tw" sthvkete ejn kurivw/, ajgaphtoiv.

바울은 그와 모든 신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에 의해 구원 받지만 심판에서 그의 삶의 열매가 측정되고 판단 받을 것을 말하고 있다(고전 3:11-15; 4:1-5; 5:5; 9:5-18; 15:10; 고후 5:10 등). 본문은 잠 12:4(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 잠 17:6(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과 같은 개념을 채용한다.

이 면류관은 복음 전도자에게 주실 영원한 상이다. 전도자가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결과로 맺어진 열매는 영원히 그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20).

tiv" ga:r hJmw'n ejlpi;" h] cara; h] stevfanon" kauchvsew" h] oujci; kai; uJmei" e[mprosqen tou'kurivou hJmw'n jlhsou' ejn th'/ aujtu' parousiva/_ uJmei" gavr ejste hJ dovxh hJmw'n kai; hJ carav.

여기에서 바울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수사 의문문 형식을 취한다음 확인의 가르(gavr)로 직접적으로 답변을 되풀이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문체를 구사한다.

바울은 단지 개인적으로 구원 받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삶의 결과가 시험 받아 견디어내므로 그것에 대한 보상과 칭찬을 원한다. 그의 삶의 결과(공력)들이 견디어 낸다는 사실은 파루시아의 날(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의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인 교회들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면류관과 기쁨의 결합이다. 면류관은 기쁨을 표현한다.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어떤 수고도 무릅쓰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것이다.

4) 영광의 면류관(th" dovxh" stevfanon)

면류관과 영광의 결합도 주목할 만하다. 면류관은 영광의 표시요 외형이다. 소망은 면류관을 바라는 것이다. 이 면류관으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광과 칭찬을 받으므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것이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과 모든 만물들이 인정하고 대우하는 영원한 상급을 말한다.

또 양 떼를 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 있다.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벧전 5:4)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영혼을 돌보고 먹이고 키운 목회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to;n ajmaravntinon th" dovxh" stevfanon)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5) 의의 면류관(dikaiousvnh" stevfano")

이 면류관은 칭의받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산 결과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한다.

이 면류관은 딤후 4: 6-8 에서 바울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다시 사용된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 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jEgw; ga:r h[dh spevndomai, kai; oJ kairo;" th" ajnaluvsew" mou ejfevsthken. to:n kalo;n ajgw'na hjgwnismmai, ton drovmon tetevleka, th;n pivstin tethvrhka: loipo;n ajpovkeitaiv moi oJ th" dikaiousvnh" stevfano", o)n ajpodwvsei moi oJ kuvrio" ejn ejkeivnh/ th/ hJmevra/, oJ divkaio" krithv", ouj movnon de; ejmoi; ajlla; kai; pa'si toi" hjgaphkovsin th;n ejpifavneian aujtou'.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딤후전 4:6)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딤후전 4:7)고 하였다. 따라서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호 테스 디카오쉬네스 스테파노스, oJ th" dikaiousvnh" stevfano") 즉 "그 날에 " 궁극적인 의롭다하심을 가져 올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고전 4:1-5). 이 면류관은 " 의로우신 재판장"(호 디카이오스 크리테스, oJ divkaio" krithv")이신 주님께서 주실 것이며,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토이스 헤가 페코시 텐 에피파네이안 아우투, pa'si toi" hjgaphkovsin th;n ejpifavneian aujtou')에게 주실 것이다(딤후전 4:8). 따라서 이 면류관을 받는 전체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인데, 이 충성은 주의 나타나심에 근거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완전히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충성이다.

이 의의 면류관은 계시록 19장에 성도의 옳은 행실과 관련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계 19:7-8)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참여할 신부들은 성도들인데 그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는데 그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옳은 행실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몸을 정결케 하고 신랑을 간절히 기다린다. 의의 면류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신자들이 그의 삶을 정결케 하고 주 앞에서 의롭게 살며 영혼 구원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여야 한다.

8. 예배와 섬김

천국의 상급으로 예배에서의 차등이 있다. 구속받은 신자들이 천국에서 하는 활동은 안식과 예배이다. 안식은 단순한 활동의 정지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이다.⁴⁷²⁾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 4: 9-11).

여기서 언급되는 백성들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3:1)이다. 그렇다면 천국은 그리스도인의 순례여정의 완성, 즉 육과 세계와 마귀에 대한 싸움의 끝이 될 것이다.

천국에서의 삶의 또 다른 면은 예배이다. 생생한 묘사가 요한 계시록 19장에서 발견된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사 장

472) 에릭슨, 「종말론」, 439.

로와 네 생물이 엮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계 19:1-9).

천국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에 의하면, 그 곳에 거하는 자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받은 자가 주의 재림과 대 심판과 그의 하늘나라의 수립에 이어서 이와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신자들은 지상에서 그들이 참여하였던 활동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드리는 미래의 활동을 위한 준비와 실천이다.

즉 지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 생활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예복을 입고 참석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옳은 행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의 옷이다. 인간의 행위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완전하신 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칭의의 옷이다. 그러나 여기서 옳은 행실은 칭의의 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본문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라 하였는데 이를 원어로 보면 *to; ga;r buvsinon ta; dikaiwvmatav tw'n aJgivwn ejstivn.* 로 되어 있다.

여기서 ‘디카이오마타’(dikaiwvmatav)는 동사 디카이오오(dikaiovw)에서 유래한 명사 디카이오마(dikaivwma)의 중성 명사로 규정, 법령, 의로운 행동을 의미한다.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 예복은 칭의에서 나아가 성화와 선행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 옷은 성도들마다 차이가 있는 차등 상급인 것이다.

또 다른 천국의 차등 상급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차등이 있다.

계시록 5장 11-14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들이 보좌와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과 많은 천사들 나아가 우주의 모든 만물로 나타나 있다. 천국에서는 모든 만물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도 있고 멀리서 섬기는 성도도 있다. 이 섬김도 천국의 차등 상급의 한 부분이다.

또 2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는 말씀이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는 상을 받게 된다.

9. 존귀(티메, timhv)

성도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성구는 베드로 전서 1장 7절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곧 믿음의 시련에 대한 상급을 한 마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e[painon kai; dovxan kai; timh:n)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존귀(티메, timhv)도 상급의 내용 중에 한 항목이 될 것이다.

여기서 존귀는 ‘값’, ‘가치’, ‘영예’, ‘존경’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헬라 사상에서 티메

는 사람이 그의 직책, 지위, 부 등 또한 지위 자체, 즉 위엄과 특권이 있는 직책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누리는 당연한 평가를 말한다. 노예들에게는 '티메'가 없었다.⁴⁷³⁾

믿음의 시련을 통해 훈련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주님이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에 존귀한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또 계시록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kai; oi[sousin th;n dovxan kai; th;n timh;n tw'n ejqnw'n eij" aujthvn.

이 본문에서는 영광과 존귀(th;n dovxan kai; th;n timh;n)의 상급을 말씀하고 있다. 자신이 땅에서 이룬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가지고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 12).

결 론

지금까지 천국상급에 대해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고찰을 하고 상급의 등급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축복을 바라는

473) Walter Bauer; J. H. Thayer; J. Schneider, *TDNT*. 169-180.

기복신앙이나 도덕과 윤리를 중심한 윤리신앙 및 막연한 종교심으로 신앙 생활하는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분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상급신앙을 가져야 하겠다. 결론에서 이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과 상급을 준비하는 자세 및 본 논문의 의의와 과제를 차례로 살펴보고 하겠다.

제 1 절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다(롬 8:1).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문제로 연연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빌 2:12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현재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영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영화될 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 선행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급을 주시는 상급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성화를 이루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좁은 의미의 구원과 구분된다. 우리는 좁은 의미의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상급을 바라보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이 상급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급이라 말하면 공로사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급이 없다'거나 '동일상급'을 주장하지만 앞서 상급의 등급과 내용을 고찰한 것처럼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권세와 섬김과 봉사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급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궁

극적으로 하늘나라를 다스릴 실력자로 만드시고자 영원 전 목적을 정하셨다. 이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는 다음 성경구절에서 잘 증명하고 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인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 회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24).

이 목적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소개된 대로 가정교회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그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단장해 가야할 것이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입게 될 의복은 바로 성도들의 세마포 의복인데 이 의복은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계19:7-8).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인 것이다.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단지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낸 것처럼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해내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영원 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리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만물을 봉사하는 이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역사를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우리 전부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

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다. 이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성화를 이루는 만큼, 믿음의 삶을 많이 산 것만큼 그 사람의 실력이 크게 성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실력을 마련하여 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인 것이다.

제 2 절 상급을 위한 준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물질적인 안정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일생을 달려가고 있다. 특히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천국이 없는 양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양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요 14:2). 우리에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지만 천국에서 상급은 사람마다 차등이 있을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 천국상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살펴보자.

1. 복음운동에 힘쓰라

천국상급의 준비방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셨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8절).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이 세상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간다. 세상 성공을 위해 온갖 열심과 정력을 다 쏟아 붓는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천국을 분깃 받은 사람

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다 투자하여 살아야 하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고 열심도 없고 충성도 안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청지기는 쫓겨난 이후를 생각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었다. 우리도 청지기처럼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살 사람인데 천국 준비를 잘하여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눅 16:9).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도둑질한 재물이 아니고 없어질 재물이란 말이다.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임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불의한 재물들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하려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마 25: 40)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것 복음을 위해 바친 생애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내 것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복음운동에 직접 나선 목회자나 선교사도 상급을 받지만 그 복음전도자를 후원한 후원자들도 동일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도 역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10: 41-42). 지극히 작은 수고에 대해서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상을 주신다는 것이다.

바울도 복음 전파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 6-7).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다.

2.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관심이 온통 천국에 있어야 한다. “오직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야 한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못하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마 6:19-20).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만큼 우리의 보화가 영원한 나라에 쌓여 더욱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벧후 1:11).

우리는 연보를 통하여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 땅에서 적게 심는 자는 천국에서 적게 거두고 이 땅에서 많이 심는 자는 천국에서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고후 9: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수입은 연보에 대한 추수가 아니라 계속 심을 있도록 씨와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추수는 천국에서 하는 것이다. 씨는 계속 연보로 심어라는 것이요. 양식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이다. 농부가 씨를 심어야지 가을에 추수하지 씨를 심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연보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고후 9: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나 연보의 문제는 량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렵돈 넣는 것을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하셨기 때문이다(막 12:41-44; 눅 21: 1-4). 그것은 자기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주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러나 연보에서 주의할 것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자원함으로 해야

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주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후 9:7-8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하심이라

3.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7 - 29).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주님을 위해서 한 희생에 대해 금생에서 백배나 보상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버리라는 말씀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따르는 데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금생에서는 핍박을 견하여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막10: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8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의 상급을 말씀하셨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 5: 12).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4. 구제사역에 힘쓰라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 구제사역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42).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예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다. 내 주위에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 하사 저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 6:10).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때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이웃에게 함으로 진정한 구제가 되어야 한다.

또 자기를 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

척이나 부한 이웃을 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칭하여 네게 값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값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값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눅 14: 12 - 14).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한 아주 보잘 것 없는 선행에까지도 보상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된 행위는 결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 보훈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구제할 때에 따라야 할 지침에 관해서 분명한 교훈들을 말씀하셨다.

마 6: 1-4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구제하는 자에게 장차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구제로 인해 세상에서 영예를 얻거나 존경을 받으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5. 영적 생활에 힘쓰라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 생활에 힘씀으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적 생활은 먼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 보훈에서 바른 기도생활을 강조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셨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지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5-6).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생활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영적 생활도 남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외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더구나 자기를 절제하는 금식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 16 - 18).

우리는 어떠한 영적 활동이든지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상급을 놓칠 것이다.

6.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천국의 상급은 종교적인 것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생활과도 관련이 있다. 각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한다. 봉사할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행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 23 -24).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눅 16:10)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충성한 결과에 따라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상급을 소망하며 나그네 인생을 잘 준비하여야 한다.

7.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마 5: 43 - 45a).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 취해야할 입장을 말씀하셨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눅 6: 35).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 된 종이 되어 그 날에 상 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것으로 영원히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베마) 앞에 설 때 빈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찬국상급 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한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골 2:18)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1)

너희는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요한이서 8).

제 3 절 본 논문의 의의와 과제

지금까지 천국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천국 상급에 관한 성경적 고찰을 하고 상급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뒤 상급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한 후에 상급에 대한 본질적 이해로 접근하였다. 신학적 고찰에서는 상급에 대한 조직신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급과 관련한 교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상급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서는 상급의 수여자와 수혜자를 분명히 하고 상급의 원리를 살펴보았다. 상급의 수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상급을 받는 수혜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상급의 원리는 대응성의 원리와 은혜성의 원리, 경건성의 원리이다. 그 다음에는 상급의 동기와 목적, 상급의 등급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룸으로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차등 상급의 본질을 살펴보았다. 상급에 대한 극단적 견해 곧 상급을 공로사상과 결부시키는 태도와 상급이 없다고 하는 상급 무사사상을 비판하였고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상급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첫째, 상급에는 수여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으며 상급을 주는 원리가 있는데 상급의 수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특히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상급의 수혜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다. 상급의 원리는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대응성의 원리, 자기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성의 원리, 하나님 중심으로 한 행위에 상을 주시는 경건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상급은 구원과 구분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는 신자의 선행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다. 구원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역사이지만 상급은 구원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셋째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의 세가지 중보직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감당하는 실력이 바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신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넷째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처럼 상급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상급에서의 '오직 믿음'은 자기 의를 이루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상급의 공로는 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미 이루어주신 것이다. 칭의된 신자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받을 상급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공로로 중생되고 믿음으로 칭의받은 신자를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화라 한다면 이 성화의 열매인 선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성화가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처럼 상급도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 성화가 순종을 수반하는 것처럼 상급도 순종을 수반하는 것이다.

일곱째 하나님은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열매인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신다. 상급받을 신자의 선행은 인간의 도덕적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화시켜주시는

결과에 대한 열매인 것이다.

여덟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역사의 종말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 때 불신자들은 형벌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은 상급심판을 받게 된다. 그 때에 우리의 드러난 행한 행위와 일과 모든 말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홉째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본주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 올바른 동기이기 때문에 이를 세속적 동기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요, 신자에게 선을 장려하며 신자의 연약을 돕기 위함이다.

열째 상급에는 반드시 그 등급이 있다. 상급의 내용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상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상급은 하늘의 보물(qhsaurov" ejn oujranw')과 하늘의 유업(klhronomiva) 및 하나님의 칭찬과 영접이 있다. 또 많은 것으로 맡겨주심과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즐거움, 천국을 다스리는 권세 및 영광의 차이가 있다. 또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이 면류관은 , 생명의 면류관(stevfanon th" zwh"), 썩지 않을 면류관(stevfanon a[fqarton), 기쁨의 면류관(cara; stevfanov"), 영광의 면류관(th" dovxh" stevfanon), 의의 면류관(dikaiosuvnh" stevfanon")이 나와 있다. 상급의 내용으로 또한 예배와 봉사를 통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섬김이 있고 존귀(티메, timhv)의 상급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상급의 차등은 교회론적으로 고찰해보아야 한다. 신자는 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긴 것처럼 천국에서도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쓰임받은 실력을 갖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천국의 상급은 서로 높아지려 하는 것이나 대우받으려 하거나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위화감이 생길 이유가 없고 본인은 쓰임 받음이 즐겁고 다른 지체는 도와주어서 즐거운 것이다.

조만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우리 인생을 정산하러 오실 것이다. 그때에 부끄러

운 자로 나타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자들은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고의 의의와 미결사항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오늘날 천국 상급에 대한 인식이 날로 새로워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신교 내에 천국 상급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교회 내에도 하늘의 상급을 무시하고 이 땅의 성공만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난무하고 있는데 본고는 천국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상급 사상이 성경 전체에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또한 본고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선행과 상급을 무시하는 태도를 마치 개혁주의인 것처럼 오해하는 유 신앙론(唯 信仰論)의 사상과 선행에 대한 상급을 공로로 생각하는 공로사상을 배격하고 균형잡힌 상급관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고는 '천국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성경신학적이고 목회신학적인 구체적인 접근이 다소 아쉬웠던 점을 밝힌다. 또한 상급에 대한 교회론적 접근이 부족했던 점을 밝힌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므로 주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에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 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Bibliography

I. 영서

- Ariaraja, S. Wesley *The Bible and People of Other Faiths*. WCC, 1985.
- Barth Peter and Niesel, Wilhelm eds,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vol. 1
Munchen: Kaser Verlag, 1962-52, 363-4.
- Baum, Guililmus, Cunitz Eduardus and Reuss Eduardus eds.,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2, Brunsvigae: C. A. Schwetschke, 1864.
- Bavinck, Herman *Gereformeerde Domatiek*, 4th ed, 4 vols, Kampen: Kok, 1928-30(3rd ed, 1918)
Our Reasonable Faith. Baker, 1956.
- Berkower, G. C. *Studies in Dogmatics: Faith and Justification*. Translated by Lewis B. Smede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4.
- Blomberg, C. L. *Interpreting Parable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1990.
- Borsch, F. H. *Many Things in Parables : Extravagant Stories New Community*. Philadelphia: Fortress, 1988.
- Bucanus, Gulielmus. *Institutiones Theologicae*, 1609.
- Clark, Gordon H. "History of Ethics," *Baker's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220-221.
- Cocceius, Johannes. *Summa Theologiae* , 1665.
Summa Doctrinae, 1648.
- Dauids, P. H. *The Epistle to the Corinthian*. Grand Rapids: Eerdmans, 1982.
- Fee, Gord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 Grand Rapids: Eerdmans, 1987.
- Fletcher, Joseph.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 Philadelphia:

- Westminster, 1966.
- Heppe, Heinrich. *Reformed Dogmatics Set Out and Illustrated from the Sources*. Baker, 1978.
- Herford, R. T. *The Pharisees*. Boston: Beacon Press, 1962.
- Hodge, A. A. *Outline of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s, 1977.
- Hodge, Charles. *An Exposition of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1973.
- Systematic Theology*. 3 vol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72; Reprint ed. Grand Rapids: Eerdmans, 1972.
- Hunter. *A Pattern for the Life: An Exposi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Its Making, Its Exegesis and Its Mean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53.
- Jeremias, J. *The Parables of Jesu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 Kelley, J. N. D. *A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London: Black, 1963.
- Kistemaker, S. K. *The Parables of Jesus*. Grand Rapids: Baker, 1980.
- Kuyper, Abraham *E Voto Dordraceno*, 2.
- Lewis, C. S. *The Weight of Glory*. New York: Macmillan, 1980.
- Luther. *Treatise of Good Works*, 1520.
- Marshall I .H. *The Challenge of the New Testament Ethics*. London: Macmillan, 1946.
- Michaels, J. R. *1 Peter*. WBC. Waco: Word, 1988.
- Michael, Wihelm. *Der Evangelium nach Mathaeus*. Zuerich: Zwingli Verlag, 1949.
- Muller, M. "Uber Autonomie und Gnade von Alexandria", *ZNW* 25 (1926):177–207.
- Murray, J.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1977.

- Piscator, Jo- hannes. *Aphorismi Doctrinae Christianae*, 1592.
- Reynolds, M. 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he Cup of the Lord or the Cup of Devils?*
- Ridderbos, H. *The Coming of the Kingdom*. Translated by H. de Jongste. Edited by Raymond O. Zorn.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62.
- Singer, C. Gregg "Calvin and the social Order,"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 Smith, Wilber. "Inheritance and Reward in Heaven", *Eternity*, March (1977):79.
- Strong, A. H. *Systematic Theory*. Judson, 1976.
- Toon, Peter.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Westchester: A Division of Good News, 1983.
- Traeltsch, E. *Atheistische Ethik*, Vol. II, of *Gesamelte Schriften*, 1922.
- Turretin, *Institutio Theologiae*, L. XV II. Quaestio 5. Edinburgh, 184.
- Volf, J.M.G. *Perseverance and Falling Away in Paul's Thought*. Ph.D Dissertation, Tübingen University, 1987.
- Venter, W. "Calvin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Institutes*" in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roceedins of the Second South African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Potchestroom, South Africa: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6.
- Vos, G. *The Pauline Eschatology* .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1979.
- Wilder. *Eschatology and Ethics in the Teaching of Jesus*. New York: Harper & Row, 1950.

II. 번역서

- Alcorn, Randy. 「상급받는 그리스도인」. 윤종석 역. 서울: 두란노, 2004.
- Berkhof, L. 「별굽 조직신학 제 7권 종말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 1979.
- Berkhof, L. 「벌굽 조직신학 제 5권 구원론」,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비엘러, 앙드레 「칼빈의 경제윤리」, 홍치모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5.
- Calvin, John 「기독교강요」 III, 김종흡 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기독교강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칼빈 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역. 서울: 성서원, 1999.
- Carson, D. A. 「엑스포지스터스 성경주석 공관복음」. 서울: 기독교지혜사, 1985.
- 크라우니, 에드먼드 P. 「교회」. 오성일역. 서울: 참말(도) 1993.
- Epp, Theodore H. 「신자의 헌신과 보상」. 홍관옥 역. 서울: 바울서신사, 1991.
- Erickson, Millard J.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복음주의 조직신학(下)」. 신경수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종말론」. 이은수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7.
- 밀라드 J. 에릭슨,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33.
- Foster, Henry J. 「베이커주석」. 장지철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6.
- 가이슬러, 노르만.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Grudem, Wayne. 「조직신학(하)」. 노진준 역. 서울: 은성출판사, 1996.
- 거쓰리, D. 「신약신학」. 이중수역. 서울: 성서 유니온, 1993.
- Hendriksen, William. 「내세론」. 오성종 역. 서울: 새순 출판사, 1991.
- Henry, Mattew. 「요한 계시록」. 서기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5.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개혁주의 종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0.
- Ladd, George. E. 「개혁주의 종말론 강의」 이승구 역. 서울: 이레서원, 2000.
「신약신학」. 이창우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90.
「마지막에 될 일」. 서울: 정음 출판사, 1983.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태훈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0.
- Lane, Tony. 「기독교 사상사」. 김웅국 옮김. 서울: 나침반사, 1987.
- Seeberg, Reinhold. 「기독교 교리사(중. 근세편)」. 김영배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Vos, H. L. 『하나님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96.

Wall, Joe L. 「그리스도인의 상급」. 김원주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Wallace, Ronald S.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III. 국내 서적

권성수. 「천국의 상급」.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김길성. 「개혁신앙과 교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1.

「개혁 교회론」. 경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김광열.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나용화. 「기독교 신앙의 진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0.

명신홍. 「개혁과 윤리학」.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71.

박윤선. 「개혁주의 교리학」. 서울: 영음사, 2003.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88.

「신약주석」. 서울: 영음사. 1980.

박형룡.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구원론」.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 연구원, 1988.

서철원. 「기독교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신학서론」.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손봉호. 「현대정신과 기독교적 지성」. 서울: 성광문화사, 1990.

이명호. 「천국에도 차등 상급이 있다」. 경기: 도서출판 대장간, 1999.

조영엽. 「구원론 종말-내세론」. 서울: 도서출판 미스바, 2004.

하문호. 「기초 교의신학 V 구원론」.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83

「기초 교의신학 VII 종말론」. 서울: 한국 로고스 연구원. 1983.

IV. 논문집, 저널

Blomberg, C. L. "천국상급에 차등이 있는가?" 「목회와 신학」(1993년 4월): 272-285.

Hengstenberg, E.W. "욥기 해석." 「구약신학논문집」(1). 윤영탁 옮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79.

The Ecumenical Review, 38 (1986), 215.

김영환, "생명복제와 개혁신앙." 『생명복제와 개혁신앙』, 22.

"복음주의 신학과 현대 기독교 윤리: 포스트모던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 복음주의 신학과 기독교윤리, 제 32차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1998.

권성수.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 연구(I)." 「신학지남」 통권 209호(1986년, 가을): 22-39.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 연구(II)." 「신학지남」 통권 210호(1986년, 겨울): 22-39.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 연구(III)." 「신학지남」 통권 215호(1988년):18-42.

"마태복음의 상급교훈에 관한연구(IV)." 「신학지남」 통권 216호(1998):63.

김경신. "천국 시민권 자체가 상급이다." 「목회와 신학」(1993년 4월호): 273.

박상은. "황우석교수 줄기세포 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일보. 2005. 5. 25.

박재현. "난치병 치료와 줄기세포연구." 성산생명 의료 윤리 연구회, 사랑의 교회 생명 윤리선교회. 2005. 4. 25 발표된 글.

서철원. "한국교회는 전 세계적인 배도에 등승할 것인가?" 「신학지남」 통권 제 273호 (2002년 겨울): 4-10.

신복윤. "칼빈의 윤리관." 『신학지남』, (1996년 가을): 36, 44.

전경연. "예수의 말씀에 나타난 응보와 보상." 「신학사상」 제5권(1974년 5월): 263-264.

홍창표. "하나님 나라의 상속개념." 「신학정론」(1995년 5월호): 292-293.

V. 사전

- Brown Collin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3. ed. Collin Brow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 Clark, Gordon H. "Calvinistic Ethics," Bak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Carl F. H. Hen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 Cleon, Roger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vol.2 ed. R. Laird Harris.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81.
- Kittel, Gerhard and Friedrich, G.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9. Grand Rapids: Eerдамans, 1983.
- McKim Donald K. Ed. "Theological Ethics," Encyclopedia of the Reformed Faith,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2.
- Muller, Richard A. *Dictionary of Latin and Greek Theological Terms*. Baker, 1985.
- Preus, Robert D. "Adiaphora," *Baker's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1973.
- Vine, W. E. *An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ed, 1966.
- 김영철, "윤리학," 『철학대사전』. 서울: 학원사, 1976.
- 이병철. 「성경원어사전」. 서울: 브니엘출판사, 1985
- 「헬한 완벽사전」. 서울: 한국성서연구원 I, II, III, 1989.

VI. 신문

- Calvary Contender*, 1 January 1999.
- Provan, Charles D. "The Bible's View of Birth Control," *Christian News*, 29 February 1988. 1, 11-14.
- Religious News Service, 18 June 1986.
- 노영상, "배아 즐기세포 연구와 기독교인의 책임윤리", 국민일보, 2005, 7, 28.

이승구, “중착역은 ‘인간복제’가 아닐까”, 국민일보, 2005, 8, 4.
국민일보, 2005, 9, 15
기독교신문, 1998. 1. 14, 16쪽
크리스찬신문, 1998. 1. 26 쪽.
조선일보, 2001. 11. 17, 21쪽.
환경비즈니스, 2005. 12. 11.

VII. 신조, 고백서

Belgic Confession. Art. 34.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Chap. XVI. Canon. XVI.

Heidelberg Catechism, Lord's Day.

Heidelberg Catechism, Question 63.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Larger Catechism and Short Catechism.

Abstract

A Study of the Rewards of the Kingdom

Jai Ryong Ryou

Department of Theology

The Graduate School, Chongshin University

Major Advisor : Prof. KilSung Kim, Ph.D

Nowadays the church's denial of orthodox doctrine casts a pall over the world because the Church in the West has accepted biblical criticism based on anti-supernaturalistic presuppositions. Thus Christ's implied prediction in Luke 18:8 is fulfilled: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Today the Gospel is preached in the entire world, but churches faithful to the Bible are rare. But because Christians

have abandoned the absolutes of Christianity, they have lost interest in the Heaven of the next world but have a keen interest in the present world.

We must believe that God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Hebrews 11:6). Therefore true Christian faith will be rewarded for believing the promises of God.

The liberals deny heaven altogether, while many Protestant theologians deny the rewards of heaven. The reason some Protestants object to rewards based on a person's good deeds is due to the fact that believers are saved entirely by faith, that is 'solely faith,' 'solely grace,' not by works. Thus they think that asserting that one can earn rewards by doing good works is the same as the merit earning thinking of Judaism and Roman Catholicism.

Judaism and Roman Catholicism insist that the behavior of man can earn righteousness which confers God's forgiveness because God has given man a free will to do good works. Thus man's works can gain God's grace and salvation. This claim is the so-called meritorious thinking.

But the Reformers who had taken a stand against the meritorious thinking of Roman Catholicism emphasized God's sovereignty and grace even in rewarding the believer. They held that we are able to be reconciled to God entirely by faith (*sola fide*) and entirely by grace (*sola gratia*) and that even the believer's reward was due to God's grace. Their arguments are

partly right because they are opposite to the incorrect meritorious thinking of Roman Catholicism but they are mistaken because they thought that rewards based on good deeds are synonymous to the meritorious thinking of Roman Catholicism.

The Reformer's mistaken thinking had a negative effect on post-Reformation Protestant theologians. Thus many Protestant theologians are ignorant of the Bible's teaching about rewards. Another reason why Protestant theologians are ignorant of the Bible's teaching on this subject is the influence of Immanuel Kant's idealistic ethics. Kant asserted that we ought to do our duty because of the duty itself without regard to result or recompense. This view gave birth to the slogan that virtue is for virtue's sake; so it was thought that the Bible's teaching about rewards has serious negative ethical effects. But the Bible stresses constantly the fact of believers rewards and encourages believers thereby to do good works (Mt. 16:27; 1 Co. 3:8; 2 Co 5:10, etc.).

Another reason why Protestant theologians have neglected the Bible's teaching about rewards is that they confuse rewards and salvation. Salvation is achieved by the sovereignty of God independent of human efforts, but rewards accompany deeds of faith. Saved believers live holy live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fruit of holy living is good deeds; thus God gives rewards to believers because of their good deeds.

The crux of the issue concerning rewards is the emphasis point, that is, a correct balance of emphasis between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e responsibility of man. An extreme emphasis on man's deeds leads to meritorious thinking, while an extreme emphasis on the sovereignty of God leads to neglect of the believer's rew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e responsibility of man is a very important key to understanding the entire Bible and biblical theology. This relationship is a classical problem in Christian theological thinking. The Bible says that God is completely sovereign while at the same time man bears complete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s. It says also that God and man work in tandem. Thus God is 100 percent sovereign and man is 100 percent responsible.

The purpose, therefor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octrine of rewards as taught in the Bible, a doctrine which seems like a contradiction between God's grace in giving rewards and the good deeds of man in earning rewards. When we achieve this correct understanding, we can reject both the meritorious thinking and the neglect of reward thinking due to the two extremes. By understanding the doctrine of rewards rightly, we can live as God's heavenly citizens in this world.

In summar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is study. First, the actor who confers rewards on the believer is God, the Trinity, and the purpose of rewards is to exalt Jesus Christ especially. The recipient of rewards is th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e principles of rewards are the principles of

correspondence, grace, and piety.

Second, rewards are different from salvation. Rewards are given by God to the saved believers based on their good deeds. Salvation is not associated with man's deeds but is the sovereign action of God in history. But rewards are God's gracious gifts to believers who perform good deeds.

Third, rewards involve the offices of the Mediator, that is, the roles of Christ. Believers will exercise the three offices of Christ, that is, they will govern Heaven with the authority of Christ. The three offices of Christ are the roles of prophet, priest, and king. The ability to fulfill these offices is the believer's reward in Heaven.

Fourth, rewards are fulfilled through faith just as salvation is fulfilled through faith. The meaning of 'solely by faith' in rewards is to rely 'solely on Christ.'

Fifth, the merits of rewards are by not the good deeds of believers but by the justification of Jesus Christ. Justified believers receive rewards by obeying the Word of God.

Sixth, rewards are not a payment for the believer's merits but are given by God purely because of God's grace. No one has the right to demand a reward from God. We must realize that God rewards by His grace; thus we must have the attitude of an unworthy servant because God is the only one who will weigh and judge men.

Seventh, the expectation of reward is motivated by faith in

God's sovereignty and love, so we must distinguish the biblical motive from the secular motive. The purpose of God giving rewards is to show God's good will, to encourage believers to good deeds, and to help the weak.

Eighth, the grades for the rewards are in the Heaven.

Ninth, the nature of the rewards is not secular but spiritual, that is, God's praise and acceptance, a treasure in heaven, and an inheritance in heaven. Furthermore, the nature of the rewards is the degree of pleasure the believer experiences in the victory celebration in Heaven, the degree of the believer's authority and glory in Heaven, and his ability to serve God and men in eternity.

Lastly, the differences in rewards **are similar to the differences in serving the church.** Believers are the limbs and the body of the church, which is the Lord's body. Just as believers serve the church in this world using the gifts they have received from Jesus Christ so they will serve God and other believers in Heaven.

Thus the rewards in Heaven do not mean exalting oneself and dominating others by force but rather they mean the ability to serve God and others. There are no conflicts among believers in Heaven. Heaven is a joyful and pleasant world because the people in Heaven serve each other. Therefore believers must do good deeds earnestly and look forward to their heavenly rewards.